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rra.or.kr
http://www.kr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6 / April / 2007

0704

칼럼

하느님이 건축사에게 보낸 편지

회원작품

원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공예 종합유통지원 센터
고려대학교 해송 법학도서관
서울디지털 드림타운
웅진군청사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작품노트

유비쿼터스- (주)에즈랜드 파주 신사옥·인쇄공장

현상설계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용인 기흥 공공도서관

포지션 : 원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건축사 2007 04

korean architects 456

하느님이 건축사에게 보낸 편지

A letter from God to Architect

소향 형!

그간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사고하고 계십니까?

흰 구름 둥 둥 / 구름은 가고

이제 다시 제(弟)는 시혼(詩魂)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또는 멀리로 나들이 간 시혼! 복사꽃 피는 마을, 환하니 복사꽃 피는 마을을 찾아 혼자 나들이 간 시혼을 나는 어서 불러야 하겠습니다.

이 별을 지나면 저기 / 남향(南向)받이 산기슭

그 다소곳한 마을에 / 복사꽃, 오 오!

화안히 그 / 복사꽃은 피리니.

출근길, 눈이 시리도록 환히 핀 백목련을 보노라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로 시작되는 박목월의 '4월의 노래' 와 함께, 60년대 고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청록파 박두진의 서간문 '영동을 지나며' 가 생각난다. 가난했기에 읽을 책이 부족했던 그 시절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생각나는 명문이다. 목월은 '4월의 노래' 에서 편지를 읽고 쓰는 대목을 집어 넣어 혼자이지만 혼자자가 아닌, 풍요로운 봄을 함께 나누고 즐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것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편지로 만들어진 소설이기에, 편지와 소설읽기의 2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 시절 '깃발' 로 유명한 청마 유치환은 동료교사 이영도 시인에게 5,000여 통의 사랑 편지를 쓴다. 청마 사후 출판된 책 속에, 당시 젊은이들이 애송하던 편지가 있다.

사랑하는 것은 /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위의 편지가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쓴 수많은 편지인데 반하여 40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영원히 보내면서 쓴 단 한통의 애절한 사랑편지도 있다.

'당신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께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며 사랑할까요?'

31살 남편의 관 속에, 애뜻한 부부의 사랑을 담아낸 원이 엄마의 편지는 세월의 시공을 뛰어 넘어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편지의 역사는 길고도 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의 신약은 27권 중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으며, 그 역사 또한 2,000여년이나 된다. 우리네 선조도 많은 편지를 남겼다. 유배기간이 길었던 다산 정약용과 완당 김정희는 수많은 편지를 썼으며, 그 속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부자지간의 애정에서부터 국제적인 문제와 금석학, 철학사상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책을 이루고 있다.

“이제 하느님께서 ‘정부는 썩고, 건설사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설계검업을 시도하나, 이는 반문화의 무식한 소치라며 이들을 혼내주고 후진국에도 없는 검업은 절대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수년 후 다른 나라처럼 설계비도 공사비의 10% 이상을 받을 것이니, 실력이나 연마하시오. 그대들 건축사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선조들의 편지 중에는 ‘자신이 자신에게 쓴 편지’가 특이한데, 주인공은 고려 최고의 문장가 이규보이다. 그는 명성과는 달리 40여세가 될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자 그 억울함을 자위하고자 ‘선인(仙人)을 대신하여 나에게 부치는 편지’를 썼다. 안대회의 『선비답게 산다는 것』에 번역된 편지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축약해 보면

“옥황상제(玉皇上帝)가 계시는 자미원의 대신(大臣) 아무개는 금동천사를 보내 이규보 선인께 편지를 올립니다. 그대는 우리와 함께 상제님을 보좌하던 높은 신분인데 그 공로가 큼으로 고려국에 인간으로 태어나,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부귀공명을 누리고 오라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고려국을 돌아본 사자의 보고에 의하면, 그대는 요즈음 마구 술잔이나 기울이며 미친 짓거리나 일삼고, 상갓집 개같이 공상맞은 선비행세로 지난다지요?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모두 당신의 문재(文才)와 인품의 출중함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등용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진 이를 질투하고 뇌물이나 좋아하는 고관대작들의 비뚤어진 심성과, 아침하고 빌붙고 뇌물 쓰는 따위를 싫어하는 당신의 끈은 품성이 빚어낸 결과겠지요?”

“우리는 사자의 보고를 들은 후, 어진 이를 질투하고 저보다 유능한자를 꺼리는 고려국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여 줄 것을 상제께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곧바로 문책과 치죄를 할 것입니다. 이제, 옥당(玉堂)이 깊다고 들지를 못하겠습니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이 높다고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홍진(紅塵)의 하계에서 한바탕 영화를 즐기고 계시는 동안 저희는 선인께서 돌아오실 날을, 상제께서 하사하신 감로주 갖춰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공명은 이루지 않을 수 없으나 부귀는 오래도록 탐할 수 없는 법, 우리 그대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불운한 자신을 위로하고자 스스로 쓴 편지대로, 그는 출세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로 지금도 숭앙받고 있다.

지금 건축사들은 건설사의 설계검업 시도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건교부는 드러내 놓고 건설사편이고, 건설사들은 막강한 재력과 그룹사의 힘을 배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어디 하나 기밀 곳이 없다. 이제 건축사도 내일의 희망과 용기를 갖기 위하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 봄 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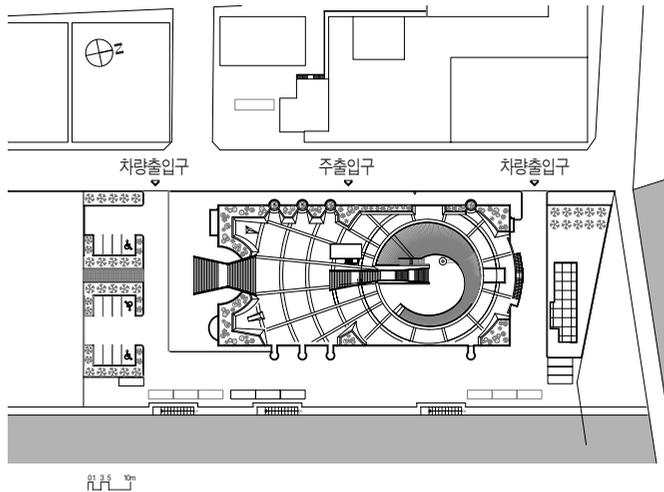
“하늘의 천사장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한국건축사께 이 글을 올립니다. 하느님은 창조주(The Architect)로서 하느님 나라 곳곳을 디자인한 한국 건축사들(Architects)에게, 멋진 기량으로 국민민복과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라고 보냈지만, 오늘 지구를 다녀온 천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건축사는 준공식에서 감사패는커녕 앓을자리도 없어 상갓집 개가 되었고, BTL, 텀키 등으로 생존의 위기가 계속되는데도 정부의 관리들은 건설사의 설계검업 로비에 한통속이 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면서 건축을 부동산으로만 보고 있다지요? 막강한 건설사 파위에 외톨이가 되어 마음을 달래려고 술잔이나 기울이는 신세라지요. 이제 하느님께서 ‘정부는 썩고, 건설사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설계검업을 시도하나, 이는 반문화의 무식한 소치라며 이들을 혼내주고 후진국에도 없는 검업은 절대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수년 후 다른 나라처럼 설계비도 공사비의 10% 이상을 받을 것이니, 실력이나 연마하시오. 그대들 건축사에게 권할 것은 이뿐이니, 노력하시오.”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

WanDo F.C. Fresh Fish Distribution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00-1번지
지역지구	준 공업지역
주요용도	판매시설(항만시설)
대지면적	7,177.00㎡
건축면적	2,684.49㎡
연 면 적	3,472.03㎡
건 폐 율	37.40%
용 적 륜	48.38%
규 모	활어종합유통센터 : 3층 + 폐수처리시설 :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에폭시코팅
외부마감	T0.7 REHEIN ZINC합금판, 본타일
설계담당	황인광, 이세영, 박경숙, 허정
구조설계	국제구조
설비설계	새터 ENG
전기설계	좋은 ENG
시 공 사	학림건설(주)
공사기간	2006.06. ~ 2007.01.

1 동측 전경
2 남측 전경



Location	1100-1, Gayong-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Korea
Site area	7,177.00㎡
Bldg area	2,684.49㎡
Gross floor area	3,472.03㎡
Bldg coverage ratio	37.40%
Gross floor ratio	48.38%
Structure	R,C + S,C
Bldg. Scale	F3
Construction period	2006, 06 ~ 2007, 01



도시민과 어민, 어민과 어민의 교류 場인 ‘완도군 수협 활어종합유통센터’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다. 이런 곳의 건축디자인 프로그램은 물리적, 심리적, 행태적 측면의 복합적인 교감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비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대지가 간직한 작은 실마리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완도군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 환경적 조건, 역사적 사건을 각각의 디자인 프로그램 요소로 사용하여 다양한 감동을 동시 다발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도시민과 어민의 유기적 소통과 상생의 네트워크가 서로간의 교감으로 실현되도록 시도했다.

‘건물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가?’, ‘바다와 인접하고, 완도 수변공원의 시작점이며 끝점인 이곳은 무엇으로 어떻게 커다란 느낌표로 남고자 하는가?’ 를 고민했다.

이곳은 바다와 육지의 연결점, 활어종합유통센터의 기능과 관광문화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수협 주변의 활성화를 통한 인근지역을 생동감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머무르고 체험하는 장소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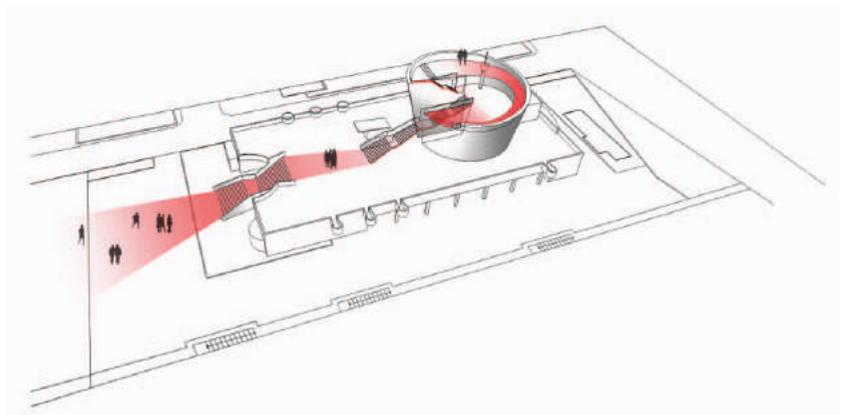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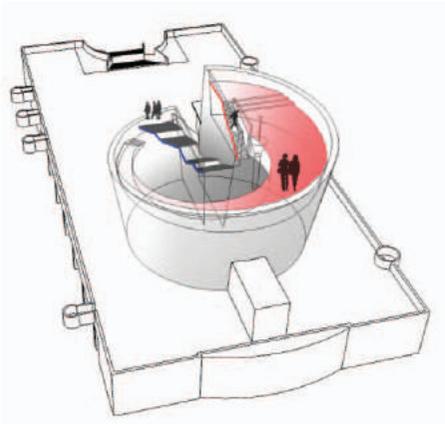
터 잡기의 시작은 수변공원과 바다로부터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강한 상징성을 부여하면서다. 주변 상가의 바다에 대한 조망 확보와 기존 수협과 기능보완을 고려하며, 새로운 옥외공간을 형성 하였다. 시각적 개방성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기존시설에 거슬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수변공원에서 2층 이벤트광장으로 연결되는 옥외계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변 경관을 보도록 하였고, 옥상 전망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넓게 형성된 하늘 문을 지나 전망대에 이르게 했다. 이곳에서는 원형 램프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청정바다, 완도항 일원을 감상하게 된다.

유통센터는 수산물의 경매와 판매, 그리고 관리 등의 단순한 기능이지만, 단지 기능에 따라서만 디자인을 마무리 한다면 얼마나 감성적·형태적 흥미가 부족할까? 기능은 단순하지만 내포된 의미는 많기에 형태적 랜드마크의 기능을 강하게 부여 하였다.

배치는 소라의 형상을, 바다에서는 등대의 이미지를, 수변공원에서 바라볼 때는 양손을 크게 벌리고 환영하는 의미를, 분절된 매스사이의 하늘계단은 사람의 품(전망대)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수협을 찾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속의 추억꺼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업을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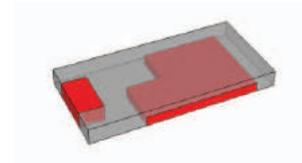


진입광장에서 전망대까지 동선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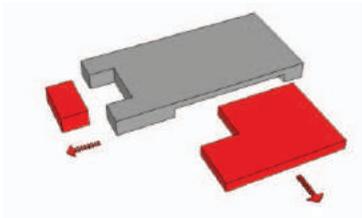


Massing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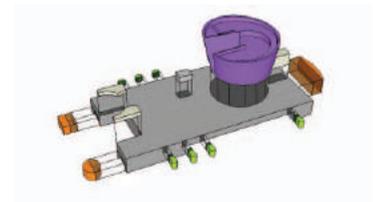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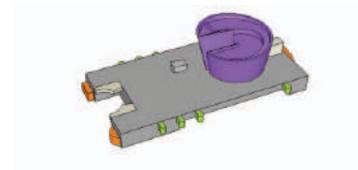
Arti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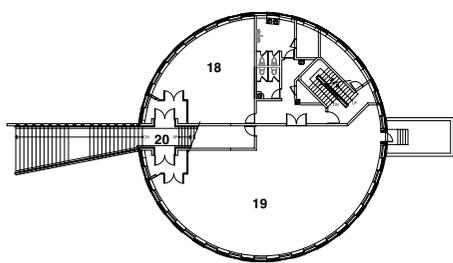
Multi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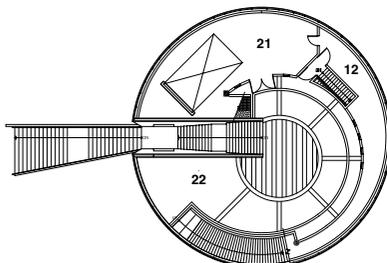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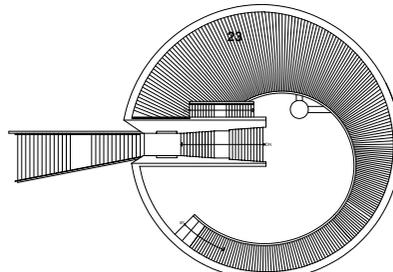
- | | |
|---|-----------------------------|
| 1 | 1. 이벤트 광장에서 본 전경
2. 서쪽전경 |
| 2 | |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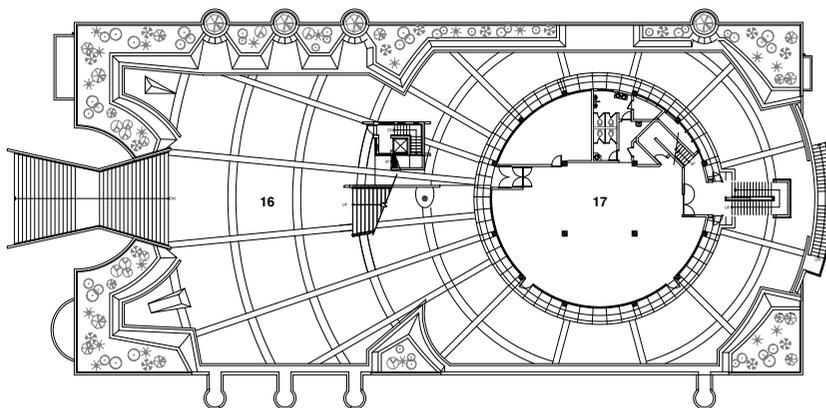


옥탑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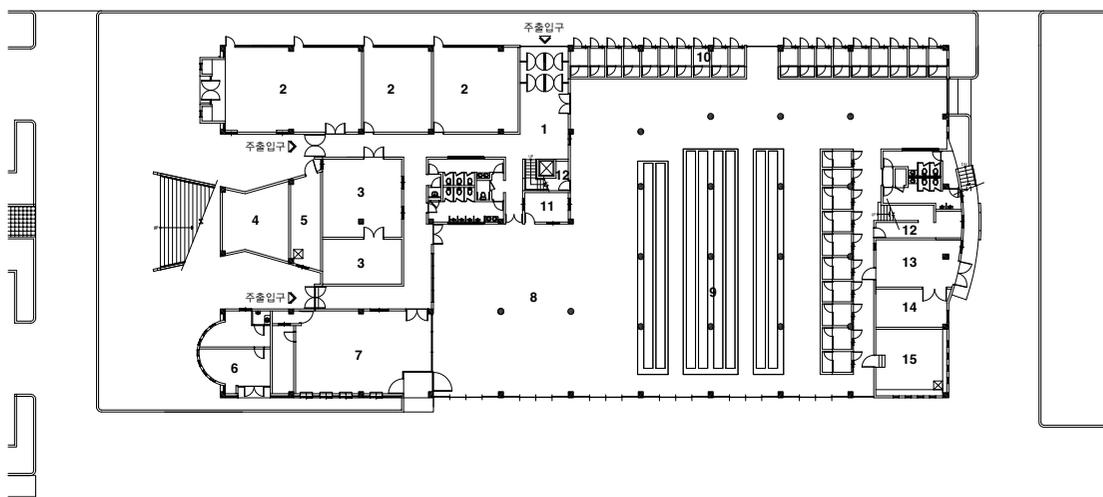


옥탑지붕평면도

- 01_ 출 및 복도
- 02_ 소매점
- 03_ 저장고
- 04_ 저수조
- 05_ 펌프실
- 06_ 파출소
- 07_ 판매과사무실
- 08_ 선어공판장
- 09_ 활어공판장
- 10_ 저수조 및 사무실
- 11_ 강의실
- 12_ 창고
- 13_ 전기실
- 14_ 발전기실
- 15_ 해수펌프실
- 16_ 이벤트광장
- 17_ 회센터
- 18_ 사무실
- 19_ 복지시설
- 20_ 하늘계단
- 21_ 고가수조
- 22_ 지붕 전망공간
- 23_ 전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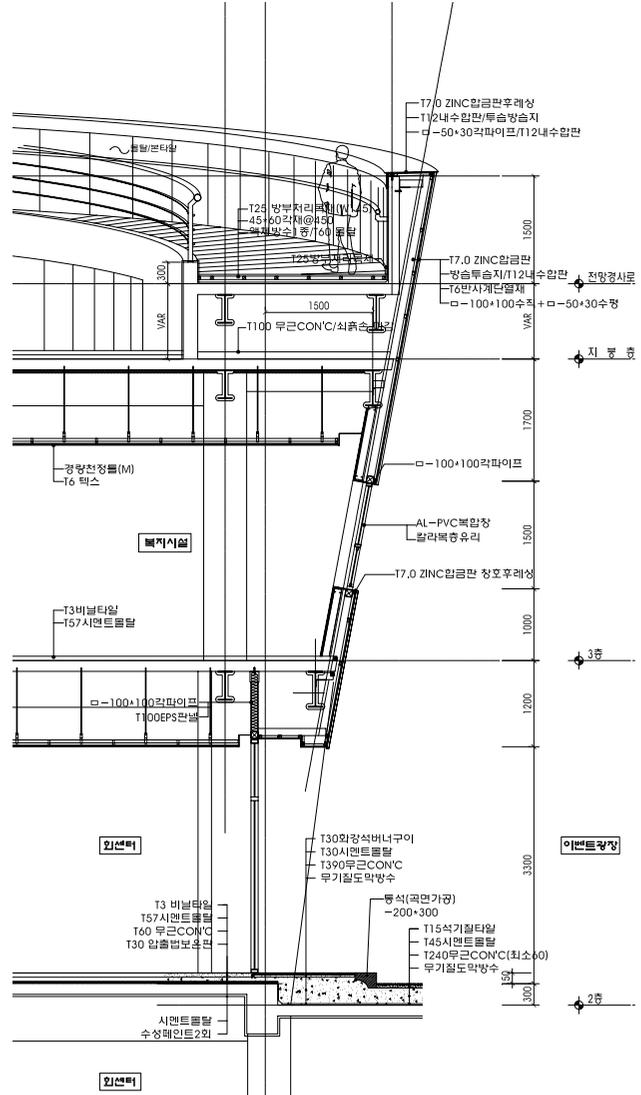


2층평면도



0 1 3 5 10m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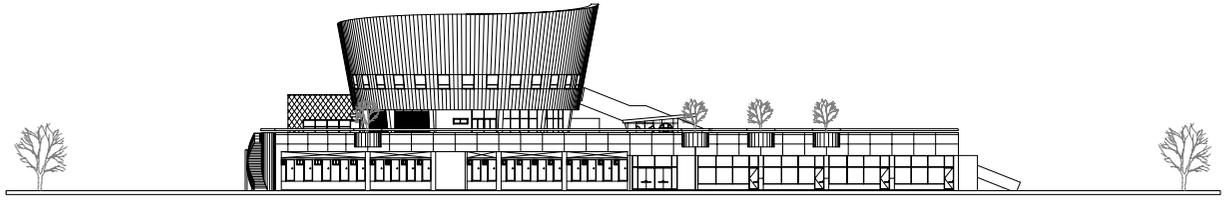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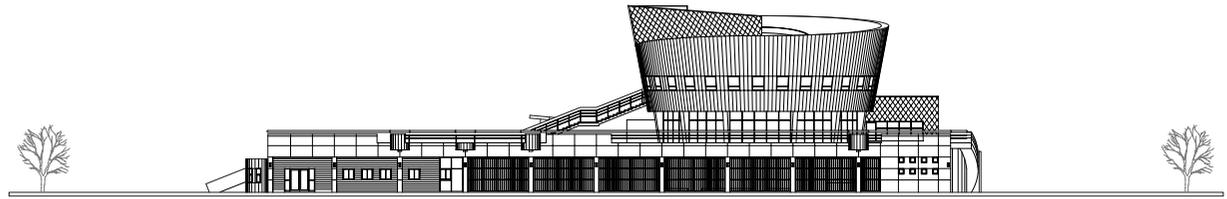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1. 으뜸계단에서의 전경
 2. 전망대에서 본 원도향
 3. 전면 디테일
 4. 이벤트광장 노대

디자인 과정의 다양한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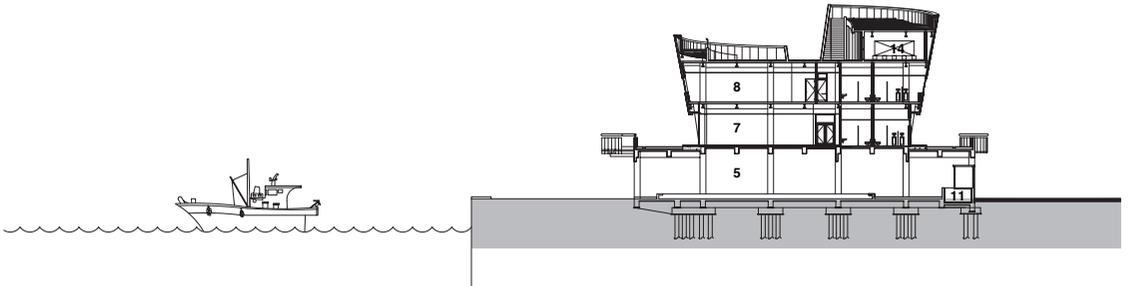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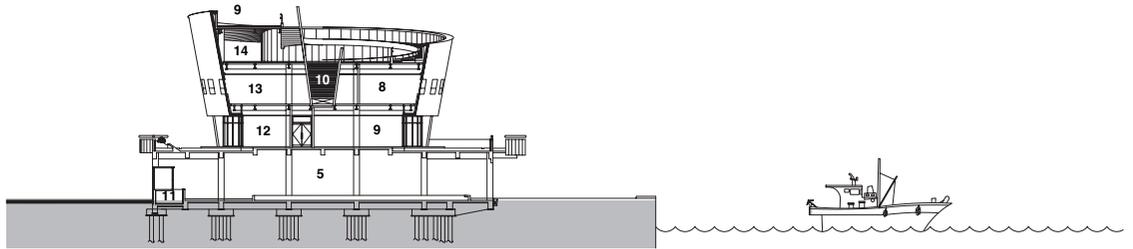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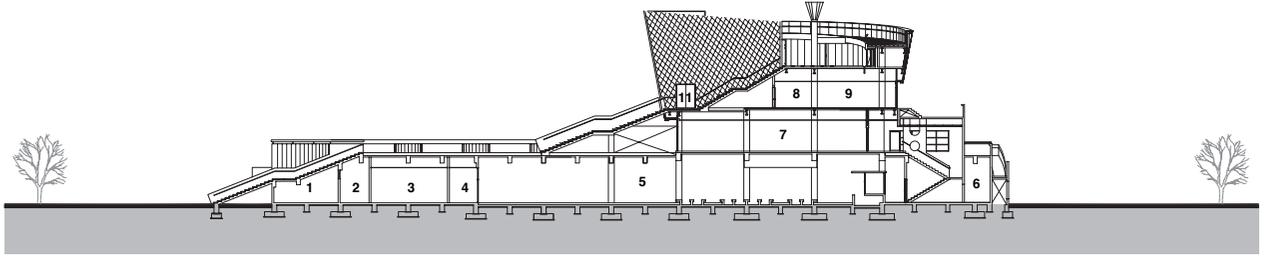


서측면도



동측면도





- 01. 저수조
- 02. 펌프실
- 03. 저장고
- 04. 복도
- 05. 활거공판장
- 06. 창고
- 07. 회센터
- 08. 복지시설
- 09. 전망공간
- 10. 하늘계단
- 11. 저장수조 및 사무실
- 12. 주방
- 13. 사무실
- 14. 고가수조

- | | | |
|---|---|---|
| 1 | 2 | 4 |
| 3 | 5 | 6 |
- 1. 하늘계단
 - 2. 활거공판장
 - 3. 이벤트 광장
 - 4. 모형사진
 - 5. 바다와 전망대 이미지
 - 6. 3층 내부

0 1 3 5 10m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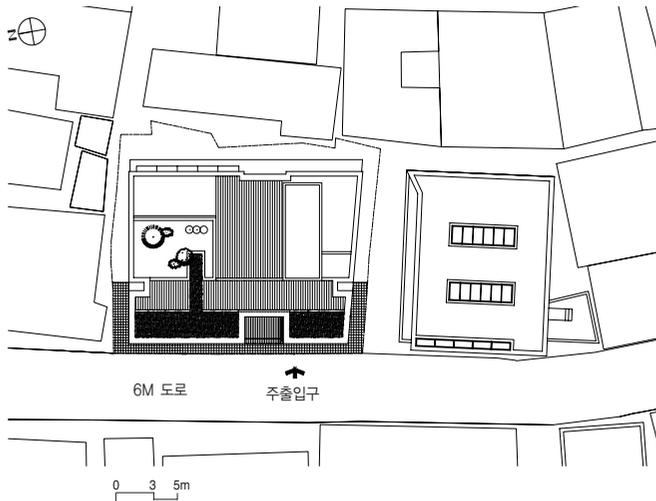


공예 종합유통지원 센터

Korean Craft Promotion Foundati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81, 182-2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96.40m ²
건축면적	264.33m ²
연면적	1,178.22m ²
건폐율	66.68%
용적률	168.03%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벽재료	T24 투명복층유리, 고밀도목재패널



Location	181, Gwanhun-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396.40m ²
Bldg area	264.33m ²
Gross floor area	1,178.22m ²
Bldg coverage ratio	66.68%
Gross floor ratio	168.03%
Structure	R,C
Bldg. Scale	B2, F3



일본 건축사 구로가와 기쇼의 “서양에는 광장이 있고 동양에는 길
이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길은 광장과 대비되기 이전에 그
주위에 면들과 관계한다. 면을 다루어야 하는 도시의 과제에서 길에
집중되는 관심은 잘못된 정책과 계획을 낳기도 한다. ‘대학로’, ‘인사
동길’ 등의 정책과 계획이 그러했다.

‘인사동길’을 가능케 하는 힘은 그 길에 이어지는 수많은 작은 길
들과 면들에서 나온다. ‘인사동길’이 계속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은
그 면들의 힘, 지속적인 풍요로움에 달려있다. 한국공예문화관은 ‘인
사동길’에서 갈라져 들어간 작은 길 깊숙이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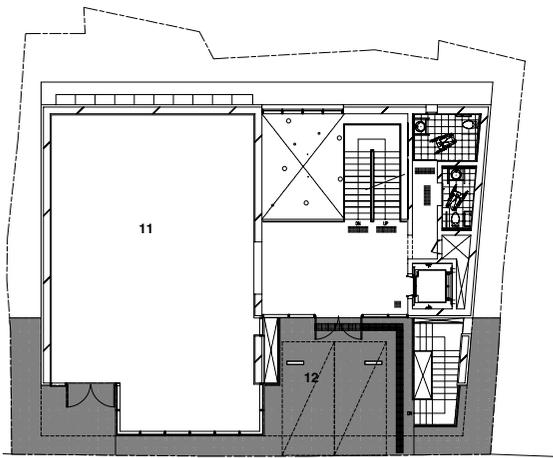
전통공예를 보존하고 새로운 공예를 북돋우고 또 상품화 시켜 나
가는 단체의 시설이다. 지명현상의 프로그램은 60%가 작게 나눌 수

있는 전시장, 30%가 사무실 그리고 10%가 전시 판매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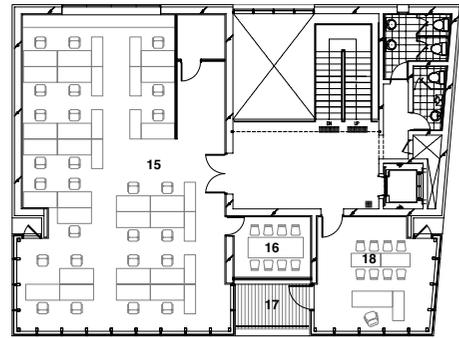
이런 경우 작은 시설이 ‘인사동길’이라는 도시와 호흡해야 하는 장
면은 시각적으로 매우 순간적이다. 길 입구에는 정진국이 설계한 전
벽돌의 갤러리가 단아하게 서 있다. 훌륭한 분절을 가지고 있으며 가
로를 따라 작은 가게들이 연이어 설정되어 있다.

그 흐름을 가로레벨의 전시판매장으로 받아주고 그 위와 아래에
작은 전시장들이 포진한다. 그리고 3층에 사무실이 시설의 전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동의 ‘면’ 속에서 자기만큼의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공예가 가진 상대적인 밝음, 감추어진 화려함이 언뜻 느
껴진다면 족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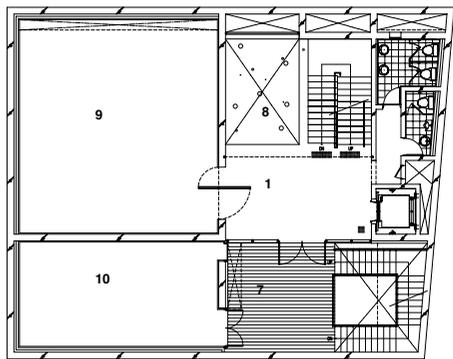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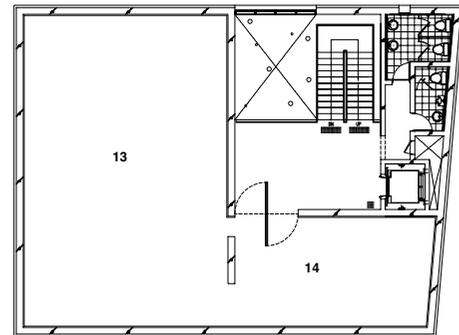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0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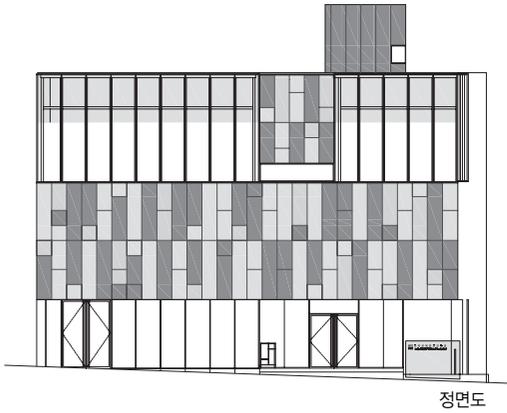
- 01. 홀
- 02. CO2 탱크실
- 03. 기계실
- 04. 전시관4
- 05. 창고
- 06. 자료실
- 07. 선반
- 08. 실내조경
- 09. 전시관3
- 10. 문화교실
- 11. 생활상품관
- 12. 주차장
- 13. 전시관1
- 14. 전시관2
- 15. 사무실
- 16. 회의실
- 17. 발코니
- 18. 원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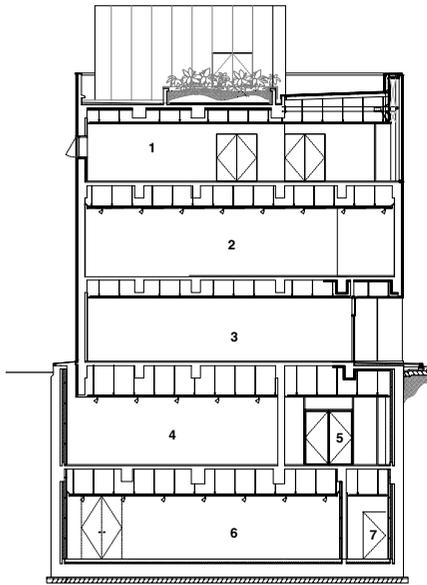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
|---|---|---|---|---|
| 1 | 2 | 3 | 4 | 5 |
|---|---|---|---|---|
- 1. 야경
 - 2. 계단실
 - 3. 지하층 홀
 - 4. 전시영 1
 - 5. 전시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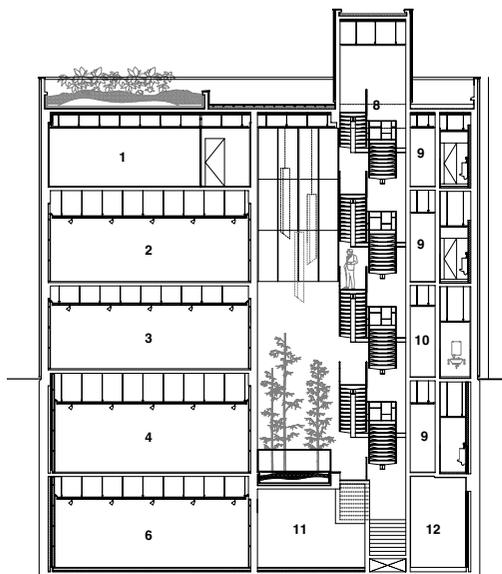


정면도



중단면도

- | | |
|-----------|-------------|
| 01. 사무실 | 07. 창고1 |
| 02. 전시관1 | 08. 계단탑 |
| 03. 생활상품관 | 09. 남자화장실 |
| 04. 전시관3 | 10. 장애인화장실 |
| 05. 문화교실 | 11. 기계실 |
| 06. 전시관4 | 12. CO2 탱크실 |



횡단면도

0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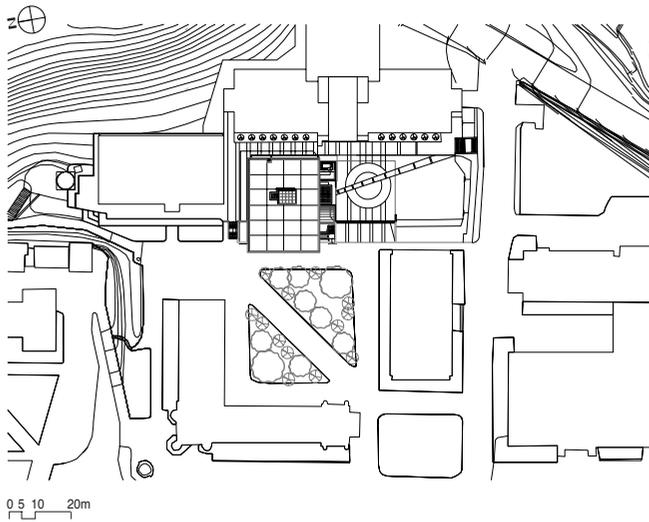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해송 법학도서관

Korea University HAE-SONG Law Library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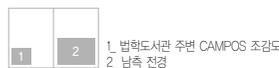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번지 외 30필지 고려대학교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교)
대지면적	640,377.00m ²
건축면적	717.09m ²
연면적	3,670.20m ²
건폐율	0.11%
용적률	0.27%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화강석, 무늬목, 카펫타일
외부마감	티타늄아연판, 화강석 버너마감, 컬러로이복층유리
설계담당	정민희, 정신애, 오동영, 김형일(감리)
구조설계	(주)동양구조 문일원
설비설계	(주)북성설계 오지현, 남철웅
전기설계	(주)대화기술사 최승환
인테리어설계	(주)이래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주)자드건설 변인근, 김형태
설계기간	2004.12 ~ 2005.11
공사기간	2006.02 ~ 2007.03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김용관)



Location	1-2, Anam-dong 5ga, Seongbuk-gu, Seoul, Korea
Site area	640,377 m ²
Bldg area	717,09 m ²
Gross floor area	3,670,20 m ²
Bldg coverage ratio	0.11%
Gross floor ratio	0.27%
Structure	R,C + S,C
Bldg. Scale	B2, F3



해송법학도서관은 고려대학교 본교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건립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내에는 석조건물과 화강석 외장 건물들이 대부분이며 최근에 건립된 100주년 기념관과 경영관도 석재마감 건물이다.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되어있는 본관과 구 중앙도서관은 교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서 법학도서관은 두 건물 후면에 인접해 있다. 문화재 관리청의 사적 분과 심의 대상인 법학도서관은 주변 건물들과 대비되는 파격적인 건물형태와 금속재 외장 때문에 설계 진행 중 고대 캠퍼스 내 건축양식의 정체성과 충돌을 빚었고, 건물 준공 시까지 학내 논쟁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설계된 법학도서관이 설계대로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대학의 발전 취지에 편승하여 법학도서관이 현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캠퍼스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법학도서관은 동질화된 학내의 건축물과 달리 낮은 형태의 건물이지만 순수하고 단순한 디테일(Detail)로 축조된 본관과 구 중앙도서관의 근대 건축양식과 디자인적 융합을 추구하였다. 도서관 전 후면에 있는 기존 건물들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열람실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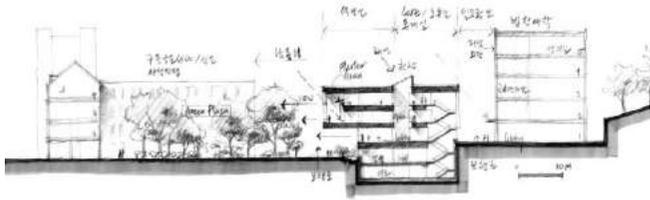
강의실을 최대한 배치하여 건물의 매스를 최소화하였고, 장식이 없는 단순한 패턴(Pattern)에 화강석 색채와 유사한 회색 톤의 티타늄 아연판을 주 외장재로 사용하였다. 티타늄 아연판의 자연스러운 울음현상은 정제된 판석 마감보다는 거친 마감의 화강석과 조화를 이룬다. 티타늄 아연판 외장재 사용으로 8.7m 캔틸레버의 고정하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남쪽 지하 1층 전면과 지상 1층 대부분을 투명유리로 처리하여 건물주변을 투영하고 동시에 반사하는 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건물의 높이는 남쪽 정원의 울창한 나무들의 높이를 고려하였는데, 이 결과 2층과 3층의 돌출된 열람실내로 주변의 자연요소를 끌어들이게 되었다. 2개층 높이의 캔틸레버를 남쪽으로 돌출시키고 이 부분에 열람실을 배치하여 법학대학의 전면을 최대한 개방시켰고, 캔틸레버 하부의 조경광장과 보행공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건물 중심은 3층까지 뚫려있어 층을 오르내릴 때 변화하는 공간이 시야로 들어오며 같은 위치의 천장은 건물 내부로 자연광을 쏟아낸다. 내부 콘크리트 구조벽과 2층, 3층의 돌출부를 지지하는 철골사재는 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다. 열람실 공간배치는 학습공간으로서의 독서실 기능보다 사색과 휴식 공간 배치가 중요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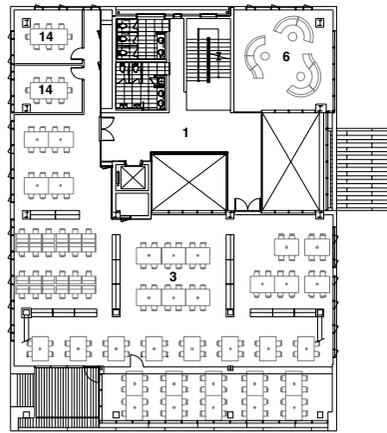


개방적이고 밝은 라운지 형태의 열람실(휴게실도 열람실이다)은 빠르게 변하는 신세대의 학습방식과 학습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미 서적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습득율이 높아지고 있고 폐쇄된 공간보다는 개방된, 자유로운 분위기의 열람실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 이용자들의 좌석점유 행태를 보면 통상 법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개방형 열람 테이블 이용자가 부쩍 늘었으며, 특히 2층과 3층에 있는 소규모 열람실들이 가장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열람석 이용변화의 실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2층의 전면장 부근과 3층 오픈(Open)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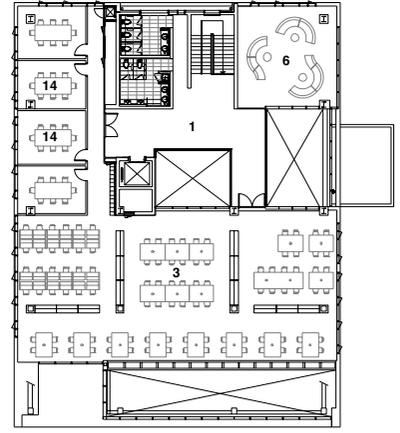
간의 실내조경 가까이에 있는 개방형 열람 테이블에는 항상 이용자들이 많다. 1층 휴식공간과 정기간행물실은 완전히 개방된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열람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마련되었다. 지하 1층 선큰 정원은 건물 1층 입구에서도 내려다보이며 지상과 지하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시켜준다. 지상 2층의 발코니는 본관과 구 중앙도서관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캠퍼스 내의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운 공간 형태로 건립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설계 시 예상 못한 이용행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모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관 개관 이후 건물의 형태나 외장재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없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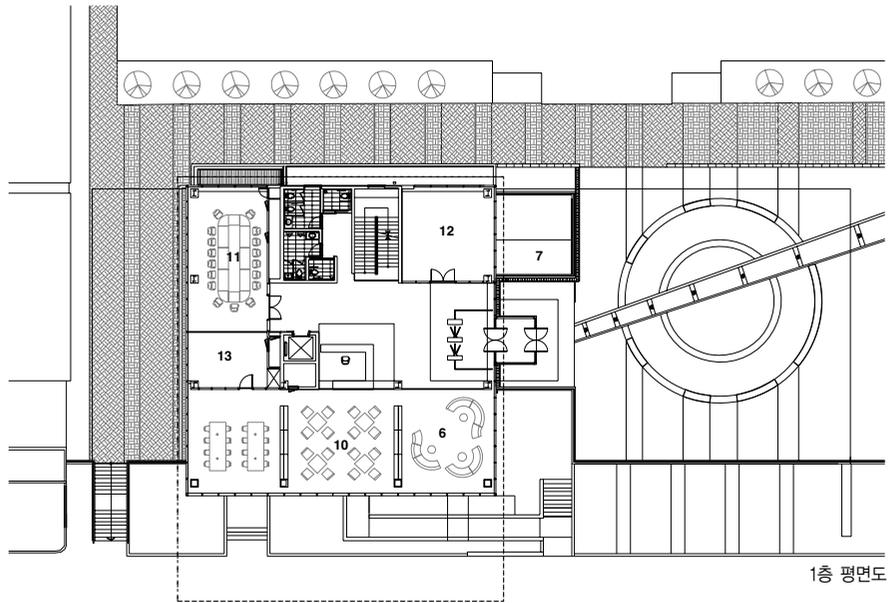
- 01_ 로비
- 02_ Case Study Room
- 03_ 일반 열람실
- 04_ 정보검색실
- 05_ 기계실
- 06_ 휴게공간
- 07_ 선큰
- 08_ 소방펌프실
- 09_ 전기실
- 10_ 정기간행물
- 11_ 세미나실
- 12_ 전시실
- 13_ 사무실
- 14_ Study Room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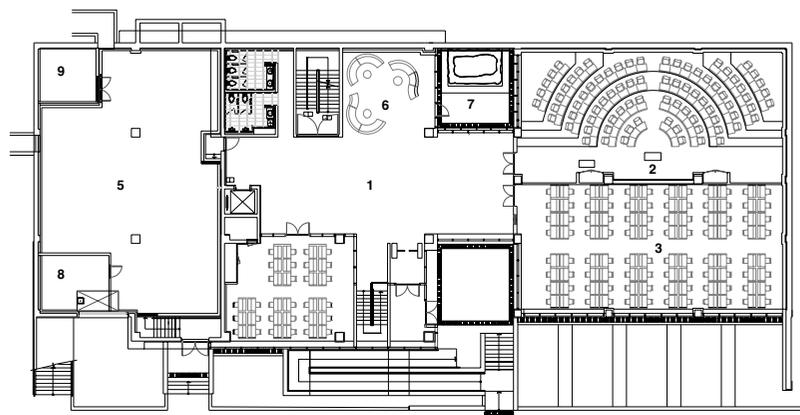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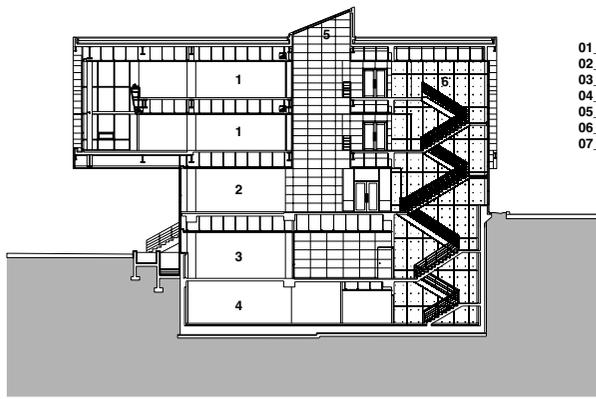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1_ 진입광장
- 2_ 모형사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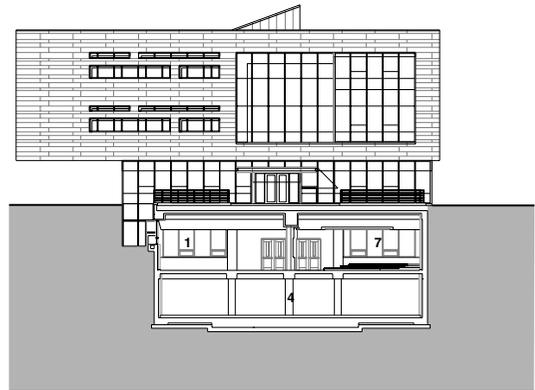
0 1 3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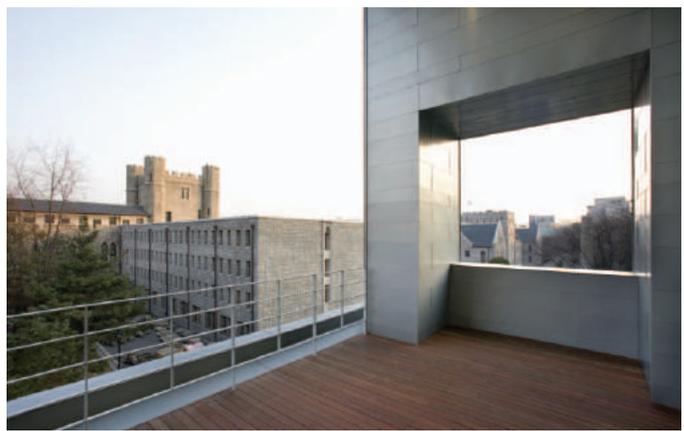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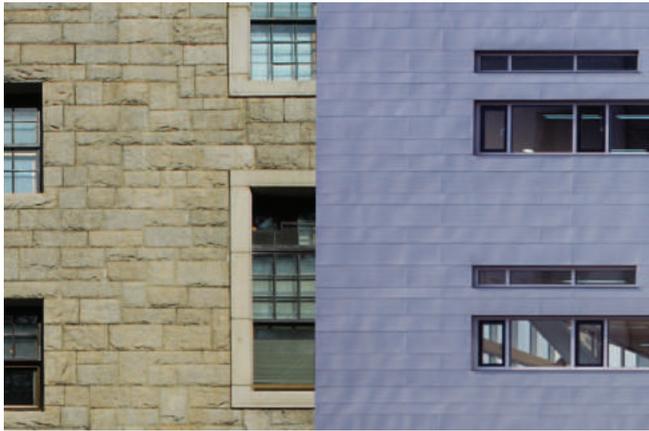
- 01_ 일반 열람실
- 02_ 정기간행물실
- 03_ 정보검색실
- 04_ 개가 열람실
- 05_ 천창
- 06_ 계단실
- 07_ Case Study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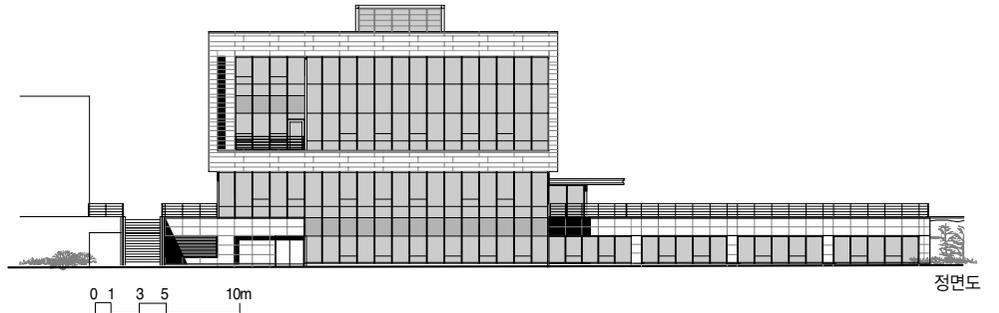
0.1 3 5 10m

중단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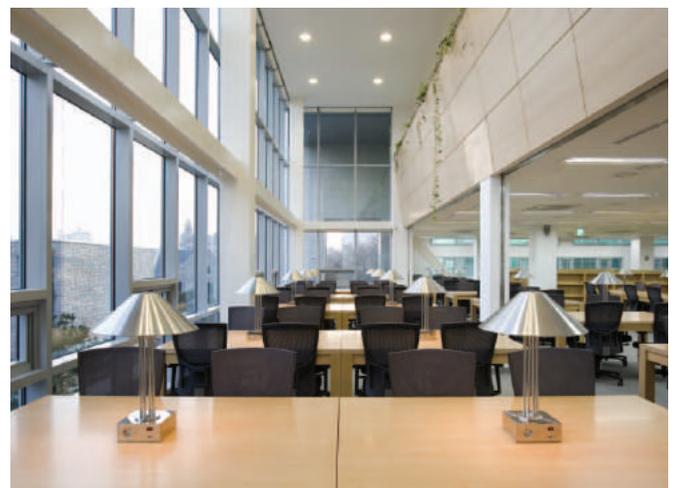




정면도

1	2	4	5
3	6	7	8

- 1. 본관동/법학 도서관 입면 Detail
- 2. 2층 열람실 발코니
- 3. 남측전경
- 4. 천장
- 5. 1층 로비
- 6. 로비 Atrium
- 7. 지하층 선문
- 8. 2층 열람실



서울디지털 드림타운

Seoul Digital Dream Town

● 건축개요



〈오피스텔〉

대지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4-4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824.00㎡
 건축면적 2,602.24㎡
 연면적 23,616.37㎡
 건폐율 53.94%
 용적률 339.48%
 규모 지하층, 지상1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운동장〉

대지위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18번지 외 6필지
 용도 체육시설
 대지면적 17,043㎡
 건축면적 192.18㎡
 연면적 495.25㎡
 건폐율 1.13%
 용적률 1.92%
 규모 지하층, 지상2층
 높이 본부석 : 4.95m, 관리동 : 11.85m
 설계담당 김동춘, 조재룡(신원건축)



Location 494-4,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Site area 4,824㎡
 Bldg area 2,602.24㎡
 Gross floor area 23,616.37㎡
 Bldg coverage ratio 53.94%
 Gross floor ratio 339.48%
 Structure R,C
 Bldg. Scale B1, F15



이 프로젝트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신 주거문화 창달과 체력증진 그리고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노후화된 초원아파트와 운동장을 삶의 질 향상 등 신세대 산업인력중심의 주거시설 및 운동시설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오피스텔은 전면공지의 활성화 및 주보행동선, 주차동선, 운동장과의 연계 등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대지 남북축을 따라 2개의 오피스텔동을 배치한 중정형으로서 그 연결부에는 코아를 두어 동선연결 및 건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각 기능별 영역에 따른 주거, 주차, 상가 등 수직적인 분리에 따른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중앙에 중정을 두어 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를 도입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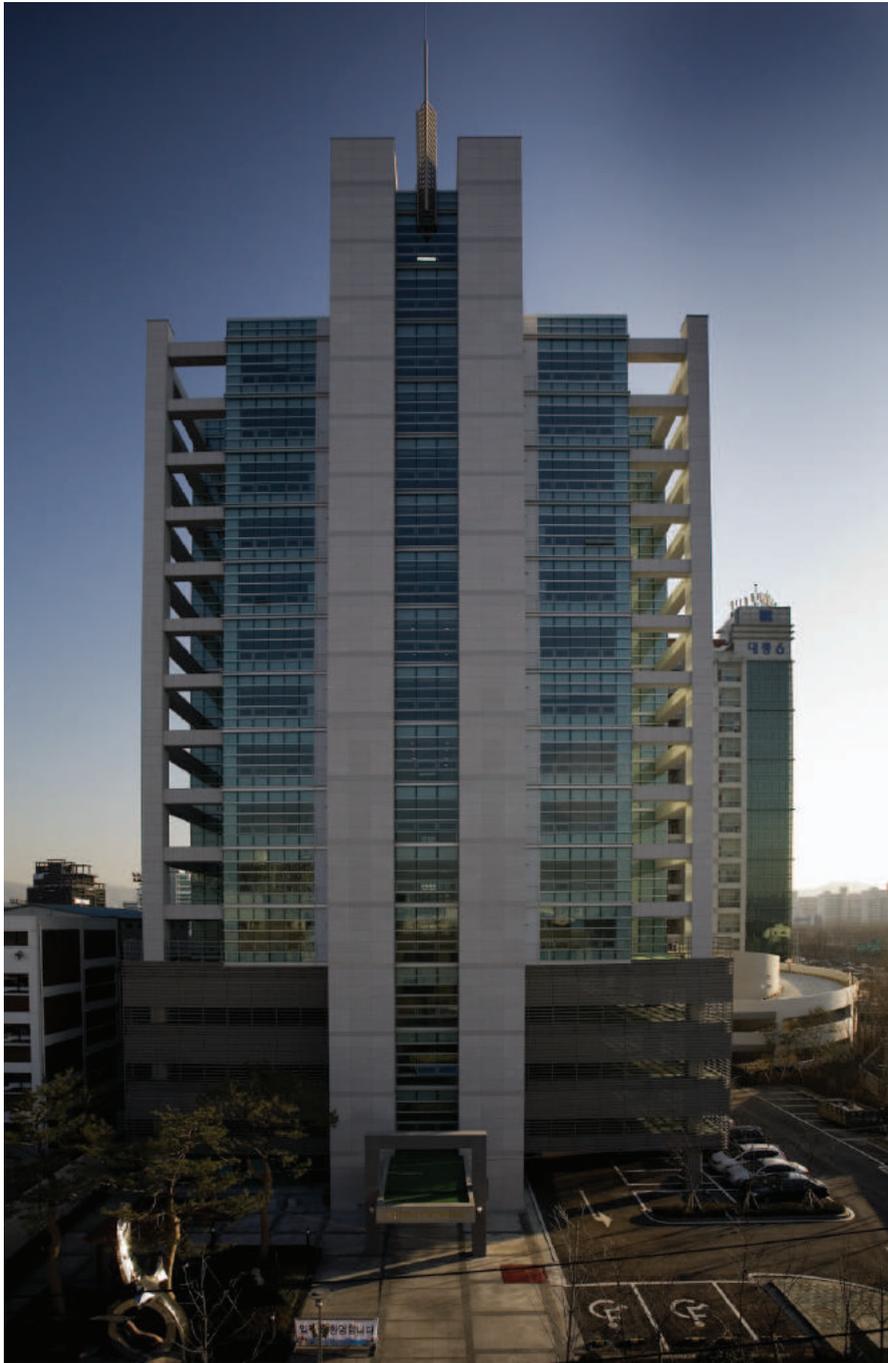
성하였다.

또한 지하층을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함과 아울러 대체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입면적 요소로 부각시킴으로써 장래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였다.

운동장은 종합체육시설로서의 이미지를 고취하여 공원화한 휴게·녹지공간 조성,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분리로 인한 보차분리를 하였으며, 오피스텔과 연계한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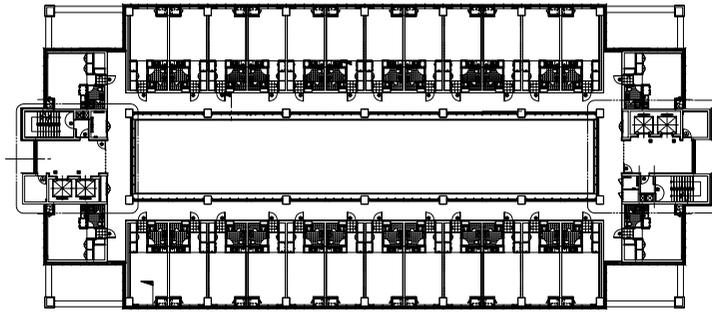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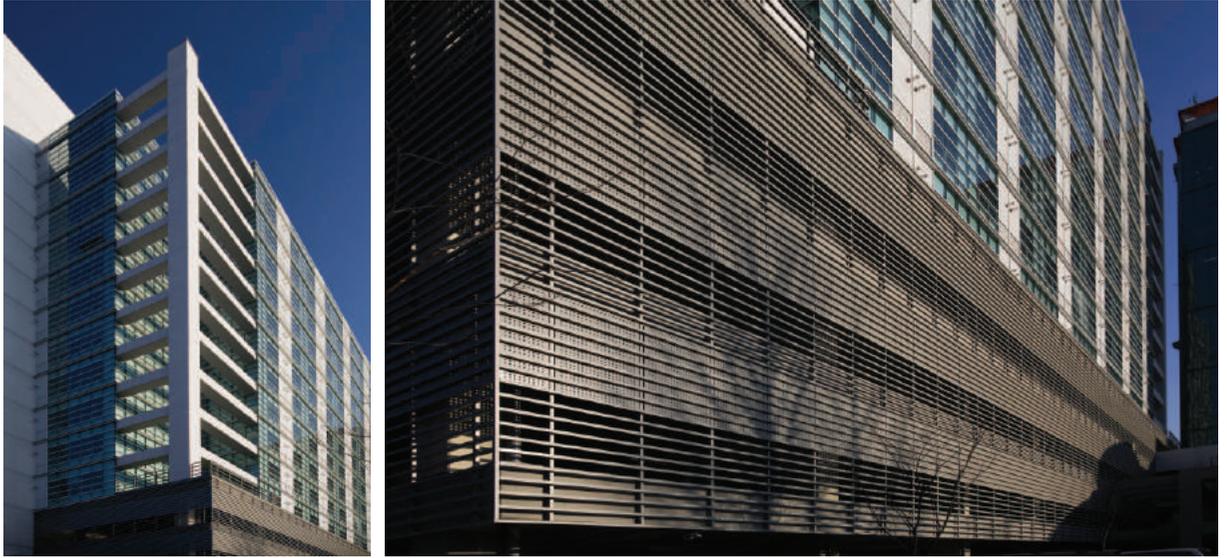
서울디지털 드림타운과 운동장의 새로운 단장이 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에게 새롭고 활기찬 삶을 함께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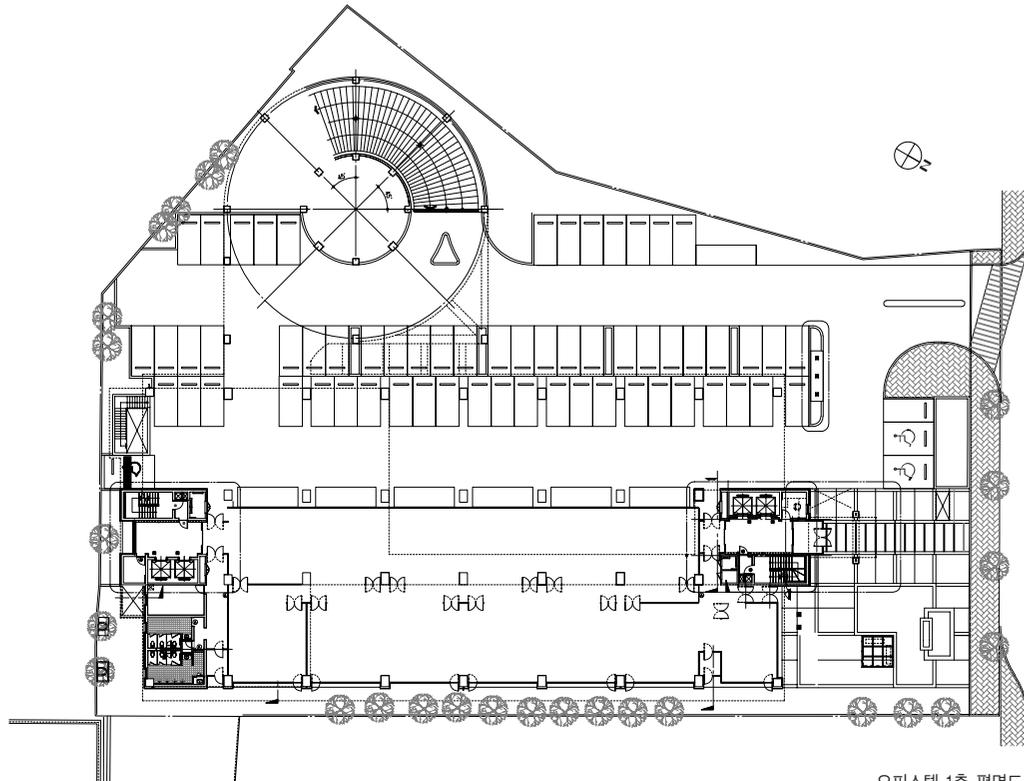


오피스텔 배면도

- | | | |
|---|---|---|
| 1 | 2 | 3 |
|---|---|---|
- 1. 남서측 전경
 - 2. 오피스텔 상부디테일
 - 3. 오피스텔 하부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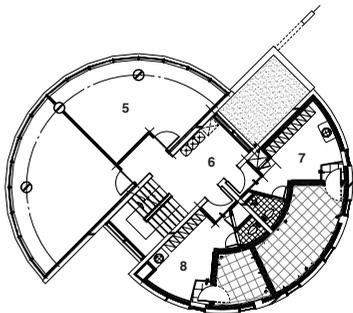
오피스텔 기준층(9~15층) 평면도



오피스텔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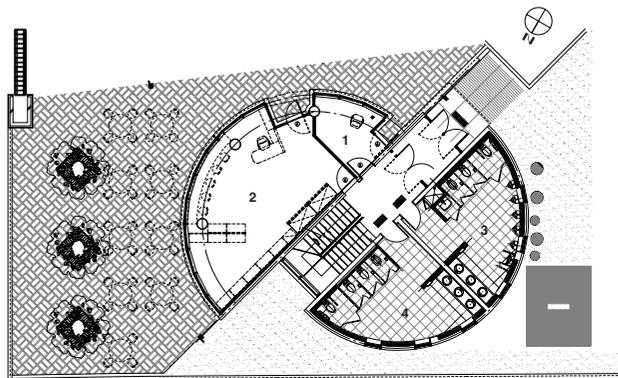


- | | | |
|---|---|---|
| 1 | 2 | 3 |
| | | 4 |
- 1. 관리동 전경
 - 2. 본부석
 - 3. 본부석 전경
 - 4. 오피스텔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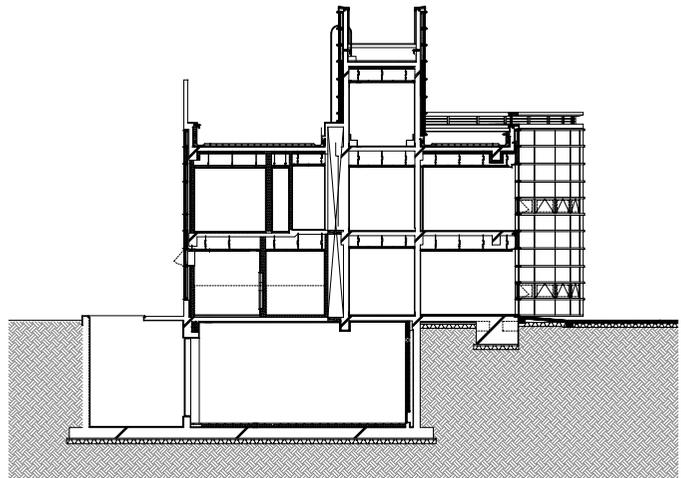


관리동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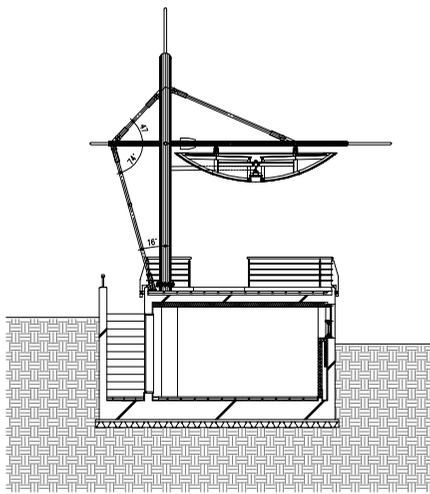
- 01. 경비실
- 02. 매점
- 03. 남자화장실
- 04. 여자화장실
- 05. 관리사무실
- 06. 휴게실
- 07. 남자탈의실
- 08. 여자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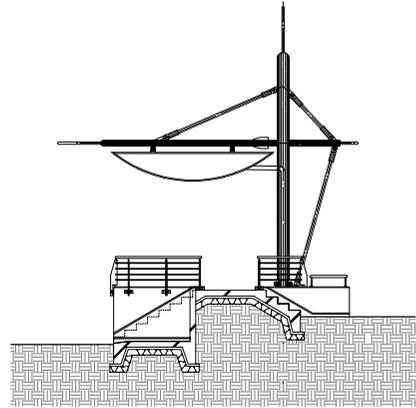
관리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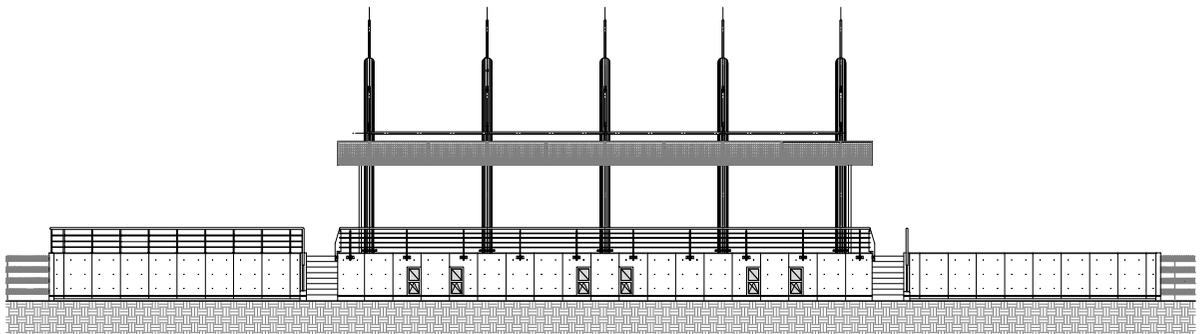
관리동 단면도



본부석 종단면도



본부석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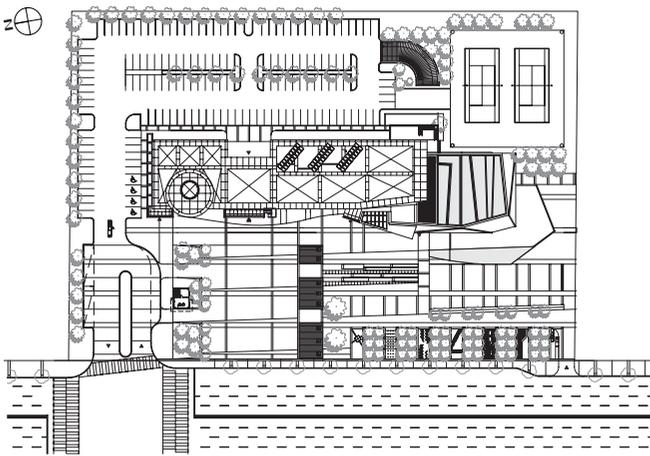
본부석 정면도

웅진군청사

Ongjin Province Office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7-608번지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 대지면적 17,600m²
- 건축면적 2,696.54m²
- 연면적 14,983.55m²
- 건폐율 15.32%
- 용적률 67.01%
- 규모 B1, F7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THK24복층유리, THK24화강석, 알루미늄시트, 압출성형시멘트패널
- 설계담당 노광현, 양원철, 황정범, 허봉선, 남무식(무영)/ 김미정, 안희석, 김정중, 김성원, 이현지, 권경렬(무아)
- 구조 (주)동양구조
- 설비 (주)삼신설계
- 전기 제일설계(주)
- 시공사 (주)태영건설
- 건축주 웅진구청



- Location 627-608, Yonghyeon-dong, Nam-gu, Incheon, orea
- Site area 17,600m²
- Bldg area 2,696,54m²
- Gross floor area 14,983,55m²
- Bldg coverage ratio 15,32%
- Gross floor ratio 67,01%
- Structure R,C
- Bldg. Scale B1, F7



여름아 웃을 벗어라

지금 그 섬엔 참나리꽃이 피어있을 것이다.
동글레 꽃이 피어있을 것이다.
마을 미루나무엔
지난 겨울 날리다가 걸린 연살들이
돋는 새잎에 가려지고 있을 것이다.
뽕뽕 감자꽃이
백옥같은 말썽들을 피워물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동글레 꽃은 피어서
환하지 않아도 될 슬픔 같은 것까지도 환한
면마을

-장석남

섬과 바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엮는 마음 _ BLUE NETWORK

웅진군청사는 웅진반도(북)와 인천광역시(남) 사이의 7개의 섬들을 상징하는 행정청사, 의회, 보건소, 대강당 그리고 진입광장, 휴게마당, 전시공간을 하나의 대지에 배치하여 기능간 업무간 네트워크

이 가능한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를 블루 네트워크라 명명하였다.

바다를 향한 군민의 마음을 담은 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더불어 사는 한마당, 풍요로운 생활 터전, 그리고 블루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공존이 이곳에 있다.

의회와 행정청사 그리고 대강당을 중심으로 각각 7개의 섬과 2개의 본토와 그 사이를 잇는 마음을 상징하는 웅진군 청사로서 건강한 바다와 새로운 관광문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웅진군민의 마음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계획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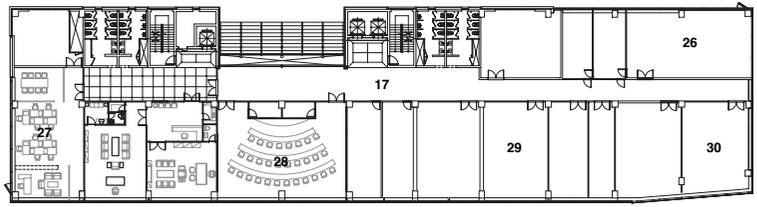
담고싶은 것들(纜), 머물고싶은 공간(津)에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려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민원실 그리고 행정청사, 대강당, 오션윈도우(Ocean Window), 스카이라운지, 온실, 민원관련 청사와 행정/업무관련청사 등으로 웅진군청사는 통합되었다.

웅진군청사는 7개의 섬과 웅진반도를 상징화하여 청사가 주는 단정한 이미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바다와 섬 그리고 해안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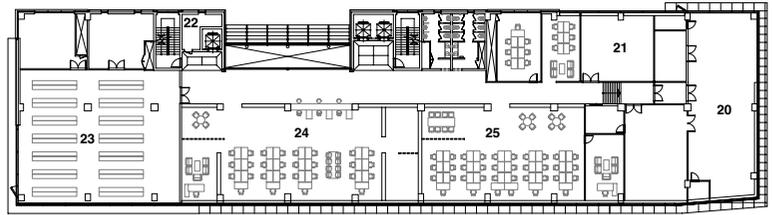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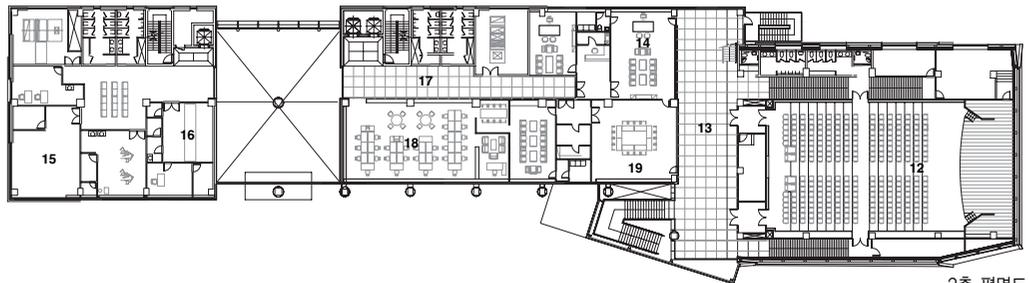
- 01. 선큰
- 02. 주차램프
- 03. 지하주차장
- 04. 물탱크실
- 05. 기계실
- 06. 정화조
- 07. 중앙감시실/방재센터
- 08. 전기실
- 09. 재난상황실
- 10. 탁구장
- 11. 헬스장
- 12. 대강당
- 13. 홀
- 14. 군수실
- 15. 임상병리실
- 16. 방사선실
- 17. 복도
- 18. 주민자치과
- 19. 사회의실
- 20. 통신, 전산장비실
- 21. 전산교육장
- 22. 통신실
- 23. 자료실/문서고
- 24. 재무과
- 25. 기획감사실
- 26. 종합검정실
- 27. 의회사무실
- 28. 중회의실
- 29. 기술보급과
- 30. 생활개선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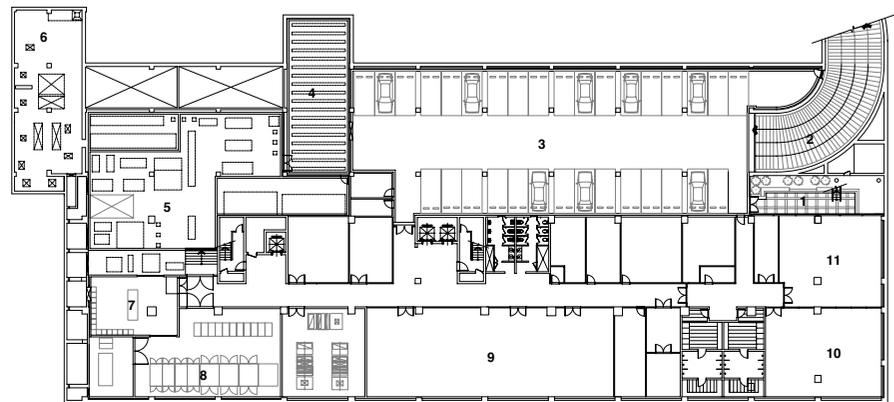
6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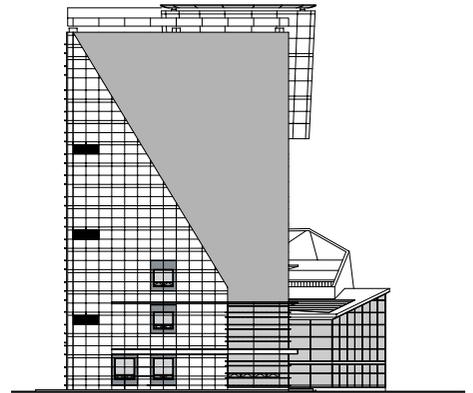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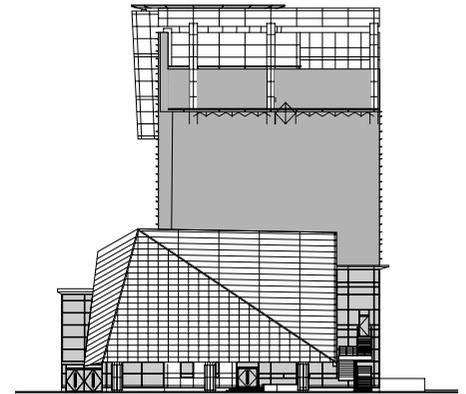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 1. 서측 전경
- 2. 행사마당에서 바라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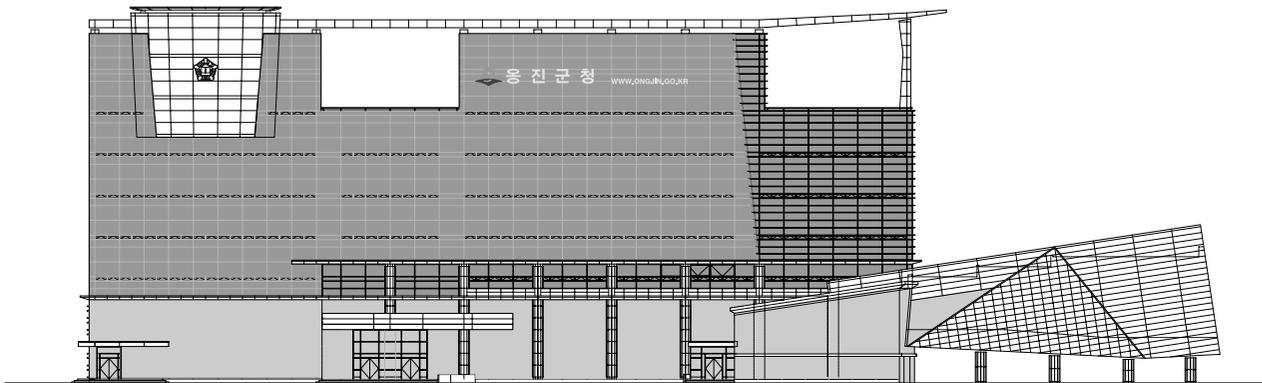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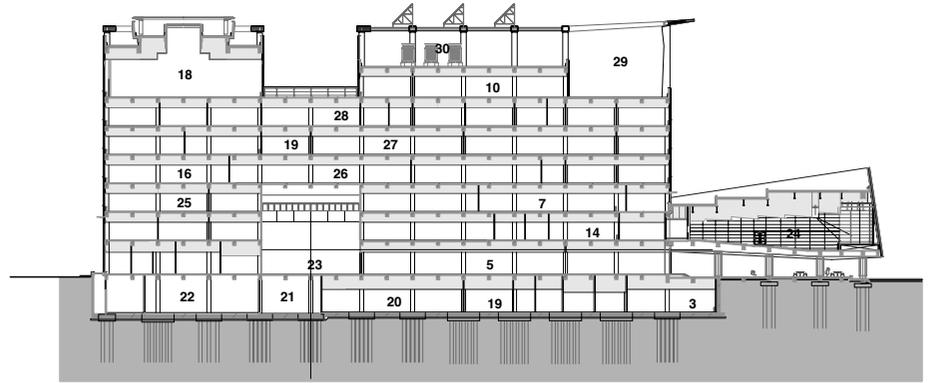
우측면도

- | | | | |
|---|---|----------------|-------------|
| 1 | 2 | 1. 계단실 | 5. 옥상정원 |
| 3 | 4 | 2. 메인로비/민원실 | 6. 의회 본 회의장 |
| | | 3. 행정청사 후면 | |
| | | 4. 대강당(요심관) 정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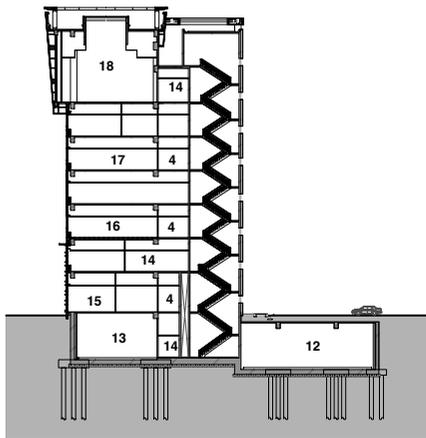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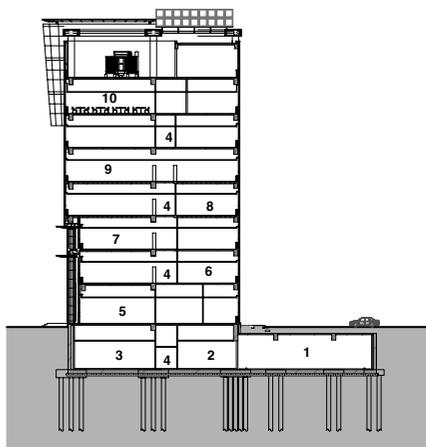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헬스장
- 03. 탁구장
- 04. 복도
- 05. 민원실
- 06. 집견실
- 07. 환경녹지과
- 08. 기자실
- 09. 산업경제과
- 10. 식당
- 11. 물탱크실
- 12. 기계실
- 13. 전기실
- 14. 홀
- 15. 물리치료실
- 16. 자료실/문서고
- 17. 회의실
- 18. 본회의장
- 19. 재난상황실
- 20. 총무상황실
- 21. 공조실
- 22. 전기실
- 23. 로비
- 24. 휴식관
- 25. 보강소 사무실
- 26. 재무과
- 27. 건설과
- 28. 중회의실
- 29. 옥상정원
- 30. 냉각탑



횡단면도



종단면도 1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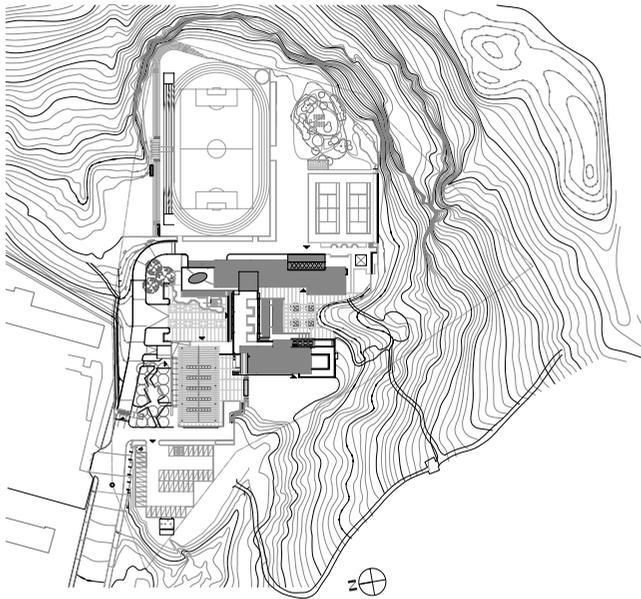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 19-1번지 일원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용지
-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등학교)
- 대지면적 26,846m²
- 건축면적 2,671m²
- 연면적 8,497m²
- 건폐율 9.95%
- 용적률 23.74%
- 규모 교사동 : 지하층, 지상 4층
체육관동 : 지하층, 지상 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체육관)
-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 외부마감 점토벽돌, 알루미늄쉬트, 티타늄아연판, 노출콘크리트
- 설계담당 이웅민, 성호진
- 구조설계 오성구조
- 설비설계 승창ENC
- 전기설계 삼우전기
- 시공사 일화종합건설



- Location San 19-1, Hyoseong-dong, Gyeongin-gu, Incheon, Korea
- Site area 26,846m²
- Bldg area 2,671m²
- Gross floor area 8,497m²
- Bldg coverage ratio 9.95%
- Gross floor ratio 23.74%
- Structure R,C + S,C
- Bldg. Scale B1, F4



경인교육대학교 캠퍼스의 외곽에 위치한 부설초등학교는 계양산 자락이라는 산세, 대지 모양, 레벨 등 여러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땅 모양은 이곳이 과거 채석장였음을 나타내듯 불규칙한 선들로 이루어진 삼각형 형태이며 대지레벨은 남쪽과 북쪽이 25m정도 차이가 나는 경사지이다.

나지막한 경사로를 따라 오르면, 계양산 자락의 분지-채석장으로 인한 인위적 평지와 병풍처럼 펼쳐진 계양산 그리고 레벨차가 주요 관심사였다.

24학급의 교사동, 수영장 및 식당을 포함한 체육관동, 그리고 온실과 사육장의 옥외시설이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자리잡게 된다.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Activity & Eco School로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 스쿨을 형성함으로써, 실사용자인 학생과 주변인들에게 새로운 장소성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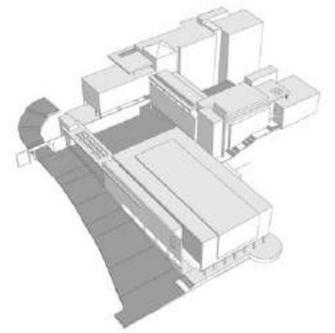
대학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과 지역개방시설 그리고 수준높은 초등 교육시설이 요구되었다.

일반적인 학교 배치와는 다른 운동장의 후면배치와 주변 자연의 활용으로 대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만족할수 있었다.

첫째, 운동장의 후면배치는 기존 암석으로 이루어진 분지를 운동장으로 배치하여 공사비 절감과, 각기 다른 레벨에서의 옥외 마당이

계획되었다. 또한 고지대로 인한 교사동의 양호한 일조와 계양산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폐쇄적인 느낌보다는 열린학교로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둘째, 주변 자연의 활용은 교사동 사이의 안마당에 산자락을 끌어들이고, 기존 능선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용하여 생태 연못화 함으로서 또 하나의 생태학습장이 되었다. 셋째, 3단계의 레벨활용은, 진입부의 낮은 대지에 주차장과 체육관동(수영장)을 배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중간 레벨에 저학년동과 계단식 시청각실 그리고 식당을 행사마당 및 저학년 놀이마당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또 운동장 레벨에 고학년동과 체육관을 데크로 연결하여 세 레벨에서 각기 그라운드와 접하는 학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체육관하부의 수영장과 진입마당을 끼고 살며시 오르는 진입로는 학교의 중심인 행사마당과 만나게 된다. 교사동과 식당 그리고 저학년 놀이 마당이 연계된 행사마당에서의 전경은 벽천과 수공간 그리고 대지레벨 차로 인한 자연스런 필로티 진입, 부유된 듯 보이는 수평연결매스, 그너머의 안마당과 자연으로 인해 한쪽의



산수화가 된다. 흡사 자연에 맞춰진 학교라고 할수 있다.

상부를 잇는 연결매스는 특별교실로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평적인 느낌의 티타늄아연판을 벽체에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같이 인지할수 있게 하였다.

체육관동은 수영장과 식당 그리고 체육관을 층별로 배치하였으며, 상부 트러스의 노출로 인한 구조미를, 천창 및 낮은 측창은 체육관에서의 은은한 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를 향해 출항하는 듯한 사각의 체육관 매스와 정박되어 있는 교사동의 매스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징화하고 있다. 경사지붕으로 차용함으로써 계양산에서의 시각적 흐름을 유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다른 세동의 건물을 동일한 재료의 사용과 창호 형태의 반복 그리고 테크의 연결로 통일감을 기하였다.

각각의 영역이 갖는 특성을 대지에 부여하고 그것이 건물에 반영

되며 외부의 자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상호 오버랩되는 매스와 지형의 순응을 통해 채움보다는 비움으로, 그너머의 자연이 투사되고 교차되어 공간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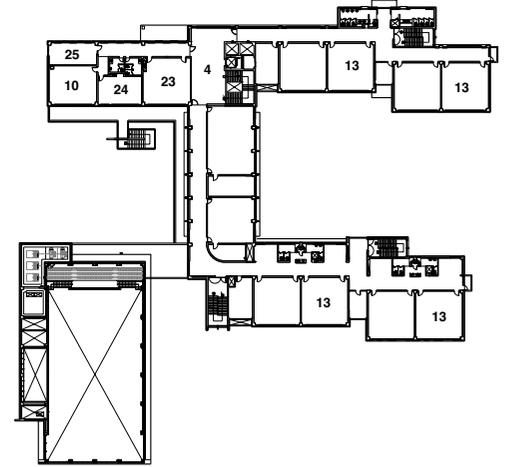
외부 중정에 기존 능선의 유입과 스탠드형의 옥외 학습장을 통해 실사용자인 학생들의 꿈이 어울어져 상호 소통시켜 간다면 유년기 인격형성에 작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어느덧 텅빈 채석장의 암반과 무성한 나뭇가지속에 보이던 나대지가 건물이 자리잡고 학생이 들어서면서 주변환경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지도 1년이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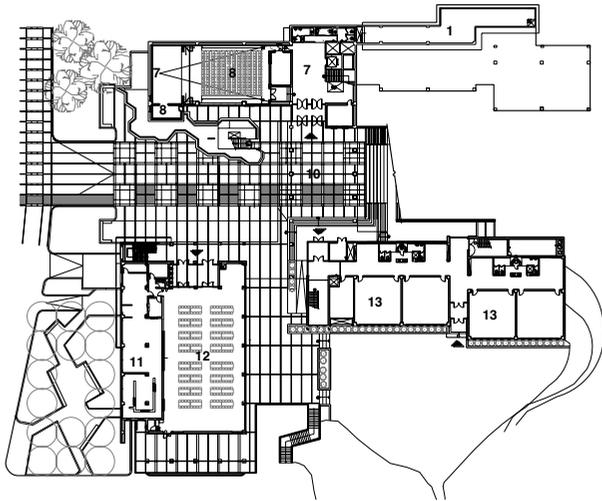
청색의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웃음이 이 안에서 꿈의 터전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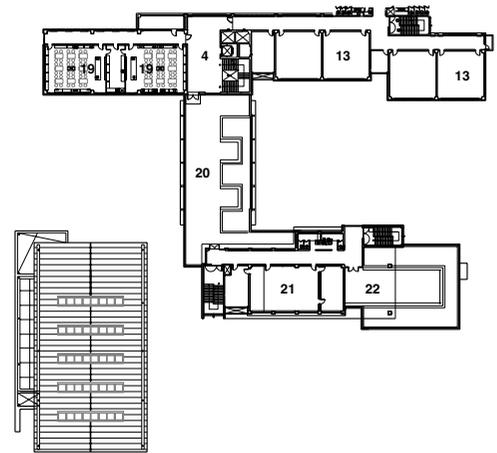
- 01. PIT
- 02. 기계실
- 03. 전기실
- 04. Hall
- 05. 수영장
- 06. 오솔공원
- 07. 로비
- 08. 시청각실
- 09. 옥외계단
- 10. 필로티하부
- 11. 주방실
- 12. 식당(256석)
- 13. 교실
- 14. 도서실
- 15. 양호실
- 16. 진입데크
- 17. 연결마당
- 18. 체육관
- 19. 과학실2
- 20. 옥상정원
- 21. 음악실
- 22. 야외학습장
- 23. 교무실
- 24. 행정실
- 25. 교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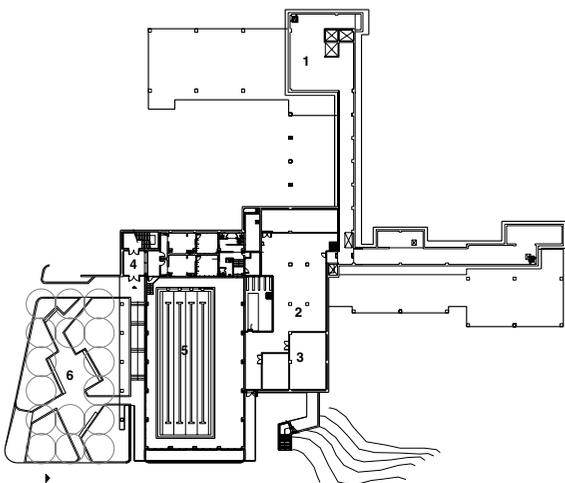
교사동 2층/체육관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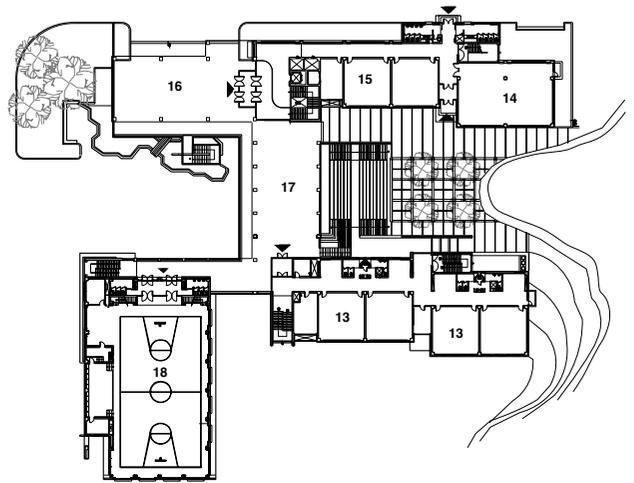
교사동 지하 1층/체육관동 1층 평면도



교사동 2층/체육관동 천창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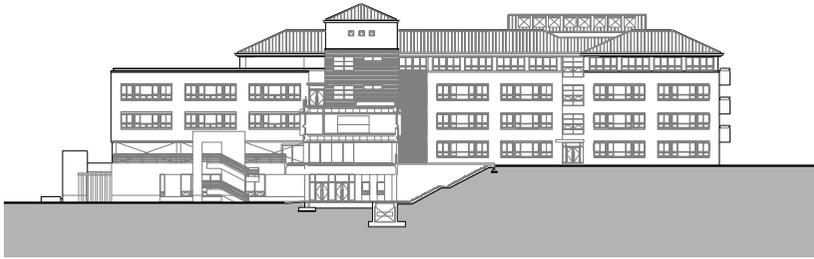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교사동1층/체육관동 2층 평면도

1	2	5	6
3	4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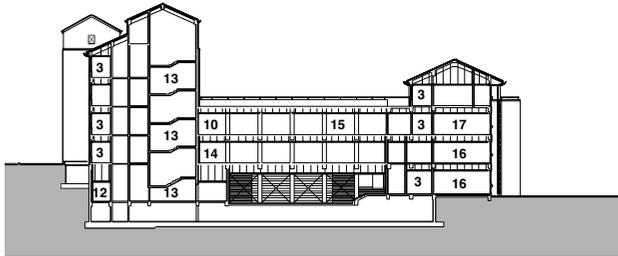
1. 잔입마당의 연못과 외부계단
2. 잔입마당 전경
3. 지하년동과 고학년동 사이의 안마당
4. 식당데크에서 본 지하년동
5. 주차장에서 본 체육관동(수영장, 식당, 강당)
6. 잔입마당에서 본 특별교실동
7. 체육관 내부의 구조채광시스템
8. 특별교실동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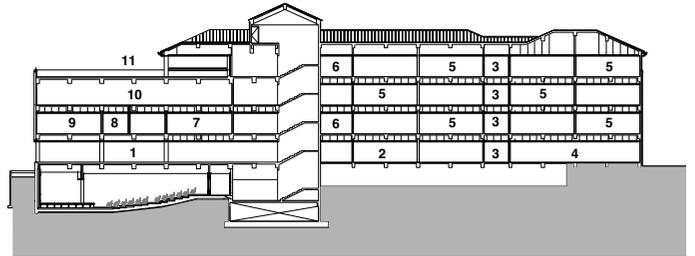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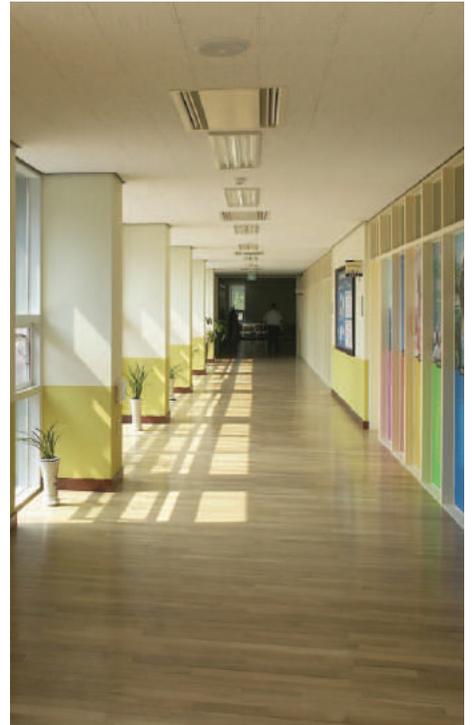
- | | | |
|-----------|----------|-----------|
| 01_ 진입데크 | 07_ 교무실 | 13_ 계단실 |
| 02_ 양호실 | 08_ 행정실 | 14_ 연결마당 |
| 03_ 복도 | 09_ 교장실 | 15_ 어학실 |
| 04_ 도서실 | 10_ 과학실 | 16_ 학습자료실 |
| 05_ 일반교실 | 11_ 옥상정원 | 17_ 학년연구실 |
| 06_ 학년연구실 | 12_ 화장실 | |



단면도 1



단면도 2



‘유비쿼터스’ - (주)애즈랜드 파주 신사옥 · 인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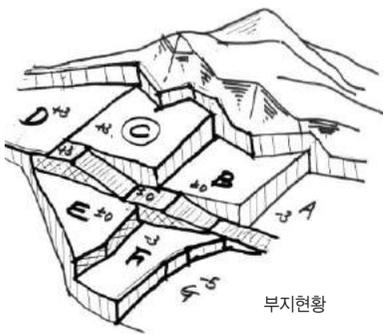
‘Ubiquitous’ - ADSLAND’ S new office building & printing factory in PAJU

프로젝트와의 만남

우리나라에서 ‘인쇄’ 하면 서울 중구의 을지로, 충무로를 생각하게 된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인쇄, 즉 활자를 만들던 곳이다. 충무로에 있는 극동빌딩 앞을 지나다 보면 지금도 주자소(왕실직속의 활자 주조기관) 터라는 비석을 볼 수 있다. 즉, 활자의 발상지였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쇄업은 도심산업이라고 한다. 공공기관과 사무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원고를 받고 활자를 만들고 인쇄를 해서 납품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납품처와 거리가 멀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 중구 을지로, 충무로



지역은 왕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인쇄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600여 년 동안 인쇄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크고 작은 인쇄업체 4천여 개가 밀집해있는 중구 지역이 21세기에 들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사실 중구 지역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교통난이 심각하다. 또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건물임대료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인쇄업체들이 1990년 후반부터 하나둘씩 서울 외곽, 특히 파주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출판단지가 조성되고 인쇄단지가 만들어졌으며 개별업체별로 이전을 추진하는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200여 업체가 이주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300여 업체 이상이 이주할 것으로 인쇄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서울과 가깝고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애즈랜드 또한 중구 을지로 지역에 위치하면서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문 인쇄업체로 성장하였다. 3개의 공장과 디자인실, 출고실 등을 갖춘, 인쇄업체로는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였으나 지역 특성상 공장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가지



(주)애즈랜드 파주신사옥 인쇄공장 전경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쇄는 부서 간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Ubiquitous System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에즈랜드는 시설과 인력을 파주 신사옥으로의 통합·확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Project를 필자가 맡게 되었다. 최근 수년간의 이 지역 지류회사와 출판·인쇄회사 설계 경험이 그 배경이었다.

디자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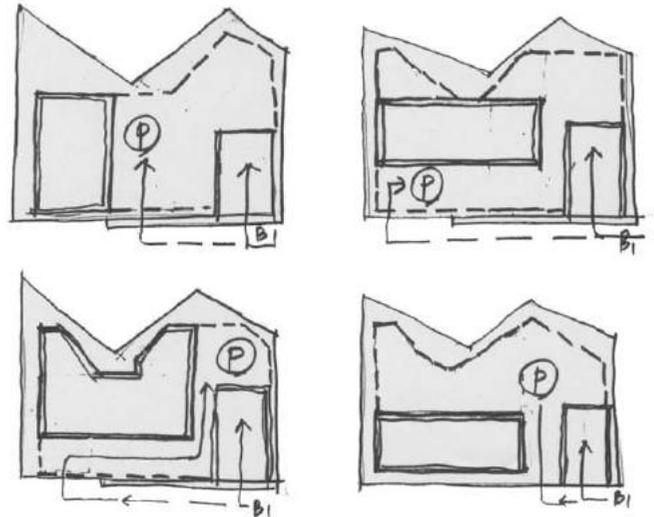
인쇄업체들의 도심지 이탈·서울 외곽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이유는 통신의 발전이다. 지금은 인쇄원고를 직접 들고 인쇄사에 가지 않고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인쇄사에 보내기만 하면 인쇄사에서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 준다. 따라서 임대료가 비싸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서울 중구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쇄업은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치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야 한다. 한마디로 공장이 넓을수록 좋다. 그래서 서울도심보다 지가가 훨씬 저렴한 지역이 필요하게 된다.

인쇄는 생산단계에서 유성인크 외에 오프셋인쇄 원리상 물과 휘발성물질인 유기용제(알코올)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환기문제와 인쇄기(에어컴프레사)에서 발생하는 열, 소음 등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처는 기계적인 방안 외에도 기본적으로 건축계획상 소요 천정과 확보, 자연통풍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난이 심해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주)에즈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무업무까지 자동화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곳이라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인쇄의 상징인 4원색을 표현하기 어렵다. 수주(주문접수)-기획-생산-출고-납품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 공정을 갖춘 원 스톱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물 흐르듯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였다.



배치계획

계획부지 - 고품질 인쇄를 위한 인쇄공장의 지하층 설치 방안

자유로에서 파주시청 방향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한 교하읍 오도리 공업단지는 원래 임야인 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조성되었고, 단지 내 계획부지는 남측 도로와 인접한 동측 부지보다는 3m 높고 부지 내 북측 면에는 높이 4m의 콘크리트 옹벽과 잔존하는 녹지가 있으며, 남측도로는 서측에서 동측으로 하향 구배되어 있는 부지이다.

계획부지가 단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반고를 보이기 때문에, 단지 외부의 진입도로 멀리서도 가장 먼저 인지되는 위치이다.

계획부지는 정남향의 남사면 부지여서 일조량이 많다는 점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낮은 건폐율·용적률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인쇄공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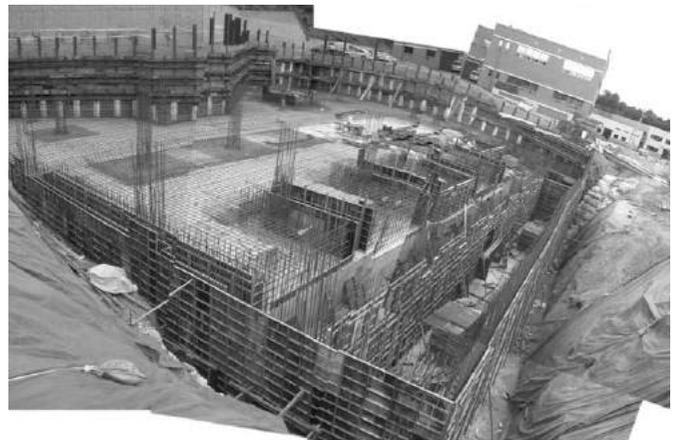
설치된 지하층은 계절별 기온변화에도 변화가 적은 양질(향온, 향습)의 실내조건을 만들 수 있으라고 판단하였고 그를 통해 인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공사진행과정1



공사진행과정2



공사진행과정3

분산되어 있는 기존시설의 현장조사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완공 후 이전할 (주)에즈랜드의 기존 시설·인쇄용 제반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시설과 기계 배치를 실측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신성상가 2층에 디자인실, 주문접수 통신팀, 연구소가 위치했고 1층에는 출고실이 있었다. 도로 건너편 3층 규모의 제2공장엔 UV인쇄기, POST-IT기, 출력기가 있었고, 30m 떨어진 제3공장 1층엔 인쇄공장과 출고실, 2층엔 사무실과 직원식당이 있었다. 제3공장에서 20m 떨어진 제1공장 1층에는 인쇄기와 코팅기, CTP출력기가 있었고 2층엔 사무실이 있었다.

계획을 위한 사례조사

계획단계에서 설정한 과제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주문·접수-생산-출고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기능배치 방안과 인쇄공장과 출력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소음, 폐수 등 환경에 관한 처리 방안, 생산효율을 높이는 자동화 설비 설치 방안이었다.

파주 인쇄단지, 성수동 인쇄단지, 가산동 디지털단지에 있는 10여 개의 시설을 조사한 후 설정한 계획 기준을 세웠다.

첫째, 인쇄기와 열·소음이 발생하는 인쇄기 지원기기를 분리, 배치한다. 즉, 인쇄기는 지하1층에, 인쇄기 지원기기는 지하2층에 설치하며 PITT로 상호연결한다.

둘째,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는 인쇄공장을 위해선 천정고를 충분히(4m이상) 확보한다. 그래서 소음감소(공용천정판사용) 효과도 도모한다. 그리고 통풍방식은 기계설비 설치이전에 자연통풍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자동화운반(Robot설비 등)설비 설치를 고려한 인쇄기기 배치와 급지부 및 배지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넷째, 생산시설에 ERP시스템 구축으로 전사적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수주에서 생산·출고까지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효율적 생산관리가 되도록 한다.

배치계획

배치계획에서 가장 큰 장애조건은 부지 북측 면에 설치된 불규칙한 형상의 콘크리트 옹벽이었고, 그 옹벽 이면은 건축은 불가능한 잔존 녹지였다. 이를 감안, 전면도로의 고저 차는 낮은 쪽에 지하 인쇄공장 출입용 경사로를 설치하고, 높은 쪽은 지상 주차장 출입구 설치

가 가능케 하였다.

V자형상의 콘크리트 옹벽 배치를 고려한 배치계획에는 몇 가지 대안이 설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상 주차장 출입구(서측)위치 반대편(동측)에 옥외 주차장 등 열린 공간(Open Space)를 두는 배치안으로 진행되었다.

평면계획

기본적인 결정의 기준은 인쇄기 배치를 위한 기둥 간격이었고, 인쇄기 배치에서는 주변기기 및 작업동선까지 고려하였으며, 기둥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 중에는 인쇄기와 적재되는 종이 하중도 포함되었다.

구조에 관련한 결정 이후에는 환경차원의 검토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각종 특히 지하층에는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하여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의 자연통풍이 가능케 하고, 인쇄설비에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를 대비해서는 건물 동측 수직 샤프트로의 기계적인 급기 및 서측 수직 샤프트를 통한 기계적인 배기를 고려한 계획을 하였다.

각층별 용도의 배분은 인쇄공정에 따라 지상2층에는 주문·접수 기능의 통신팀, 디자인실, 출력실을, 지하1층에는 원지창고, 각종 인쇄기와 코팅기가 있는 인쇄공장, 재단실, 출고실을, 지하2층에는 인쇄기용 에어 콤프레샤 등을 설치하여 인쇄기에서 발생하는 열·소음 등을 별도 처리하였고, 지상1층에는 인쇄 및 재단 작업후의 후가공처리(중철-제본-접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게차가 들어가는 화물용 승강기를 지하1층에서 옥상까지 연결하도록 하였다.

단면계획

단면계획의 가장 주안점은 역시 지하1층의 인쇄공장에 대한 것이었다. 고품질의 인쇄에 필요한 최적의 인쇄조건 즉, 종이의 함수율 유지를 위한 항온(22℃~25℃), 항습(습도60%)용 공조기와 가습기 설치를 하였다.

지하1층 바닥 PITT를 통하여 인쇄기와 연결되는 열, 소음 발생기기(콤프레샤 등)의 지하2층 설치와 지하1, 2층에 대한 환기를 위한 수직 샤프트 계획이었다.

각층에 설치되는 인쇄설비 별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는 건축단면 계획에 철저히 반영되었고, 소음 흡수와 환기를 고려한 천정고 계획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입면계획

지형에 입각한 배치와 기능위주의 평면 및 단면계획의 결과 형성되어진 건물 Mass에 창문개구부 계획까지도 대형 인쇄 장비의 반입·반출을 고려한 기능위주의 입면계획을 하였고, 외장재 선정은 지상 층까지 인쇄설비의 진동을 고려한 RC조 건물외벽에 적합한 황토빛 적벽돌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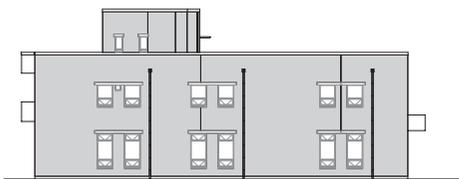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 '신기능주의'

건축가의 의도와 실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과제이자 관심사였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즉,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적 측면이 큰 만큼 건축가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기능

을 위한, 기능을 고려한 의도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Ubiquitous를 추구하는 (주)에즈랜드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 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따라서 나를 비우고 기능을 통해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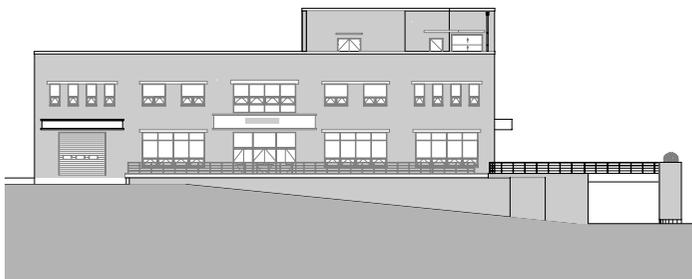
이 글을 마치며 나는 최근 완공된 (주)에즈랜드 파주 신사옥 프로젝트의 계획·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의 명함을 다시 꺼내어 본다. 그리고 (주)에즈랜드가 추구하는 Ubiquitous System이 건축을 통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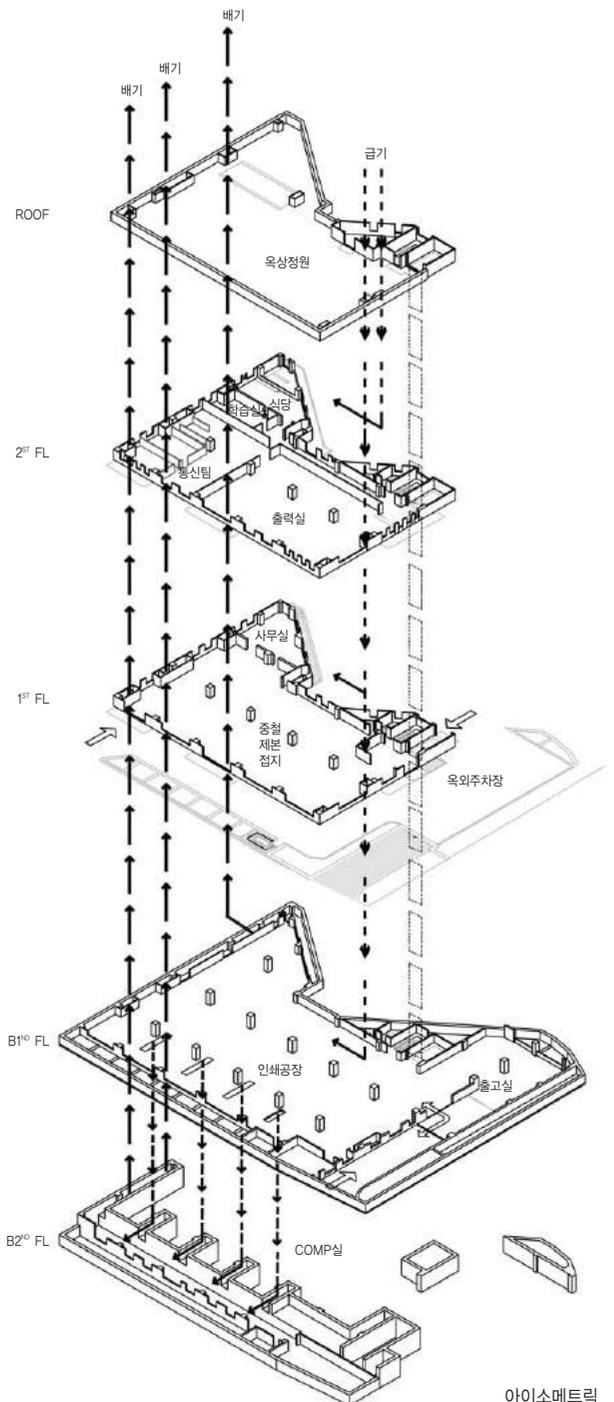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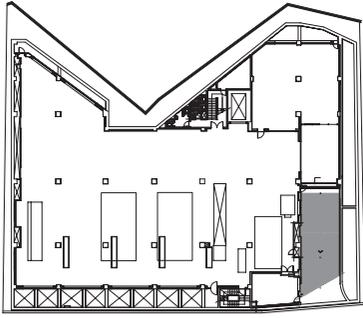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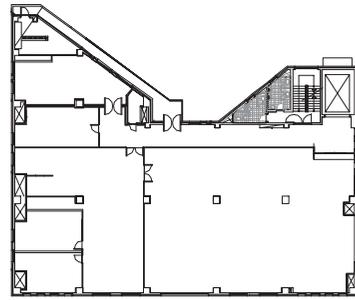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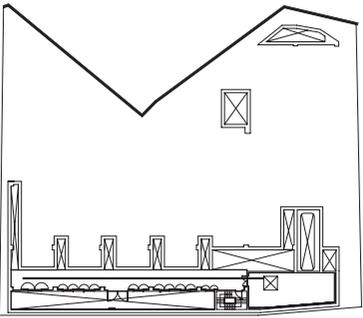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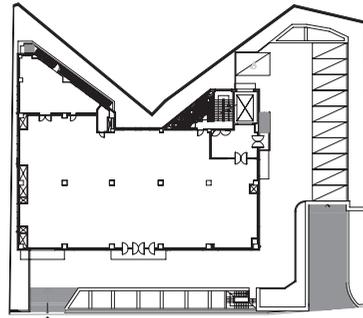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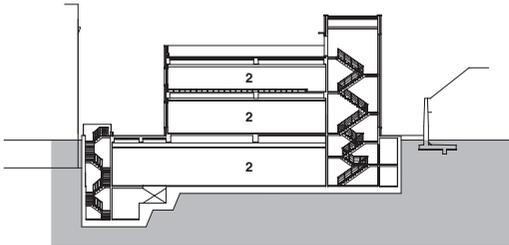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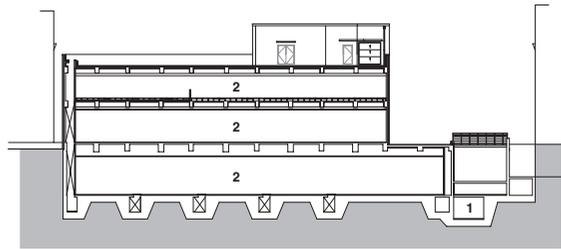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우수정화조
02_ 인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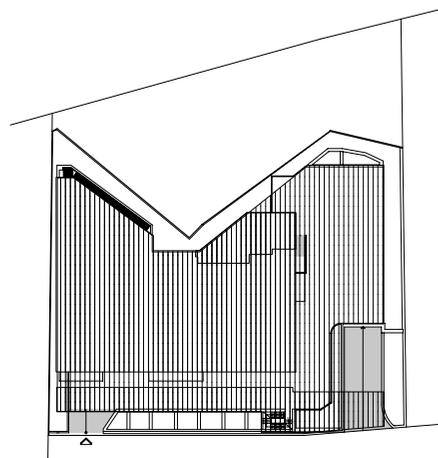
단면도1



단면도2

설계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지역지구 관리지역, 농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지면적 2,844㎡
 건축면적 838.18㎡
 연 면 적 3,164.00㎡
 건 폐 율 29.47%
 용 적 륜 54.37%
 규 모 지하 2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화강석 외장마감
 설 계 팀 관정희, 석지영
 구조설계 (주)파워구조
 전기설계 (주)엘림 컨설턴트
 기계설비 (주)동남기술단
 계획자문 유일 ENG 유병일 사장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국장
 시 공 우협종합 건설(주)



배치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Yang pyeong 3-ga Childen Educare Complex Center

당선작 /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규봉 · 이종훈) + 최병관(공주대)

-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6
- 지역지구 도시지역/준공업지역
-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 대지면적 995.6㎡
- 건축면적 584.93㎡
- 연 면 적 3,031.72㎡
- 건 폐 율 58.75%
- 용 적 률 221.08%
-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 발 주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설계담당 장수환, 이경미, 손정수, 한혜옥

계획부지는 8m의 2면도로와 고층 주거단지
지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대지로 랜드마크
적인 삼각형의 정점을 갖고 있는 대지이다.
복합시설을 수용하기에는 크지 않은 면적
과 계획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인지
성이 가장 높은 삼각형 모서리에서 갈라지
는 8m도로와 그 삼각형이 갖고 있는 계획
부지의 컨텍스트는 크나 큰 매력요소로
다가왔다. 그러한 대지에 어린이, 노유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은 설계자로서 흔하
지 않은 기회이었기에 경쟁설계의 부담감
을 잊어버린 채 건축디자인의 순수한 열정
을 불러 일으킬만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대지의 컨텍스트에 순응하는 건물
을 계획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다.
건물을 배치할 때 그리고 복합기능들의 동
선을 분리시키고 통합시킬 때 삼각형의 사
면을 따라가면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최상
의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다. 복
합시설이지만 군더더기 없는 쉽게 읽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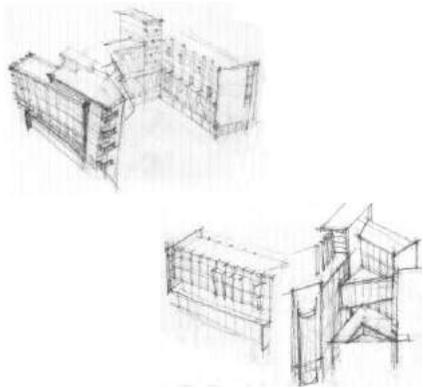
는 명쾌한 평면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그것
은 대지의 컨텍스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 노력한 결실이었을 것이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남측에 바로 인접
된 아파트 단지의 프라이버시 확보 그리고
남향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중정
(해란초 마당)을 둘러싼 배치계획을 하였
다. 2개도로에 인접한 삼각형의 대지경계
선을 따라 2개의 매스를 배치하고 코아와
홀로 2개의 매스를 연결하여 중정을 둘러
싸도록 하였다. 중정에 머무는 남향 빛은
어린이와 노인 거주공간 및 커뮤니티 시설
의 커튼월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고
부족한 남측면과 남측에 인접한 아파트를
고려하여 주요실들을 동측 도로면에 배치
하고 코아 및 홀 그리고 계단실을 제외하
고 남향 및 동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비록 좁은 대지였지만 복합시설로
서 커뮤니티기능과 주거기능까지도 포함
하고 있기에 향 조건의 지배도 많이 받고
있었고 접근성과 동선의 분리도 중요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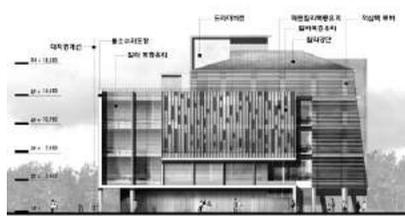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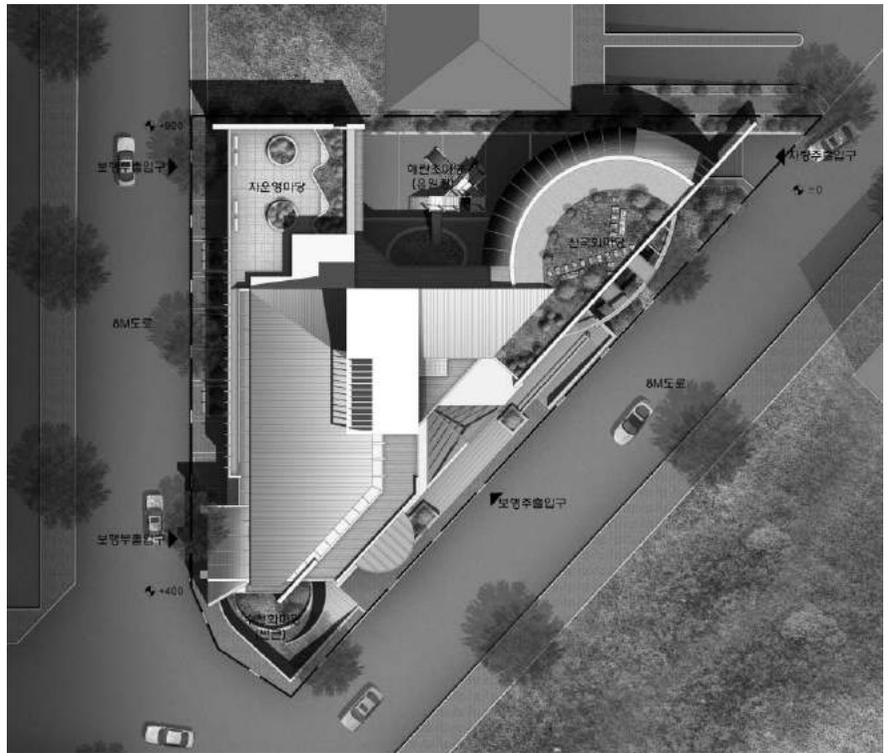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지의 맥락에 순응한 친환경적인 건물 디자인계획의 일환이었다.

입면계획도 대지의 맥락 즉 도로가 갖는 인지성, 상징성과 접근성 그리고 남측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외관계획이 우선되었다. 즉 과장된 모습으로 그 기능과 환경조건을 소홀히하고 시각적인 유희만을 가져오는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항 조건뿐만 아니라 도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파악하여 건물면을 따라 solid 와 void의 비중, 상징성 및 인지성을 고려한 입면 계획, 친환경적인 요소의 반영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삼각형 매스의 모서리에 solid 면과 void면이 만나 모서리가 열려지고 사선의 대지경계선에 순응하는 입면의 사선을 따라 발코니 면을 걸어서 랜드마크의 정점이 되도록 하였고 생태 환경을 고려한 그린네트워크의 개념을 옥상정원과 함께 입면(녹색입면, 더블스킨과 그린테라스, 스크린루버)에 반영하였다. 최상층 강당과 홀의 경사지붕은 대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작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국내외 노유자시설의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이었다.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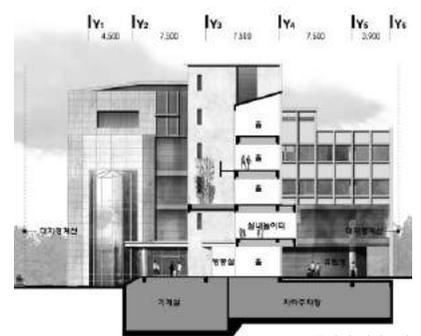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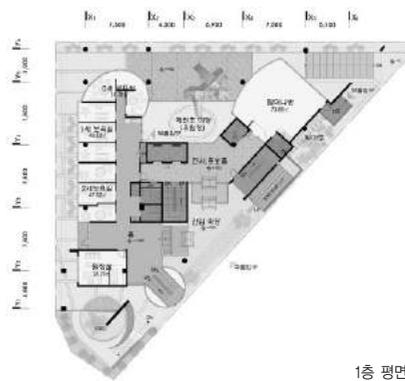
서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1/150)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Yang pyeong 3-ga Childen Educare Complex Center

우수작 / 단아 건축사사무소
(조민석, 석순주)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6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995.6m ²
건축면적	595.49m ²
연 면 적	2,972.73m ²
건 폐 율	59.81%(법정 : 60%이하)
용 적 륜	222.82%(법정 : 400%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원목사이딩, 징크판 돌출잇기, 신토석벽돌
최고높이	19.85m
도로현황	동측 8m, 북서측 8m 도로에 접함
주차대수	14대(장애인용 1대 포함)
조경면적	224.32m ²

건축계획

- 어린이와 차량동선의 분리 :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어린이와 차량동선은 기능 및 안전측면에서 분리되어야한다.
- 기능별 동선 분리 : 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할머니방
- 일방통행로를 고려한 차량동선계획 : 기존의 일방통행로(8m)의 동선을 고려한 차량동선 계획
- 자연 채광을 고려한 거실 공간 배치 : 남동측으로 열린 거실 배치
- 신속하고 원활한 피난계획 :
 - 어린이집: 피난점용 미끄럼틀
 - 노인복지시설: 별도의 옥외피난계단
- 공간의 개방성 : 밝고 쾌적한 어린이집
- 어린이들의 흥미유발 디자인
 - 1층 바닥 패턴 : 바닥에 표시를 해주어 유아들을 필요한 공간으로 유도한다.
 - 2층 바닥 패턴 : 한글과 친해지도록 한

글의 자음을 형상화한 바닥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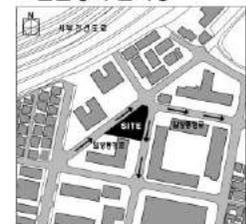
- 코쿰하우스(소꿉놀이) : 누에고치 모양의 작은 집으로 아늑한 모태형 소꿉놀이 공간
- 집속의 집 (동화구연) : 아이들의 소유주 공간이며, 이곳에서 동화구연이 이루어진다.
- 알코브 공간(소꿉놀이) : 움푹 파인 공간은 유아들만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 천정 디자인 : 단조로운 천정디자인을 벗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천정디자인
- ECO-ATRIUM
 - 실내 공간에 놓여진 토양과 식물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 투명한 유리 커튼월 속으로 보이는 식물의 푸르름은 green building의 이미지를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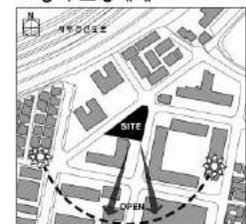
도시구조와 상호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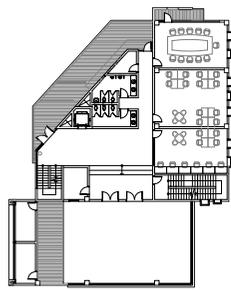


접근성과 인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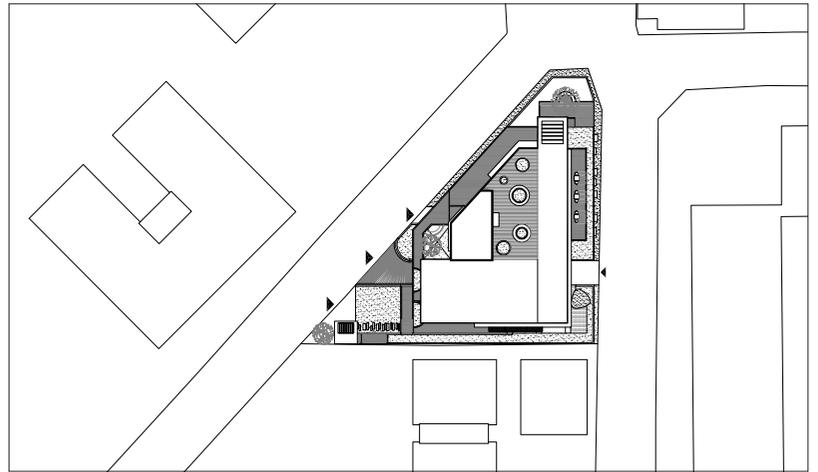


망과 조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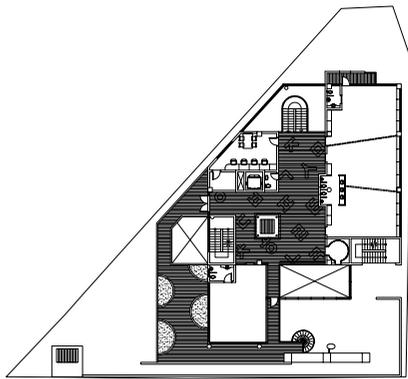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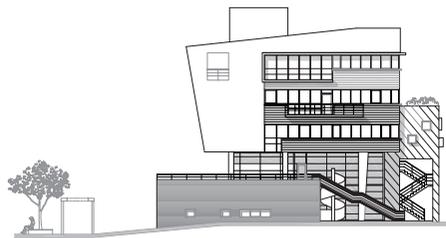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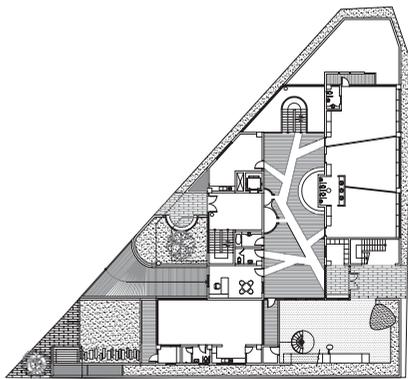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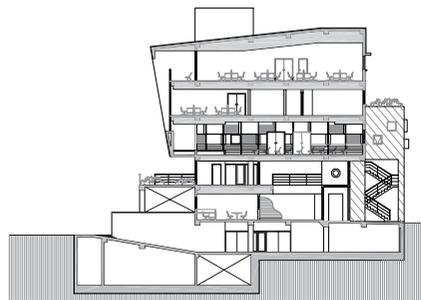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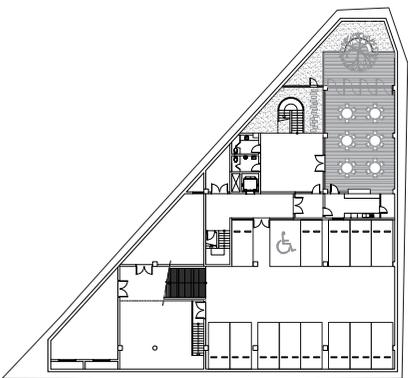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동측입면도



지하층 평면도

■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자연과 함께하는 복지센터"
(ECO-WELFARE CENTER)

- 옥외독서테라스 - 옥외독서 공간 조성
- 휴게테라스 - 휴게 공간 조성
- 자연학습마당 - 자연학습 공간 조성
- 햇살 및 빗마루 - 햇살 및 빗마루 조성
- 일광데크 - 일광 데크 조성
- 하늘정원 - 하늘정원 조성
- 선문마당 - 선문마당 조성
- 놀이마당 - 놀이마당 조성

■ 어린이에게 친숙한 척도와 자연소재 사용

- 척도 친화적 건축물 형태로 친숙한 척도 사용

- 자연소재 사용

■ 파사드 디자인 (Facade Design)

- 파사드 디자인을 통한 자연 친화적 건축물 조성

- 파사드 디자인을 통한 자연 친화적 건축물 조성

■ 밝고 쾌적한 어린이집

- 밝고 쾌적한 어린이집 조성

OPEN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Yang pyeong 3-ga Childen Educare Complex Center

가작 / 씨에스도시풍경 건축사사무소
(차유성)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6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독서실
대지면적	995.60m ²
건축면적	579.46m ²
연 면 적	2,984.88m ²
건 폐 율	58.21%
용 적 륜	217.34%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발 주 처	영등포구청
설계담당	손한계, 황지영, 손형주

희망의 날개로서의 복합복지시설

- 구립어린이집 및 노인/주민복지시설 서로 상이한 용도의 공간이 복합화 된 시설
- 지역주민의 생활의 중심시설로서 비워진, 여백의 공간으로서 개별공간의 영역성을 지키면서 상호 소통가능성을 두고자 한다.

흐름 - 장소적 역동성

-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추구하여 주변맥락에 의해 형상화하여 새로운 장소성을 제공한다.

켜(LAYER) - 공간자리잡기

- 도시의 질서와 지형의 흐름에 따른 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에 따른 영역설정

비움과 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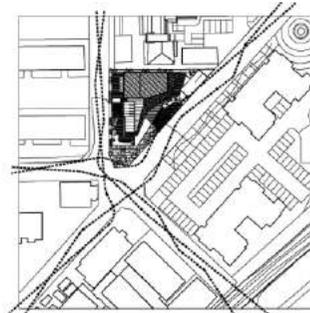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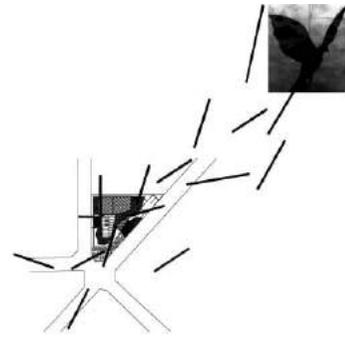
- 매스와 매스 사이에 만들어진 켜는 비움과 채움으로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영역화하고 영역화된 공간의 변화는 비움공간을 통해 채움공간의 풍요로움을 생성한다.

길(MALL) : 사람의 흐름과 복지시설과 의 소통 도심의 일상을 끌어 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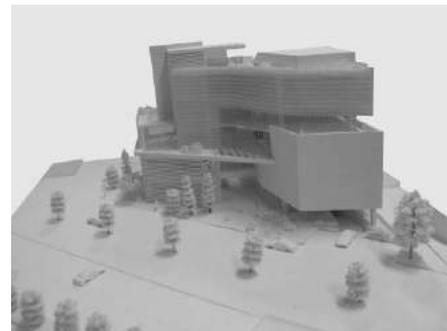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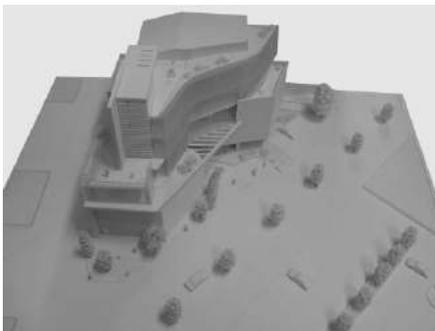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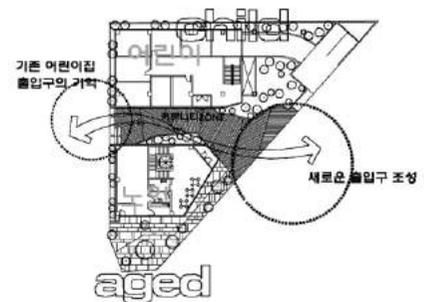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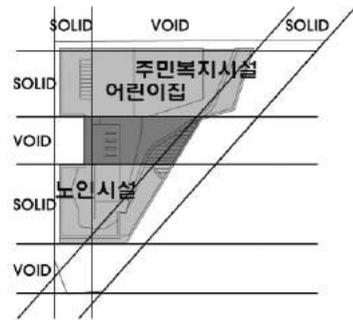
- 길은 생활화되면서 비로써 생명력을 지닌다.
- 소규모 커뮤니티가 가능한 쾌적한 장소를 제안 한다.
- 매스와 매스사이에 만들어진 켜는 비움과 채움으로 다양한 성격을 영역화 하며 대지 전체에서 각 공간으로 흐르는 이음을 원활히 하고 필로티와 데크, 광장 등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계한다.

도심의 일상을 끌어 들이다.

- 삭막한 도시공간에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각종공간이 도시에 여유를 줌으로 도시에 활력을 부여한다.



사람의 흐름과 복지시설과의 소통



설계경기 | Competition

용인 기흥 공공도서관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당선작 / 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축사무소
(오근석, 문호)

-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군 신갈동 산 14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 (공원부지)
-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 공공도서관
- 대지면적 80,505.00㎡
- 건축면적 2,066.46㎡
- 연 면 적 5,978.99㎡
- 건 폐 율 2.57%
- 용 적 륜 7.43%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 발 주 처 용인시청
- 설계담당 김용호, 차종연, 이창동, 김성일, 최병수, 김지연

계획의 주안점

'자연과 호흡하는 도서관'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만골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 Green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는 물론이고 경사지 절토를 최소화함으로써 전원의 쾌적함과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을 담아 지역교류와 문화정보 전달역할을 하는 마당이 있는 열린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새가 비상하는 듯한 매스의 형태감으로 지역 주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랜드마크로 인지도를 높이고, 공원과의 연계를 데크를 통한 자연스런 동선을 꺾었으며 숲속 도서관으로 느낄수 있도록 전면을 유리로 계획하여 열린공간을 확보하였다.

배치계획

본 대지는 높이 10~25미터 경사가 급한 동서측으로 두개의 언덕과 중간부분에 일부 낮은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 두 언덕 사이에 골짜기 부분을 지하주차장

으로 배치하여 자연지형의 절토량을 줄이고, 도서관 이용도와 관리상의 효율을 위해 크게 두 공간(자료정보이용공간과 지역커뮤니티 및 문화공간)으로 나누었고, 연결통로로 휴게공간과 이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개방성을 강조한 마당을 만들어 주민들이 가깝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

Green Network

내,외부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계시키고 녹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Green Network를 형성하였으며, 건물 외부공간에 숲속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야외 휴게시설등을 설치하여 도서관내부와의 시설연계성을 확보하였다.

도서관과 공원과의 보행동선을 적극 연결하고 공원산책로등도 도서관 야외시설과 연결되어 하나의 공원을 이루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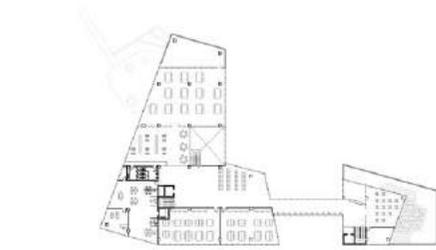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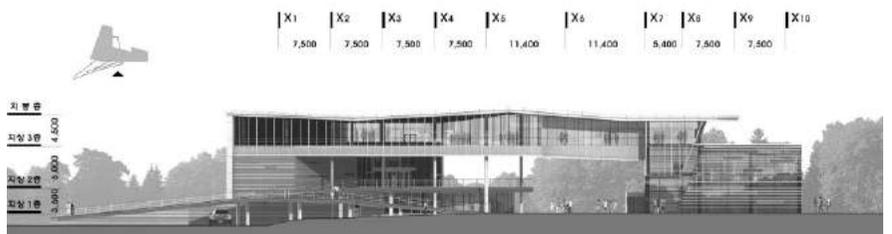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입체적으로 분리하고 주 진입은 전면 도로변에서 조각공원을 통해 로비로 연결된다. 정적공간과 동적공간의 분리로 소음이 도서관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서고등 자료와 관리동선을 수직적으로 별도 확보하고 원활한 흐름을 이룰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이용자동선체계는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출입이 서비스의 시각적 범위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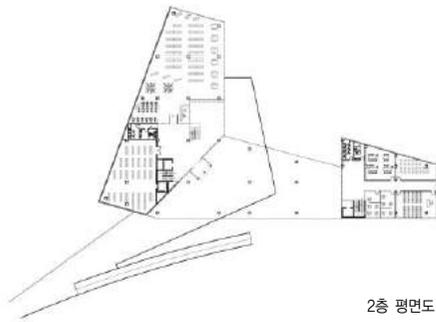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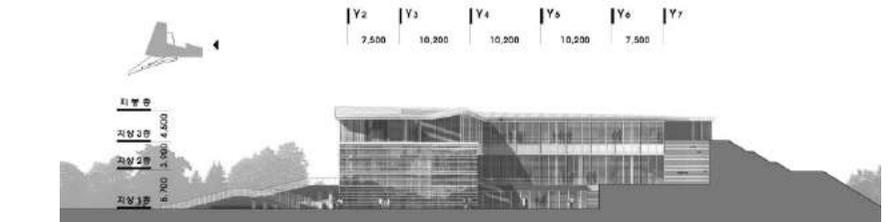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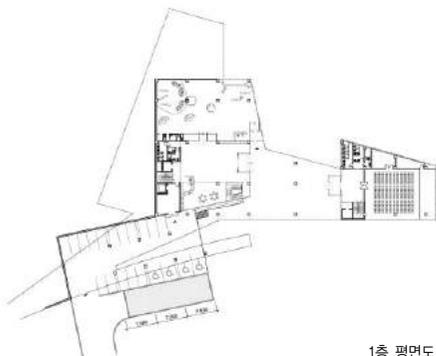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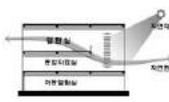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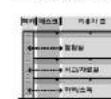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전망경적 단면개념
- 상부 계층의 극대화를 위한 개방층개 계획
- 2.3층 YCD(연속도)를 통한 수직적 개방성 확보



■ 도시이행 및 연계
- 도시이행 용인지역 면적률 초과한 용도 변경 승인구역



■ 수직 동선도



용인 기흥 공공도서관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우수작 / (주)ADD종합건축사사무소
(정수홍, 유방근)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산 1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3,200m ²
건축면적	1,783m ²
연 면 적	5,994.77m ²
건 폐 율	13.51%
용 적 륜	27.04%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용인시청
설계담당	김태한, 김상현, 황아름, 김태현, 원승현 김동현

용인기흥공공도서관은 지식의 보관과 전달이라는 전통적 도서관 기능의 변화추세속에서 이용자들의 커뮤니티와 집단적인 문화장소로서의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만골근린공원내에 위치한 계획대지에는 구릉성산지의 경사형 대지조건과 대지내의 수림대를 보호하며 활용하는 방안, 인접한 주거단지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공원시설과 연계된 주차인프라 확충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용인기흥공공도서관의 설계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과 밀착된 '쉼터'의 공간이다.

만골근린공원내에 위치한 대지는 북사면의 구릉성 산지의 지형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대로변에서의 주진입을 계단식 무대를 통해 데크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대로변과 도서관사이의 완충공간에는 야외무대, 조각공

원,수경시설로 활용되어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복합적 지식공간'이다.

유아, 청소년, 성인의 각 세대별 평면, 단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각 공간마다 그 성격에 대응하는 외부공간과 연결된다. 야외도서관과 야외학습원은 주변수림대와 연계되어 도서관 기능을 외부로 확장하며, 전자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형태변화와 욕구에 대응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인프라로서의 '전시 문화공간'이다.

기존의 도서관이용의 수동적 접근에서 체험과 교류의 능동적인 이용행태를 유도한다. 다목적실과 소규모동아리실은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1층의 홀, 야외학습공간과 연계된 전시공간은 지역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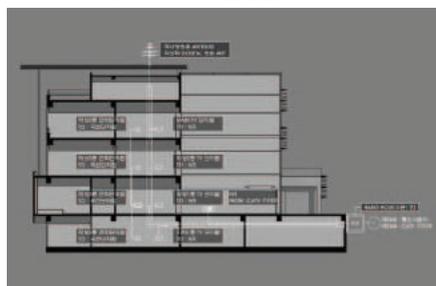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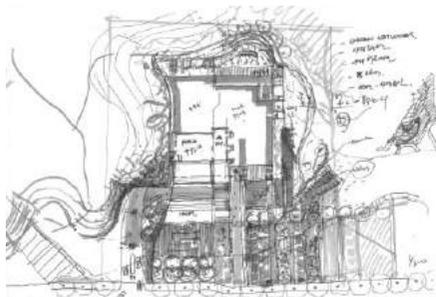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2층 평면도

중단면도



통신설비 개념도



모형

용인 기흥 공공도서관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가작 / JU건축사사무소(박재유, 이영민)

대지위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산 1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80,505.00㎡
건축면적	2,203.22㎡
연 면 적	5,798.25㎡
건 폐 율	2.74%
용 적 륜	4.68%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용인시
설계담당	김영재, 김태성, 김정환, 김영진

두 신체

부지는 근대적인 양적 어휘들로 인해 질적(신체적) 요소들이 변형되어 가는 도시의 변경에 위치하고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획일화된 기획에 의해 생산된 일의적 풍경과 마주하고 있다. 부지는 인간과 대지의 두 신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겹게 버티고 있는 환자와 같이 느껴져 안타깝다. 지역의 주변은 기계적 욕망의 기호들로 메워져 다양성들을 찾기 어렵게 되어버렸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어는 개발과 관련된 기계적 언어들뿐인 것처럼 주변은 반복적 패턴들로 가득하다. 차이들은 차별화의 전략으로 위계 속에 함몰되고 다양성을 생성하는 차이들의 찬란한 변주는 시도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언어의 메마름이 공간의 메마름으로 나아가서는 도시의 건조함으로 이어져 다시 삶을 딱딱하게 하는 기계적 순환구조의 체계를 형성한다. 신체적 언어의 다의성과 생성적 가능성들이 그나

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닥쳐올 위기에 대한 일종의 알뜰한 보험 때문은 아닐까.

올려놓기(건축하기)

인간의 신체가 다양한 감각기관들의 총체이듯 자연의 몸 역시 드러나는 내재성은 획일화 될 수 없어 보인다. 지형의 굴곡과 그에 따라 생겨나는 미세한 그늘들의 차이와 토질의 차이들이 식생의 다양성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만들고 초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듯이, 인간의 몸에 있는 질적 감각들은 이러한 자연의 스펙트럼과 소통하도록 네트워크 되어있다. 아이와 여성의 미세한 감각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교감이 가능할 것이다. 건축이 이러한 교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시적 장치가 됨으로서 근대건축이 단절시켜온 인간과 자연간의 연계와 소통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대지를 신체로 보고 그 위에 조절 장치를 살짝 올려놓는 것



을 기본 개념으로 잡았다. 우리의 계획안이 다양한 접속의 한 가지 사례가 되기를 의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점 너무 아쉽다. 도서관은 기호의 체계이다. 그 기호는 신체로부터 분리되어서는 기호의 다양성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도서관은 기호와 신체의 다양한 접속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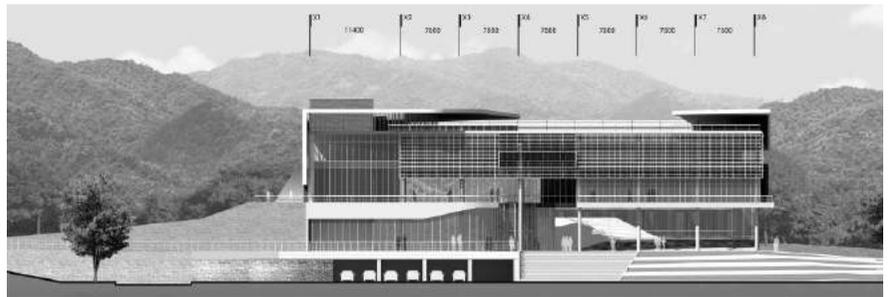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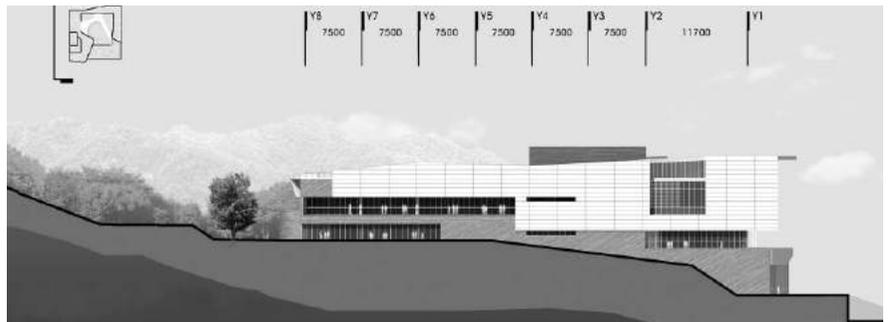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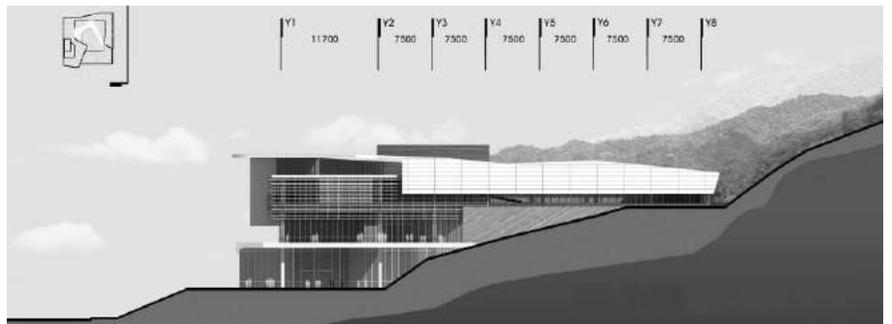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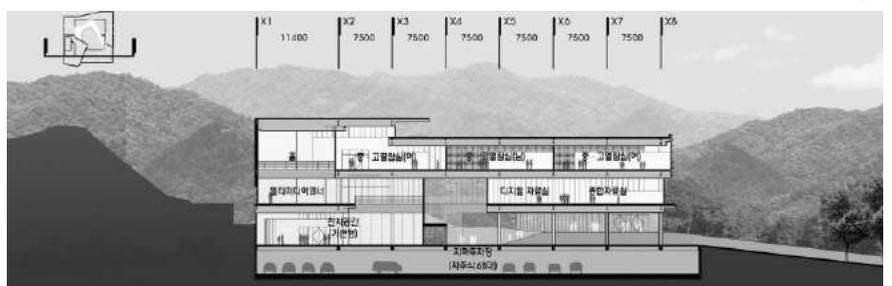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단면도

용인 기흥 공공도서관

Yongin Giheung Public Library

장려 /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윤재일, 강성찬)

대지위치	용인 기흥구 신갈동 산14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 (공원부지)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13,200㎡ 공원면적 : 73,779㎡
건축면적	1,225.32㎡
연 면 적	5,759.63㎡
건 폐 율	1.70%
용 적 륜	3.3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86대(장애인주차 2대포함)
외부마감	목재패널, 무기질세라믹패널, T24 복층유리
설계담당	윤상훈, 김훈, 이희종, 박태원, 박정선, 홍은수, 유명민, 김범준
발 주 처	용인시청

현재의 도서관은 과거의 정보와 지식의 습득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정서 함양, 지역커뮤니티센터, 자발적인 문화체험,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겸하며,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계획안은 기흥구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더불어 만골공원의 풍경을 담은 체험, 휴식, 명상,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며, 기흥구 지역도서관의 장소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역 복합문화 사랑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에 기대해본다.

계획의 기본방향

- 자연친화성
 - 주변 경관의 최대한 보존
 - 만골근린공원의 이용성 최대고려
 - 건물배치 및 옥외공간은 주변시설과의 조화성 추구

- 현대적 감각
 - 기능, 구조, 미를 갖춘 공공도서관
 -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공간구성
- 쾌적한 공간연출
 - 기능에 적합하고 명쾌한 동선계획
 - 심미적이고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 연출
- 가변성과 장래성
 -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구성
 - 기능변화와 확장에 따른 장래 증축의 능동적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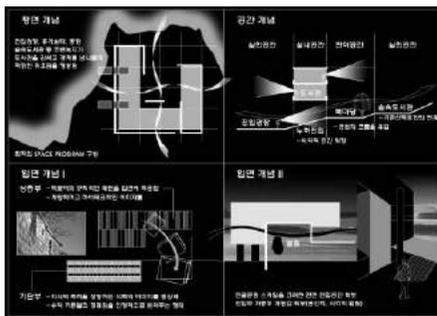
배치개념

- 만골공원의 기존도로패턴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
- 지형축과 가로 진입축을 고려한 배치 계획
- 소음차단과 가로공간 활성화화를 위한 전면광장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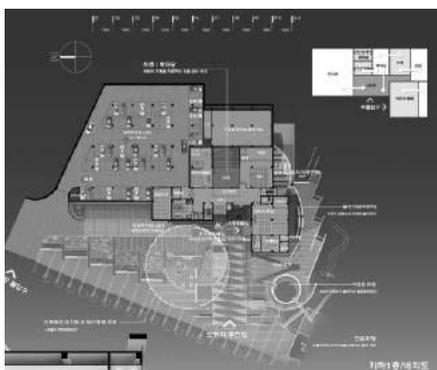


평면개념

- 기능별 ZONING
 - 홀에서의 각 실로의 동선고려
 - 친환경 내부공간을 고려한 평면계획
 - 소음을 고려한 층별 실배치
 - 이용편의를 고려한 다중이용실의 진입 층 설치
 - 이용특성에 따른 공간구성
- 세부계획
 - 장애인, 어린이 이용객/일반이용객 출입구를 명확히 분리
 - 선관광장 설치로 지하공간(어린이열람실, 간행물, 식당 등)에 친환경 공간 제공
 - 기능별 세대별 이용성을 고려한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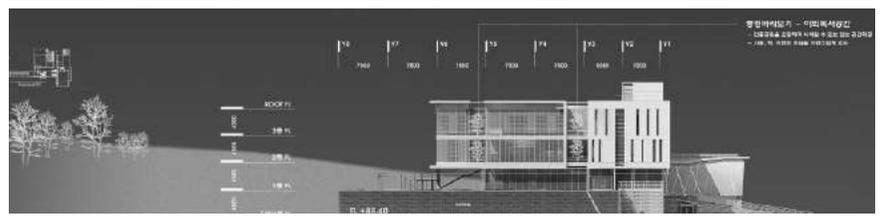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정면도



숙독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경



단면도

유 원 재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by Yoo Won-jai, KIRA

책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들

travel is best teacher of architecture



페리보트 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뉘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바쁠 때는 여유 돈이 생겨도 쓸 만한 시간이 없는 것’ 묘한 아이러니겠다.

건축을 전공한 아들이 대학 졸업 후 2년여 동안을 자기 인생 목표를 찾기 위해 방황하였다. 건축사의 행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자식이 다른 분야로 전향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건축의 솔잎을 먹어야겠다는 본인의 의사는 기분을 묘하게 했다. 뒤늦은 건축실무의 시작이라서 일 년 동안 기본자세를 훈련시킨 후, 송충이의 맹훈련을 친구 건축사사무실에 보냈었고 지금은 내가 직접 데리고 있다.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는 옛말이 맞는다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아들 역시 종종 아버지와 소장



1. 용안사정원 축소모형 - 시각장애자는 촉각으로 보게 한다
 2. 용안사 내부 - 비워진 조그마한 정원에 거대한 우주를 담고 있다
 3. OXY의 원래 모습
 4. OXY를 부수고 새로 들어선 실용적 건물

을 혼동하는 힘든 경우를 겪는 것 같기도 하다. 허나 가끔은 부자간의 아름다운 건축설계실무를 즐길 수 있는 남모르는 즐거움도 있다.

수주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교육이 가장 좋은 훈련이 되겠지만, 요즈음은 주변상황이 그런 작업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다이내믹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차, 일본 엔화가 기록적으로 하락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틈을 이용해 아들과 함께 아주 저렴한 일본 건축 배낭여행을 4박5일(2007.02.11~2007.02.15) 동안 다녀오기로 했다.

부산항을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거대한 페리보트는 밤새 항해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오사카에 도착한다. 이 배는 일본혼슈와 시코쿠 사이로 항해하므로 세토나이카이 국립 해상공원 경치들을 즐길 수도 있다.

오사카 인근에는 고베, 교토가 있어 볼만한 건축물이 많이 있고, 교토에는 전통 일본건축물이 많다. 특히 일본 현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유산을 오늘날 현대건축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또 그들의 건축적 유산이 어떻게 잘 관리, 보존 되고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우선 아들에게 여행 중에 보고 싶은 건축물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일정도 짜게 하였다. 자유 여행이므로 계획을 스스로 잘 세우지 않으

면 효율적 견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런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좋은 실무경험이 된다. 이를 위해선 그 도시를 파악해야 하고, 시간계획에 따라 볼 건축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설계과정이라 본다.

오사카, 고베, 교토에는 다다오 안도의 작품들이 많다. 특히 무명 시절 10평의 좁은 사무실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며 대단한 열정과 초심으로 이뤄낸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치열한 작업정신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이 광경들은 그의 저서 『연전연패』라는 책에 설명되어 있어, 요즈음 힘든 상황의 우리 건축사들이 읽어본다면 용기와 아울러 공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 마침 묵고 있는 숙소 부근에 안도의 초기 작품 'OXY' (1987년 준공)가 있어 일본을 떠나는 날 마지막 일정으로 준비된 자료(사진, 도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 나섰다.

조그만 뒷골목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확한 주소와 사진을 보고도 생각보다 그리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다. 작가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이었을까?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통과외례처럼, 어떤 대가인 것처럼... 같은 곳을 맴 돌 뿐이었다. 이상하다. 왜 일까?

갑자기 내리는 부슬비는 지도를 적셨고 아직도 대낮이건만 어두워진 하늘은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40여 나라를 여행 한 아버지로 서도 아들 앞에 체면이 서질 않았다. 틈틈이 배워둔 일본어로 꽤나 많은 행인들에게 물어보았을 터, 그 중 몇몇 이는 몇 바퀴를 같이 돌아



뒷골목과 만나는 TIME'S-1의 공간은 정겨운 설계인 반면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주기까지 했는데 말이다.

지나가던 한 젊은이는 동네 한 블록을 돌다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같이 지도를 몇 번이고 찾아보았다. 정확한 주소와 사진위로 건물이 안 보인다면 미안함과 아울러 이상하다는 표정만 남기고 떠났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시간이 흘러 마지막 날의 일정은 날씨처럼 엉망이 될 듯 했다. 아들은 다음을 기약하자고 하였지만, 나의 내적인 아쉬움이 오히려 꼭 보고 가겠다는 의지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나 처음보다는 지친 기색으로 한 연륜이 있어 보이는 신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도와 건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

보았고 우리가 몇 번이고 밟았을 거리를 차분히 응시하더니 한 건물을 가리켰다. 안도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이상한 건물이 바로 앞 모퉁이에서 있었다.

아!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나는 안도의 작품을 감히 허물고 무표정하고 실용적인 건물로 신축 하리라고는 미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애쓰며 찾던 건물이 없어진 허탈감 뒤로, 준엄한 사회의 평가를 받아 작품이 보존 혹은 멸실된다는 것은 어떠한 전율과 더불어 더 큰 현장 학습이 되어버렸다.

원래 'OXY'는 안도의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 건물로서 폐쇄적 외관이 영업적인 점포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는 적었을 것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그만큼 적었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보았다.

어제 교토에서 본 안도의 'TIMES-1'도 일본 전통 뒷골목을 현대 건축물에 재현한 건축적 개념은 근사했으나, 현실적인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빈 점포들이 쓸쓸스럽게 보였다.

'OXY' 건물도 건축 관련 방문객들만 찾아와 사진이나 찍어가는 게 건축주나 점포주로서는 영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건축은 아름다운 외관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경제 사회 속에서 건 강히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으며, 그 작품을 본 것 보다 더 교훈적이었던 기회가 된 셈이다. 또 하나는 아들에게 어렵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목적을 이뤄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다. 짧은 기간 동안 큰 것을 얻어간 여정이었다. ■

함 성 호
건축평론가, 시인
by Haam Seong-ho

누군가 나를 설계하고 있다

I am planing by someone

창세기의 건축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제2장 6절

우리는 신의 모형이고 신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신은 왜 굳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며, 신이 건축한 이 세계는 인간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빠져있는 이 기록에서 신은 스스로의 부재를 말해 주고 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렇다. 신은 세계를 관망하실 뿐이다. 그리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모든 실험은 인간에게 주어진다. 신은 자신을 복제한,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형으로 이 세계의 불확실함을 실험하고 있다. 그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순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 당신은 아는가?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 실험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신은 불변의 진리를 원하고, 자연은 엄청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신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숲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불화를 의미한다. 신의 건축은 실패했던 것이다. 창세기의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 안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건축가들이 그 실패를 답습한다.

도시의 꿈

아키그램 그룹의 <걸어 다니는 도시>는 이동 수단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집착을 말해준다. 이 도시는 거대한 다리가 달려있으며 도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유목민처럼 쾌적한 환경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순진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이상과 꿈을 대변하고 있다. 현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걸어 다니는 도시' 또한 단지 환상으로 그쳤고, 그 후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후 도시에 있어서의 이동의 문제를 깊이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¹⁾ 꿈으로 끝난 시도는 꿈으로 완성되었기에 인간의 꿈속에서 더 오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이동성에 대한 중요성은 르 꼬르뷔지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속도를 좌우하는 도시는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제 이동은 속도로 바뀌었다. 속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웃긴 일이었다. 이동을 테마로 한 '걸어 다니는 도시'는 길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속도를 위해서는 길이 필수적이었다. 속도는 능률과 효율의 상징이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믿음에는 반드시 속도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르 꼬르뷔지에의 <파리 보아잔 계획>은 새로운 20세기의 복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후 평면적으로 채워 넣어진 도시 —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게 될 것 같은 도시(프랑스 항공 회사의 사진을 보라)—가 있었던 곳에 그 대신 대기와 햇빛 속에 밝게 빛나는 수직의 도시가 건설된다. 지금까지는 면적의 70~80% 까지 밀집된 집에 의해서 덮여졌던 도시는 이제는 5% 밖에는 집이 들어설 수 없다. 나머지 95%는 간선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원으로 배당된다. 나무 그늘로 덮인 보도는 2배, 4배로 늘어나게 된다. 마천루의 바로 밑의 정원은 사실상 이 새로운 도시의 지상을 광대한 정원으로 삼아 건설된다.

— 어바니즘, 르 꼬르뷔지에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르 꼬르뷔지에의 발언에서도 인간은 아직도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이 도시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되어있는 피조물이 스스로 숲을 버렸듯이 다다다다 지상에 붙어있던 마른 껍질 같은 집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높이 200

미터에 달하는 유리의 순수한 결정체를 그야말로 광대한 간격을 두고 건설하고, 바로 그 밑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려고 했던 도시주의자들의 꿈은 일거에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울창한 숲이 들어설 자리에 더 빠른 속도를 위해 도로를 내고 그 광대한 간격을 집을 짓기 시작했다. 순수한 유리의 결정체들은 불과 1미터 50센티의 간격으로 쭉쭉스런 내부를 들켜버리게 되었으며, 광활한 면적의 숲 대신 한 줄로 늘어선 가로수들은 매연과 소음으로 그나마 말라 죽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이 좀 더 예민한 독자라면 이 실패는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풍경이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실패한 현실은 더 오래 비난받지만 그 비난의 이유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된다. 신은 이 실패를 기록했다.

누군가 나를 설계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아침 시간 뿐 아니라 하루의 어떤 시간도 별로 바쁠 것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실직자라면, 그것도 15층 이상의 편복도형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한 번 20층 복도에 매달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촌의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자. 거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 램프가 1/4 원을 이루며 조면 처리되어 있고, 화단은 때로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1층 세대의 시선을 가려 주는 커튼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상 주차의 구획을 확연히 구분해 주는 경계가 되어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수거차의 위치가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부터 정해져 있고, 놀이터의 위치는 늘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건너편 복도에서 당신과 같이 단지 내를 조감하는 또 한 사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당신은 당신이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 아파트촌을 당신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조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리곤 건너편의 사내가 사라지고 당신이 사라지고, 화단의 나무들과 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17인치 컴퓨터 화면이 어두운 심연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빅뱅 전의 우주처럼 작은 커서가 어두운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폭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자동차와 모든 무작위적인 인간의 행동 특성들이 연구되고 분석되어져 어두운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윽고 빛이 나타나고 빛들이 선을 이루며 화단과 나무와 지하주차, 램프와 건물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AUTO CAD 14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 나타난다.²⁾

1) 1964년 영국의 젊은 건축가 그룹인 아키그램(Archigram)은 로보 모양을 한 약 40층 정도의 고층건물이 황량한 사막 위를 무리지어 이동하는 '걸어 다니는 도시(Walking City)'를 제안했다. 당시에는 단지 제안으로만 그쳤던 이 계획은 그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리비아의 '사막 녹지화 작업'에서 실현되었다. 공사 현장의 사령탑으로 쓰이는 이 캠프는 거대한 철골조 건물로 이루어졌고, 세련된 유리가 외벽을 이루고 있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광활한 사막 위를 이동해 나가게끔 설계되어졌다. 건축학, 기계공학, 컴퓨터 제어공학, 철골 재료공학 등의 공동 연구의 결과였다. 미래는 과거에 있다.

2) 컴퓨터 화면 안에서의 선은 종이 위에서 그것과 달리 굵직하지 않고 미끄러진다. 캐드의 현실 속에서 흔적은 물리적인 흔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총화에 의해 기억된다. 캐드의 현실 속에서의 이미지의 흔적들은 캐드 밖의 현실 속에서 생성되는 물리적인 흔적들이 어떻게 이미지화 되고 있는가를 과정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의심스럽다면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죽음이 찾아오는지 상기에 보아야 한다. 도시는 모든 것이 점멸의 2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미 헤매임의 황당함과 뜻하지 않는 발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제는 잠시 그 신호의 체계를 잃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우리는 죽음과 직면한다. 횡단 신호 보다 빨리 달려 나가는 사람들, 직진 신호 보다 한 템포 빠르게 출발하는 자동차.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트럭과 손가락을 자르는 기계 톱날들. 병원에서 뒤바뀌는 아이들과 신호의 체계에 미숙한 미아들. 도시는 이처럼 당신을 길들이고 조정하며, 당신의 행동들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당신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당신이 신호를 배반하기 전까지는, 신호가 당신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는 우리에게 속도를 주기 때문이다.

건축은 이런 속도의 사이사이에 존재하지만 결코 속도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로에 늘어진 건물과 건물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연관이 생기는 일 따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연관 때문에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건물과 건물은 선적으로 연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점과 점을 잇는 도로는 속도의 카니발리즘을 표방한다. 속도는 속도를 먹고 자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도시는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 관계가 희박해 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한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점과 점을 잇는 선은 엄밀히 말하자면 점이 모여 이루어지는 선의 개념이 아니다. 이 직선은 '곡선의 가로는 당나귀의 길, 직선의 가로는 인간의 길'이라는 현대 도시의 유일한 덕목이며, '우리는 단언한다. 인간은 기능적으로 직선을 행사하며,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직선·직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 그리고 직선은 인간의 본능적인 수단이고 또한 사고의 높은 목적이라는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경구처럼 도시의 주된 가치를 이루고 있다. 이 가치에 당신이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당신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도시는 이 가치에 의해서 건설되며, 당신은 그 곳에 살기 위해 몇 년 동안 주택 청약예금을 부러 은행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설계되고 있었는가?

그럼, 당신은 어떡하다 이 도시에 맞춰 설계되었는가? 직장 때문예? 여기서 태어났으므로? 학교 때문예? 그렇다. 당신은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이면에는 편리로 귀착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³⁾ — 속도의 직선은 점·선·면의 과정을 해체한다. 해체하는 즉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공간과 공간을 일치시켜 버린다. 영화 '스타트랙'에서 보여지는 순간 이동 광선은 '아키그램 그룹'이 꿈꾼 도시의 최종적인 진화를 그리고 있다.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이 사라져 버린 자리에 또 무엇이 채워질 것인가? <파리의 보아잔 계획>처럼 숲이? 그 실패처럼 또 건물이?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할 것이다. — 도시는 당신의 편리를 위해서 온갖 서비스를 다 한다. 싱크대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부의 행위를 정확히 예측하여 최소한의 동작으로 가장 움직이기 편리한 싱크대를 제공하고, 모든 교통수단은 러시아워에 맞춰 정확히 당신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분당 120미터의 적당한 속도로 당신의 수직이동을 돕고 있으며, 당신이 주말을 위해 도시의 근교에는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집은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적당한 근린공원으로 당신의 피로한 시신경에 녹색을 제공해 주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일상의 일탈을 경험하고, TV의 9시 뉴스는 영화 보다 더 영화적인 현실을 생중계 한다. 광란과 질서가 피상적으로 작동한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안전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안전마저 피상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증명한 바가 있다. 당신이 그 피상성에서 잠시 벗어 나오는 순간 당신 앞에는 깨끗하게 도장된,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의 범퍼가 눈앞 가득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마저 도시의 건설자들은 설계하고 있다. 개인의 죽음을 감수하며 도시는 설계 된다.

도시는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 개인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예측이 불가능해지므로 써 도시는 전체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 개인을 몰아넣는다. 수많은 도시의 인프라를 당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은행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달의 청구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부류일 것이다. 당신이 이용하는 쇼핑센터와 영화관과 은행의 위치는 내가 계획한 것이다. 당신의 거주지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편리를 이용하고 어떤 도로를 통해 출근을 해야 가장 빠르냐 하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다. 당신은 그 빛(태초의 빛/컴퓨터 모니터의 빛)을 따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타임카드를 찍고, 퇴근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은 극히 불안정하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나는 당신을 실험 치료 치환해 데이터로 저장한다. 그의 실험처럼, 나 역시 그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그러나 나는 세계에 대한 신의 부재처럼 관망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떠돌아다닌다.

혹시,그도 우리처럼. ■

3) 도시는 우리에게 편리라는 당근을 주며 다른 손에는 감시와 통제라는 채찍을 들고 있다. 근대 시민 사회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인 '질서'는 이런 당근과 채찍에서의 질서를 의미한다.

신 문 섭

본협회 전 이사, 전 법제위원장, (주)대명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Sin Mun-seob, KIRA

못다한 이야기

- 정관개정에 대하여

Behind Story- revision in articles of association

지난 정기총회는 새로 신축된 회관에서 열린 의미 있는 총회였다.

이번 총회에서 제1호의 안건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몇몇 대의원들이 개정정관(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구체적인 문안 정리 없이 안건이 통과 된 것이다. 회장선거에 들떠있는 대의원들은 도무지 정관개정(안)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하여는 경청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일부의 대의원들은 지루해 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렇게 통과된 개정정관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지적 하니 앞으로 정관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글이 참고가 되어 정관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탄생한 전문가 집단이다. 건축사법은 우리 존재의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건축사법의 정신과 문안 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사법 제31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협회 설립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정관 제2조에 대한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전 정관에는 사법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설립목적을 강화한 데 비해 개정 정관의 목적에는 추상적인 목적 설정으로 사법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건축사협회 설립목적은 가능한 한 사법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정관 제7조(회원)2항 1호의 준회원과 4호의 참여회원, 5호의 학생회원에 관한 개정이다.

상기 준회원(미등록 건축사와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과 참여회원(건축 관계자 및 건축사보), 학생회원(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에 수학중인 학생)은 우리 협회에 입회절차를 밟지 않아도 회원이 되도록 되어있다. 정회원이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이 되는데 준회원과 참여회원이 입회절차 없이 협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회원은 승인과정에서 통과된 개정안과 다르게 개정 전 규정으로 정리됨)

제19조 (임원)중 비상근 부회장이 2인이 증원된 4인, 이사는 비상근 부회장 2인 포함 7인이 증원 되었다. 집행부는 제안 설명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거나 협회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인원의 증원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가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2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능률적 인가?

우리 정관에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수년간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 선출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이 회장선거의 표 몰이에 미끼로까지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개선택은 없을까. 차제에 이사를 회장과 패키지로 묶어 총회에서 함께 신임을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또 협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 이사제(예를 들면 총무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신문 및 건축사지 편집이사, 공제사업이사 등)를 도입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능률도 제고 하고 전문성도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 하였으면 한다. 부회장에게도 일정회무를 맡겨 협회의 업무도 파악하고 능력도 검증하여 차기 회장의 후보를 가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협회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 그리고 부회장은 지역적으로 안배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 왔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상근 부회장과 상근이사가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타당 한가 하는 문제다. 세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건축사협회는 개업건축사만으로 구성되도록 사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업건축사가 아닌 자가 등기 이사가 되어 건축사협회의 중요 사안들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 정신과 현실적인 문제에 합리적이나 하는 문제다. 일반 법인에서 사외 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31조 (위원회)를 검토해 보자.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8개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즉 8개 위원회는 꼭 설치하여야 하는 기본 위원회인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정관에는 건축위원회와 공제사업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금년 사업계획에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건축연구원을 운영하며, 건축문화 진흥사업 등을 하겠다고 예산 및 사업 승인 받았다. 이런 사업들을 어느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행

해 나가려고 기존 위원회를 폐지했는지, 사업은 추가하면서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위원회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9장 건축사회의 제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9장 전체를 폐지하고 가칭 “건축사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세칙을 각 건축사회에서 마련하여 사용하게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단체의 정관에도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 까지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정관과 같이 일부는 정관에 규정하고 일부는 건축사회 회칙으로 규정토록 함은 협회 조직의 일관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제55조 (회비 미납의 징계)의 제1항 3호의 징계(제명)권한을 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니 건축사회에서 3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모든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써만이 회원을 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정관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이런 정도로 언급하고 자구의 문제나 개정안으로 제안해서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건교부의 승인과정에서 승인받지 못한 조항, 사족같이 필요 이상으로 규정 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지적할까 한다.

제5조(사업)에서 제1항 제1호 ‘건축사 업무 개선 발전’ 과 제18호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 무엇이 다른지. 제5호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교육과 자격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이 승인과정에서 종전규정으로 환원되었고, 제15호의 ‘복리’ 를 ‘복지’ 로 바꾸어 통과되었다가 ‘복리’ 로 환원되었으며, 제20호 ‘남북건축문화 교류사업’ 도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제2항 ‘협회는 제1항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은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지(다행히 확정된 정관에는 통과된 2항이 삭제됨) 제3항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겠다고 규정한 것도 승인과정에서 삭제되었으니 총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확정된 정관 제2항 ‘협회는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6호 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과 제16조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윤리규약,.....공제규정, 제정 및 폐지)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불필요한 사족 같은 조항이 되는 것이다.

제8조(입회)제3항은 제6조(제 규정)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사족 같은 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9조(회원의 권리) 제2항의 규정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에서 제19조의 문제점을 논의 했듯이 이사회에서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문제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우리 건축사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하여 외부인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협회발전을 위하여 바람직 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외부 인사들의 활발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의욕을 북돋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3조(설치 및 구성)제3항 단서의 규정은 사족에 가까운 규정이다. 어느 단체나 어느 회의에서 본인과 관계되는 안건이 상정되는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는가?

제15조(총회의 소집과 구분) 제3항 단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감사 1인이 유고시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여 2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케 하고, 2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여야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해석은 감사가 총회소집권한을 가지면 감사가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제17조(성립 및 의결) 제3항 회장의 불신임을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는데 2/3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절반 이상의 대의원이 불신임했다면 과연 그 회장이 회원의 대표로서 회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제22조(임원의 임기)제2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그 직무를 ‘개시’ 한다. 라고 개정했는데 취임한 날이 개시일이고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기 때문에 ‘수행’ 한다. 라는 종전 문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며, 신설된 제5항(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도 사족 같은 조항이다. 너무도 당연한 사회의 불문율을 굳이 성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의 임기에서 왜 유독 위원들의 임기만 1년으로 하는지,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하고 매년 1/2씩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회장의 직선문제다.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만 각시도 건축사회 총회 시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것이 회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회장의 권위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이번 정관 개정 시에는 시기를 놓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의견을 내어 기록으로라도 남겨두고자 함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추후 정관 개정 시 참고하게 함이고 또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이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승인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되겠기에 과거 정관 개정에 관여했던 전 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이 글을 쓴다.

그리고 협회는 아무리 정관과 제도, 규정 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의 트인 생각과 멀리 내다보는 혜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의 등용이 있어야만 협회가 발전할 것이다.

끝으로 개정 정관이 통과되고 건교부 승인을 무사히 받으리라는 전제하에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안건들 중 정관 승인과정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안건의 근거가 상실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3회 이사회

2007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에 관한 건, 예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명예이사 위촉에 관한 건, 자문번호사 및 자문회계사 위촉에 관한 건,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세부운영방안과 건축사협회 중장기 혁신 전략연구' 용역시행에 관한 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운영에 관한 건, 총무이사 및 대변인과 외부기관 위원 변경에 관한 건 등의 부의안건과 비서실 설치 운영에 관한 건, 건축계 및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제안의 건 등의 협의사항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2007년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담당임원 선임에 관한 건
 -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보완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함.
 - ▷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위원회는 우선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운영하기로 함.
 - ▷위원장 및 담당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회의안 : 예비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회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 비상근 부회장 선임과 회장단회의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회장에게 위임함.
- 제4회의안 : 명예이사 위촉에 관한 건
 - 이근창, 장양순 전임임원을 명예이사로 위촉하기로 함.
 - 명예이사의 임기와 기존의 명예이사 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념과 타 단체의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여 부회장들

과도 협의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5회의안 : 자문번호사 및 자문회계사 위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회의안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세부운영방안과 건축사협회 중장기 혁신 전략연구' 용역시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7회의안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운영에 관한 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금은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임원 변경 및 추천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위임함.
- 제8회의안 : 총무이사 및 대변인과 외부기관 위원 변경에 관한 건
 - 회장에게 위임함.

▲협의사항

- 제1호 : 비서실 설치 운영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서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 ▷다만, 시·도건축사회 총회 참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계 및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제안의 건
 - 우리 협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건축계 전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기로 함.

▲기타사항

- 정기 이사회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을 원칙으로 하여 2007년도 이사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기로 함.
 - 2007년도 이사회 일정 : 4/17(화), 5/15(화), 6/19(화), 7/18(수), 6/19(화), 8/21(화), 9/18(화), 10/16(화), 11/20(화), 12/18(화)

2007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4일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어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입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하였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 안전사항 주요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15(목)
- ▷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37명 중 49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회의안 : 2006회계년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 2008년도 구건축사회 사무보조금 지원방안 승인의 건
 - 부결됨
 - 제4회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강희달
 - 간사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이복
 - 제5회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개선대상 대의원의 70%는 구건축사회에서, 30%는 회장단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의함.

■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2(목)
- ▷ 개최장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99명 중 24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회의안 : FY-2006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 FY-200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 업무대행규정 별표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회의안 : 회칙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기로 하되, 본협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문제되는 조항은 추후 개정기로 함.
- 제5회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정대복
 - 이사 :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이주권
- 제6회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수)
- ▷ 개최장소 : 인터볼고호텔 별관1층 목련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20명 중 275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회의안 : 2006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회의안 : 200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회의안 : 2007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회의안 :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원안승인
 - 제5회의안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 제정의 건
 - 부칙 제3조(제15대회장 임기조정)를 삭제, 가결되었으며 일부조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기로 함.
 - 제6회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이사 : 도원희, 임성영, 유흥재, 이정목
 - 감사 : 장명환
 - 대의원 : 김재우, 김학상, 박성연, 박은옥, 박종한, 서상봉, 손윤락, 신동습, 유흥재, 이택봉, 임성영,

장명환, 장 호, 최부영, 최용운, 최재현, 최혁준

■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7(화)
- ▷ 개최장소 : 로얄호텔 2층 영빈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1명 중 137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회의안 :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다만, 제14조 규정은 종전 규정대로 수정토록 함)
 - 제2회의안 : 경조비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다만, 총회자료의 착오기 재사항을 별지와 같이 정정토록하고, 부칙에 '규정 제정년도(2001년) 이후에 회갑 또는 고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기준의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 기준을 두기로 함)
 - 제3회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회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5회의안 : 회칙 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다만, 내용 보완하여 내년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함)
 - 제6회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감사 : 김학성
 - 이사 : 회장에게 위임
 - 제7회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기타사항 :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조치의 건
 - 징계보다는 납부 종용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방법 등으로 회비납부 여건을 주기로 함.

■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2(목)
▷ 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연회장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9명 중 166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김회현
- 부회장 : 정정철
- 이사 : 김동선, 김선채, 정은기
- 감사 : 조은식
- 대의원 : 김유지, 김용주, 김후진, 김 끈, 윤익상, 이창을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7(화)
▷ 개최장소 : 대덕컨벤션타운 3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02명 중 139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세출에서 18,000,000원 삭감하여 세출에서 계수 조정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정종태
- 부회장 : 이성희
- 이사 : 복기도, 양완숙, 오진식, 정하균
- 감사 : 박재일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14(수)
▷ 개최장소 :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르브르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07명 중 195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최광식
- 감사 : 이병술
- 이사(4인) : 회장에게 위임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기타사항 :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 불참금을 포함해 차후 단체행사 불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신임 집행부가 위임받아 결정하고 전회원에게 차후 통지키로 함.

■ 경기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수)
▷ 개최장소 : 경기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981명 중 286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6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본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

■ 강원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2(목)
▷ 개최장소 : 라데나콘도미니엄 1층 다이아몬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03명 중 106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불신임(제1회 임시총회(07. 4. 6)에서 김형욱 건축사님으로 선출함.)
- 감사 : 차기 회장 선출시 회장에게 위임
- 감사 : 조화진
- 대의원 : 김종길, 김찬일, 박길수(유임), 유기정, 이재춘, 정병거

■ 충청북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2(목)
▷ 개최장소 : 명암타워 그랜드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42명 중 137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홍보사업비 1,000,000원, 우수 공무원 포상 5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개선
- 회장 : 박대용
- 감사 : 박정걸
- 감사 :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 하도록 함.
-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 충청남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3(금)
- ▷ 개최장소 :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34명 중 111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복지회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복지회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신우식
- 감사 : 정광수
- 대의원 및 이사 : 회장에게 위임

■ 전라북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7(화)
- ▷ 개최장소 :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39명 중 117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 김주식
- 감사 : 김기수
- 간사 및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 전라남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0(화)
- ▷ 개최장소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청람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51명 중 82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예산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노경윤
- 간사 : 김영진, 김정현, 조성문
- 감사 : 조연준
- 제4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국원식, 김 정, 심우석, 윤순하, 이봉수, 장기태

■ 경상북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16(금)
- ▷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68명 중 305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경상북도건축사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회장 : 최용달
- 감사 : 고희림
- 지역회장 : 김삼한(영천), 류시복(문경), 박태현(군위·의성), 박종두(고령·성주), 이태중(청도), 장범규(영주)
- 간사 및 대의원 : 간사회의 및 지역 회장회의에서 선출기로 위임함.

■ 경상남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수)
- ▷ 개최장소 : 창원호텔 3층 목련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07명 중 290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2006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7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임원·대의원 개선 및 승인의 건
〈개선 및 보선〉
- 회장 : 김상부(신임)
- 부회장 : 김병욱(신임)
- 감사 : 강남규(보선 - 잔여임기 1년), 백창복(신임)
- 이사(4인)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4인)은 신임회장에게 위임
〈승인〉
- 지역건축사회회장(4인) : 지역건축사회에 위임(창원, 진주, 밀양, 하동 지역건축사회)
- 경남건축사회 대의원 : 지역건축사회에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0(화)
- ▷ 개최장소 : 제주KAL호텔 2층 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09명 중 58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제정(안) 승인의 건
- 일부수정통과
 - 제2호의안 :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영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일부수정통과
 - 제3호의안 : 임원선거규정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4호의안 : 2006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5호의안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6회의안 : 건축사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 임원회 위임
- 제7회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김영식(임기 2년)
 - 간사 : 강영준, 김기홍, 현균출
 - 대의원 : 백형철(신임)

위원회 회의

■ 제1회 국제위원회

제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건축사협회의 개최에 관한 건, 세계건축사연맹(UIA) PPC회의 개최에 관한 건,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세계 각 국에 보내는 메시지' 시행에 관한 건, 미국건축사협회(AIA)와의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건, 아카시아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한중일건축사협회의 개최에 관한 건
 - 금년도 한중일건축사협회의 일정을 '07.10.29(월)~11.1(목)로 하여 일본과 중국측의 의사를 타진하도록 요청함.
- 제2호 : 세계건축사연맹(UIA) PPC회의 개최에 관한 건
 - 회의장소와 호텔 등이 선정 되는대로 담당위원이 UIA PPC 위원장(Russell Keune, 미국)과 협의하여 세부준비 사항을 점검하기로 함.
- 제3호 : 2008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정식으로 ACA-13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들과 부산시 관계자 등과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와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 ACA-13의 주제와 주제 선정이유 및 배경에 대하여 정재욱 위원과 최재희

위원이 검토하여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세계 각 국에 보내는 메시지' 시행에 관한 건
 -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 경제적 수준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 대신, '07.10월 우리 협회의 주관하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UIA PPC 회의시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07.2.11~12 양일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106차 UIA이사회에서 이근창 아카시아회장이 사전 의사 타진을 해보았으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음을 보고함.

- 제5호 : 미국건축사협회(AIA)와의 교류 협력방안에 관한 건
 - '06.11.9~1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JIA총회에서 신춘규 위원장이 AIA회장에게 교류의사를 타진하여 구두로는 수락이 된 상태이므로 협회에서 공식 교류 요청서신을 발송하도록 요청함.
 - 다만, KIA-AIA간 최초 교류협정서에는 FIKA가 설립되면 FIKA-AIA로 전환기로 되어 있는 바, 최근에 재협정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
 - AIA총회('07.5.3~5) 참석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담당이사가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AIA총회에 참석할 경우, 등록비는 당사자가 부담
- 제6호 : 아카시아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건
 - 당초 구성(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국제담당 직원이 충원 되는대로 관련자료의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함.

■ 제2회 여성위원회

제2회 여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30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

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세부 계획(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세부 계획(안)에 관한 건
 - 2007년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시 : 2007. 5. 18(금)~19(토)
 - ▷장소 : 강원도(강릉, 속초)

■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3일 오후 4시분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건교부 검토요청(내진설계 관련, 정보통신 설계·감리 관련)에 관한 건, 워크샵 및 강연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건
 - 법제위원회의 사업추진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교부 검토요청(내진설계 관련, 정보통신 설계·감리 관련)에 관한 건
 - '07.4.4일까지 법제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 검토후 협회 의견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워크샵 및 강연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 워크샵 및 강연회는 '07.4.20~21일까지 1박2일로 개최기로 하고 행사 장소는 위원장에게 위임함.
 - 워크샵 행사시 최찬환 전문위원 및 윤혁경 전문위원이 법제도에 관련한 주제발표를 덧붙여 진행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건축관련법과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축사 교육에 필요한 테마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2007년 민건축 봄 건축강좌 시간의 켜 : 도시의 문화유산

이번 봄 강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 기억, 생활이 내재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함께한 '시간의 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와 건축에 관한 이야기기기에 앞서 이 땅에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계획되었다.

- 1강 : 3월 30일 - 도시재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갈등 / 윤인석(성균관대학교 건축과 교수)
- 2강 : 4월 6일 - 명동백작_극장 / 이창용(EBS PD)
- 3강 : 4월 13일 - 기억은 남고 철마는 달린다_간이역 / 임병국(열차사랑동호회 회장)
- 4강 : 4월 20일 - 목포의 눈물_목포 중앙교회 / 고석규(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5강 : 4월 27일 - 추억을 밝히는 불빛_청계천 조명 / 이연소(이연소 조명디자인연구소 소장)
- 6강 : 5월 4일 - 시간속의 순환버스_미술관 / 최 열(가나아트센터 기획실장)
- 7강 : 5월 11일 - 이 골목이 아름답다_홍대 앞 골목길 / 윤웅원(제공건축, 대표, 모임 서교365)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901호
- 문의 : 02-739-6854, <http://www.mingunhyup.or.kr>

제3회 정림학생건축상

'정림학생건축상'은 한국성의 발견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두해에 걸쳐 차분한 호응을 얻고 있는 학생 건축상으로서 첫째 '시적요소를 찾아서'와 둘째 해 '전통과 현대, 당신에게 있어 모던코리아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이어 '도시의 일상성'으로 여기

지금 현존하는 도시의 한 부분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성을 읽고 해석함을 주문한다. 책을 읽고 독해하듯 도시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심층적으로 읽고, 느끼고, 탐색하는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
- 응모일정
 - 질의응답 접수 : 2007. 5. 11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질의응답 회신 : 2007. 5. 18일 홈페이지를 통한 일괄회신
 - 참가신청접수 : 2007.6.25~7. 6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 1차 작품접수 : 2007년 7월 24일 오후 8시까지
 - 1차 발표 : 2007년 8월 6일
 - 2차공개심사 :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작품설명과 질의응답
 - 최종발표 : 2007년 8월 27일
 - 시상식 및 작품발표회 : 2007년 8월 31일
 - 수상작전시회 : 2007년 8월31일 ~ 9월 6일
- 심사위원 : 정기용 건축사(기용건축 건축사무소)
- 참가신청 : www.junglimfoundation.org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87-1 정림빌딩 정림학생건축상 담당자
- 시상내역
 - 대상 1점 : 상장 및 장학금 500만원
 - 우수상 2점 : 상장 및 장학금 200만원
 - 장려상 2점 : 상장 및 장학금 100만원
 - 입선작다수 : 상장 및 부상
- 문의 : 재단법인 정림문화재단
02-708-8861

2007 CUAL 충주 도시, 건축세미나 개최

우리협회 충주지역건축사회와 충주대학교 건축학과가 공동 주최로 '2007 CUAL 충주 도시, 건축세미나(2007 Chungju Urban Architectural Lecture)'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도시,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합의 구성', '초고층 APT 구조설계사례', '21C 건축이 바라는 것' 등의 주제로 개최된다.

- 집합의 구성-김영준(주. 김영준도시건축 대표이사)
 - 일시: 2007. 4. 9(월) 오후 4시
 - 장소: 충주대학교 종합 강의동 1층 시청각실
- 초고층 APT 구조설계사례-금동성(주. 삼우구조건설컨트대표이사)
 - 일시: 2007. 5. 3(목) 오후 4시
 - 장소: 충주시청 10층 회의실
- 21C 건축이 바라는 것-도창환(한국건축가학교 총괄교수)
 - 일시: 2007. 6. 4(월) 오후 4시
 - 장소: 충주대학교 종합 강의동 1층 시청각실
- 문의 : 충주지역건축사회
043-223-3084~6

4월의 건축환경문화에 '종묘'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의 하나로, 삶과 죽음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최고의 고전건축인 '종묘'를 4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했다.

'종묘'는 조선 역대 임금들의 신위를 모신 왕조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며, 건축·환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원로건축이다. 특히, 종묘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해 서울시민들에게는 공원으로,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현재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상징이었

던 '종묘'는 국가 최고의 고급건축임에도 화려하지도 현란하지도 않다. 마당은 거칠게 다듬어진 돌들을 불규칙하게 깔았으며, 벽의 문은 모양새 없이 육중한 널판문을 달았다. 문양도 없는 단청을 하는 등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

이 단순함과 소박함은 기술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나온 것은 아니다. 고도로 계산된 단순함이자 세련된 소박함이다. 일반 건물보다 크고 무거운 정전의 기와지붕은 중력을 거부하고 마치 기단위에 떠 있는 듯하다. 장식이나 기교에 의해 자기를 돋보이려하지 않고, 건축의 근원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추상적 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최고의 고전 건축이다.

4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종묘'가 선정된 것에 대해 건설기술·건축문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공간들을 완벽하게 해석한 동양적 건축원리를 통해서 숭고한 신전건축의 세계를 창조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031-436-8900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 및 디자인 공모계획

한국토지공사, 8개 관련 학회 및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신문과 삼성이 후원하는 '2007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 및 디자인 공모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논문부분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메타연구'와 '낙후지역 개발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교 연구', 전통적 방식의 마을개발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 범위와 방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주민생활 밀착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 '기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등 6개 사례를 참조하여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그리고 디자인 부문은 9개 기본모델과 특화형 예시를 참고하여 마을 표지판, 공원, 하천, 녹지, 광장, 정류장, 가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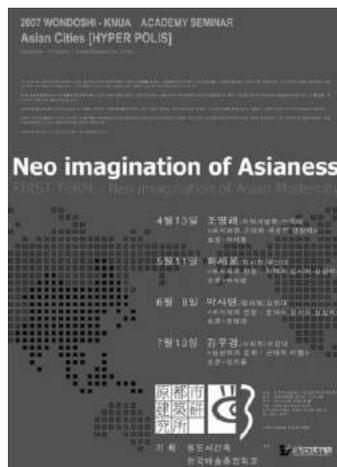
우편함, 우체국, 주택, 학교 등 마을의 주요 구성요소를 디자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9개 기본모델은 향후 자치단체가 지역만들기를 추진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행사부에서 개발한 9개 테마별 모델 유형으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등이다.

- 공모일정
 - 공모기간 : 2007. 2. 20(화)~ 4. 27(금)
 - 접수기간 : 2007. 4. 23(월)~ 4. 27(금)
- 심사일 : 2007년 5월 9일(수)까지 완료
- 심사발표 : 2007년 5월 10일(목)
- 시상내용
 - 최우수상(2) :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상금 각 200만원)
 - 우수상(8) :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서울신문사 사장(2개부문 구별 시상/상금 각 100만원)
 - 장려상(8) : 8개 학회장(4개학회 : 논문, 4개학회 : 디자인/상금 각 50만원)
- 문의 :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연구기획실
금정훈 031-269-9600,
crew@hanmail.net

2007원도시건축+한국예술종합학교 세미나

■ Asian Cities [HYPER POLIS]



원도시건축+한국예술종합학교 세미나 (2007Wondoshi-KNUA Academy Seminar)는 원도시건축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주관하는 공개 교양강좌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건축과 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 예술, 과학 등의 광범위한 영역의 저명한 강사진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된다.

- 주제 : Neo imagination of Asian Modernity
- 코디네이터 : 이종호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원도시 건축
- 일정
 - 4월 13일 : 아시아의 근대와 새로운 상상력 / 조명래 교수(단국대 지역개발학) / 토론 : 하세봉
 - 5월 11일 : 아시아의 전망_지역과 도시의 상상력 / 하세봉 교수(부산대 역사학) / 토론 : 박사명
 - 6월 8일 : 아시아의 전망_문화와 정치의 상상력 / 박사명 교수(강원대 정치학) / 토론 : 조명래
 - 7월 13일 : 상상력과 문화_근대의 이행 / 김무경 교수(서강대 사회학) / 토론 : 정기용
- 문의 :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02-543-4977,
www.wondoshi.co.kr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 Public Space, Public Force, Public Imagination
- 프로그램 : Shopping
- 심사위원
 - 라울 분쇼텐(Founding Director of CHORA, Architecture and Urbanism)
 - 박연심(건축사사무소 장원 대표)
-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대학원(석사) 재학생(휴학생 포함), 1팀 3인 이내
- 시상
 - 대상(1팀) : 상금 500만원, 상장, 상패
 - 최우수상(1팀) : 상금 200만원, 상장
 - 우수상(3팀) : 각 상금 100만원, 상장
 - 입선작(다수) : 각 상장, 월간공간 1년 정기구독권
- ※ 대상 수상자는 공간건축 입사 기회 부여, 수상자는 지원 시 가점 부여.
- 일정
 - 세미나 : 2007년 4월, 6월(예정,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 참가신청 : 2007년 8월 31일까지
 - 작품접수 : 2007년 9월 12일(현장접수 오후5시까지, 우편접수 당일 도착분까지)
 - 1차심사 결과 발표 및 공개심사 공지(입선 이상) : 2007년 9월 19일
 - 공개심사 및 시상식 : 2007년 10월 5일
 - 수상작 전시 : 2007년 10월 8일~10월 12일
- 문의 : 02-3670-3633,
www.space-priz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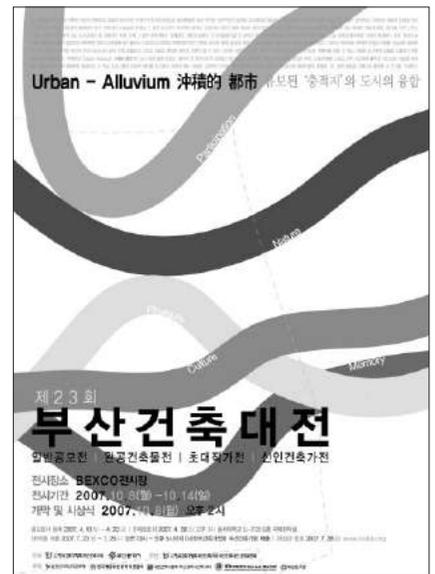
2007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대한건축학회는 친환경 건축과 조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을 제정하였고, 올해 제2회의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저명 친환경 건축가이자 조경가인 이교원 선생이 희사한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 상은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작품을 창작한 공적이 뛰어나거나, 건축·조경·생태환경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추천은 5

월 18일(금)까지 받으며, 환경건축 및 조경부문의 종사자 또는 연구자이면 가능하다.

- 시상부문
 - 환경건축대상 1인 : 최근 5년 이내 시공이 완료된 작품 중, 탁월한 친환경 건축작품을 창작한 자(조경은 참고사항임) / 상패, 상금(1천만원)
 - 조경대상 1인 : 최근 5년 이내 시공이 완료된 작품 중, 탁월한 친환경 조경작품을 창작한 자(건축은 참고사항임) / 상패, 상금(1천만원)
 - 논문상 1인 : 최근 3년 이내 수록된 국내외 학술논문 중 건축·조경·생태환경 분야의 우수논문 주 저자 / 상패, 상금(5백만원)
-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 후보자는 환경건축 및 조경부문의 종사자 또는 연구자이어야 한다.
 - 후보자 중 일정 자격수준, 혹은 수상공적이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상대상자로 선정 및 수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07년 5월 18일(금)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
 -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자천 : 교수 및 설계사무소, 조경사무소의 대표자는 자천 가능함.
- 시상 : 2007년 6월 29일(금)
- 문의 : 대한건축학회 사무국
02-525-1844,
www.aik.or.kr

제23회 부산건축대전



부산광역시와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가 주최하는 '제23회 부산건축대전'은 「"Urban-Alluvium : 冲積的 都市 - 유보된 '충적지'와 도시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점유하고 있었던 하야리아 부대가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됨에 따라 부각된 미군주둔지 일원의 도시재정비 필요에서의 제안이다.

주제어인 "Urban-Alluvium : 冲積的 都市"란 도시 내에 묻혀 있었던 '충적지'인 하야리아의 오래된 가능성들을 성찰하고, 이를 과거와 현재, 중심과 주변, 느낌과 빠름 그리고 선적 시간에서 충적의 시간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도시에 생명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건축적 제안을 요구한다.

- 개념적 단서들 : 건축, 도시, 자연의 연결방법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제안
 - 공원, 도심, 교통망 등 도시의 다양한 선들과 영역들 간의 새로운 융합과 가능성 발굴
 - 도시 내부로의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도시구조
 - 독창적인 공간, 구조, 프로그램, 형태 제안
 - 부전천, 전포천, 공원녹색공간을 아우르는 생태축
- 실리적 단서들 : 공원과 연계된 계획
 -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주상복합용도

도입 계획이라는 현실에 대한 고려
- 철도, 지하철, 경전철, 간선도로망 등 교통망이 연결된 부산의 내륙 관문으로서의 시설물 제안

- 도심재생 및 도심기능 부여를 위한 새로운 도심코어 모델

• 대상 대지

- 서면 일대 <홈페이지에 게재 - 종합계획구역 내>, 홈페이지 게재 지도는 실제 도시계획 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대지선택은 공원과 접해야 하며, 제안 아이디어는 반드시 공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 부산시민공원(구 하야리아 부대 부지)은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계획 내용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방법 : 1,2차 예선심사 및 본선공개심사

• 시상내용 : 대상 1점(부산시장상), 우수상 3점, 특선 5점, 장려 7점 이내(이상 입상작 건축가회장상), 특별상 2점, 입선 다수

• 1차등록 : 04.10(화) ~ 04.20(금)

• 주제토론회 : 04.28(토) 오후3시 / 동서대학교

• 1차 작품제출 : 07.23(월) ~ 07.25(수)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사무국 제출

• 1차 결과 발표 : 07. 28(토)

• 2차 등록(1차 예선 통과자에 한함) : 08.01(수) ~ 08.03(금)

• 2차 작품제출 : 09. 28(금)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시간의 패널티 있음)

• 2차 결과 발표(공개심사대상자) : 10. 01(월)

• 공개심사 : 10. 02(화)

• 당선작 발표 : 10. 05(금)

• 시상식 : 10. 08(월) 오후 2시 / BEXCO 전시장

• 작품전시 : 10. 08(월) ~ 10. 14(일) / BEXCO 전시장

• 문의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0502-555-4455, <http://www.kiabb.org>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창립 제29주년 기념 '선진사랑 청계천 걷기대회' 행사 개최



1978년 4월 15일에 문을 연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주)는 올해 창립 제29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진사랑 청계천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13일에 열린 이번 선진사랑 청계천걷기대회'는 각 부서 소속 전 임직원들이 참여해 청계광장부터 신답철교까지 이어지는 약 6km의 코스를 함께 걸으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랜만에 사무실을 벗어나 봄기운이 완연한 청계천변을 걸음으로써 선진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킨 동시에 내년엔 30주년을 향한 힘찬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또한 이날의 행사에서는 '선진사랑 청계천걷기대회 사진공모전'이 아울러 개최되었는데, 임직원들이 행사 당일 참가하여 직접 찍은 사진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전 임직원들이 직접 투표하여 최종 당선작을 가리게 된다. 비록 전문가가 아닌 순수 아마추어들의 사진이지만 동료애와 애사심이 담긴 이 작품들은 선진의 역사를 담은 기록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지며, 사내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분야별 전문가 조직의 구성과 각 조직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활발한 해외 진출로 그 역량을 넓혀가고 있으며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문의 : 02-6333-3384, <http://www.sunjin.co.kr>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9-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지역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지역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85-8587 · 창녕지역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건축

최근 건축에서 환경 문제가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그리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예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적 고려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설계의 기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의미를 점점 더 갖고 있으며, 건축에서의 의미에 대한 탐구기사가 Architectural Record에 실렸다. 이 내용은 AIA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다. 탄소 배출에 대한 개념 및 다양한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 최소화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건축 실무에서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유엔은 지구 온난화가 '명확'하다고 경고하였으며, 화석 연료가 주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 주제에 관한 보다 심도 높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도 이 주제에 관련하여 건물 디자인과 실무에서의 영향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큰 의미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도적 입장으로 자신의 사무소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무기구와 조명기구의 사용, 센서를 이용한 조명 제어 등의 건물 디자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비즈니스 여행을 없애 교통관련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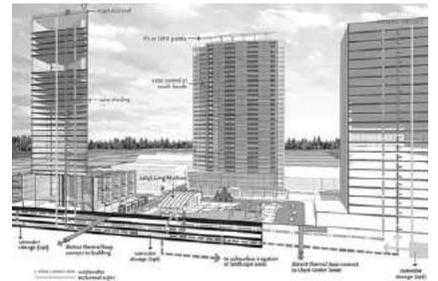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과 함께 탄소 배출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삼자를 통한 투자의 형태로 진행되며, 나무의 식재,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시설로의 투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탄소배출 보상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들은 그린하우스 가스 생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필요로 한다. 현황조사는 종이와 토너 등의 외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사무용품 생산과 배달에 소요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파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전기의 사용과 냉난방 관련 연료,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여행에서의 탄소 소비량만을 한정하여 계산하고 있다. 정확한 탄소 소비량 계산을 위한 정확한 모델 개발이 아직 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회사는 세계 비즈니스 카운슬과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www.ghgprotocol.org).

탄소배출 제로



버트 그레고리에 의한 포틀랜드 도심 재개발 계획안.
Lloyd Crossing, Portland, Ore



미튼은 도심 재개발 계획에서 무탄소 배출이 가능한 종합 계획을 세웠다.

사람은 하루 평균 2.2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단지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제거의 순환과정에 속해 있다. 미국인의 경우 오늘날 1인당 약 44,000 pound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추정되며, 이는 세계의 1인당 배출량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인간이 숨쉬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채소를 먹으며, 이는 탄소를 가라 앉히는 효과를 가져 온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우리가 만드는 건물과 도시 등은 우리 생활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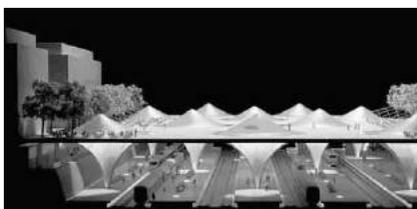
버트 그레고리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에 관한 전문 건축 및 계획 사무소 '미툰'의 대표이다. 그의 작품인 미툰의 로이드 크로싱 프로젝트는 2004년에 수행되었으며, 오레곤 포틀랜드 도심의 쇠락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만약 이 54 acre 크기의 대지가 인간에 의하여 개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산화 탄소가 매년 얼마나 흡수되고 방출되기에 대한 에코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였다. 재 개발 계획에서 이를 기준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평형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 AIA 상을 수상하였으며, 탄소 중화적 디자인을 정의하는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www.mithun.com)

제로 에너지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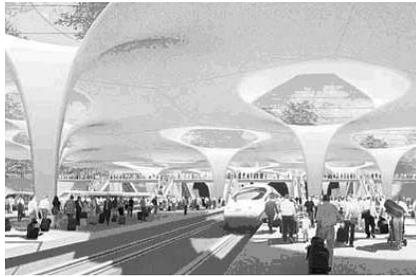
미국 냉난방공조학회는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는 2006년 저널 (www.ashrae.org)에 기술되어져 있다. 정의는 넷 제로 소스 에너지, 넷 제로 사이트 에너지, 넷 제로 에너지 비용, 넷 제로 에너지 배출 등 4가지로 건물에 대한 개념으로 세분화 되었다. 넷 제로 소스 에너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이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소스를 비교한다. 넷 제로 사이트 에너지 개념은 건물 사이트의 영역 내에 에너지 사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넷 제로 에너지 코스트는 사이트에서 생성된 에너지와 구입한 에너지 사이의 균형 관계를 나타낸다. 넷 제로 에너지 방출의 개념은 전체 건물의 에너지 요구에 맞도록 파워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측정한다.

넷 제로 사이트 에너지

독일 듀셀도르프 기반 회사인 인젠호벤 건축사사무소는 스투트가르트 중앙역의 넷



인젠호벤 건축사 사무소에 의하여 제로 에너지 개념으로 계획된 독일 스투트가르트 중심의 역사.



무탄소 개념으로 제작한 헤이워스사의 의자

제로 사이트 에너지 부분에서 당선되었다.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정류장의 확장 작업 그레이드를 위한 공모전이었다. 당선작은 지하 부분에 기차 선로, 공공 공원, 그리고 일부 내부의 순환 공간을 지붕으로 덮고 있다. 빛의 눈이라고 불리는 28개의 창이 있다. 지하 역을 밝히며, 또한 배출 공기를 안정화 하고, 비상 상태에서 연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커뮤니티 컬리지 지역은 넷 제로 사이트 에너지 정책을 만족하는 캠퍼스 개조 계획을 세웠다. 아홉 개의 캠퍼스를 바꾸는 야심찬 계획으로 9백만\$의 에너지 비용을 없애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개선, 절약, 그리고 생산의 3단계를 계획하였다. 첫째, 이 지역에서 작은 유지 비용을 위한 중앙 플랜트 모델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제 3자 계약자와 계약을 통한 캠퍼스의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한다. 센서의 사용과 보다 낮은 단열 등과 같이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한다. 에너지 절약 비용을 이들 서비스 업체들에게 지불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기본적 전략을 바탕으로 9 mega Watt 태양열 발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무탄소 생활

대규모 프로젝트와 달리 제로 에너지 주택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여 성장하는 시장이다. 2006년 2월 NREL은 주택협회를 위한 보고서에서, 제로 에너지 주택이 2012년 경에는 주거 건물의 주된 경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http://www.toolbase.org/pdf/casestudies/zehpotentialimpact.pdf>). 2050년에는 단독 주택 분야 전기 수요의 17%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재료와 에너지

임베디드 에너지와 탄소의 개념은 시공 재료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인젠호벤은 구조적 해결책을 시험하기 위하여 단순한 모델로부터 스투트가르트 정거장 디자인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을 최소화 하고자 14인치 보강 콘크리트 슬라브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에 사용되는 높은 이산화 탄소 배출 요인을 줄이고 있다.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은 도전을 의미하며, 건축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에 대한 효과 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는 지난 11월 보다 강화된 에너지의 사용과 적정화에 의한 LEED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50퍼센트 감축 될 수 있도록 상업적 건물에 대한 인증 기준을 바꾸어 적용할 예정이다.

무탄소 개념으로 제작한 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따라, 배출량 거래시장을 위한 가구와 자재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 가구시스템 제작사 헤이워스는 작년 말 업무용 의자가 '플래닛 포지티브'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품은 런던의 환경 및 건물 엔지니어인 가이 배틀의 작품이다. 그는 이 의자가 발표되기 전부터 공동작업을 통하여, 이 회사 다른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달과 제조 과정을 감독하여 왔다. 가이 배틀은 '디카본 8'이라는 자재를 개발하였다. 이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 자

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산화탄소 보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절감 부분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자재는 윌리엄 맥도너 연방건축사와 화학자 마이클 브라운가트가 만든 요람에서 요람까지의 원칙에 따른 인증을 이미 획득하였다. 이 인증 프로그램은 자재가 생산으로부터 분해되기까지의 요소들, 혹은 재사용되기까지의 요소들을 분석하며, 제조과정에서의 에너지와 수자원 사용의 양을 측정한다.

AIA 회장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 새로운 에너지 소비 기준 필요성

AIA 회장 RK 스투어트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주제에 관하여 에너지 및 천연자원 상원위원회의 부위원회에서 증언을 하였다. 그는 건물이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가 연방 건물에 대하여 엄격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요구조건에 관한 법을 제도화할 것을 추천하였다. 특히, AIA는 연방정부에서 지을 새로운 건물과 리노베이션하는 건물, 그리고 임대하는 주요 건물들은 2003년에 유사한 건물이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사용을 즉시 5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2010년에 이 목표는 60%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목표는 그 후 5년 간격으로 2030년까지 상향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새로운 연방정부 건물과 개보수한 건물은 탄소배출이 없는 건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공 환경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건물이 설계되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AIA 의장인 RK 스투어트는 증언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친환경적 연방정부 건물

샌프란시스코에 고층건물로 에너지 사용과 자원의 사용을 줄이며, 거주자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연방정부 건물이 들어섰다. 그 형태는 매우 도발적이며 마치 거대한 종이접기 작품과 같이 콘크리트 프레임 위로 스텔

인레스 스틸 패널이 자리잡고 있다. 18층의 주동과 4층의 부속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한 재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디자인과 환경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새로 지어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정부 건물. 형태의 독특함과 함께 친환경적 설계의 좋은 예이다.

주동 내부는 환경적 고려를 통한 인간적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사용을 50% 이상 절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주동의 각 바닥으로 주광이 비치도록 되어 있다. 창문은 작동이 가능한 크기로 통기를 고려하고 있다. 구멍난 철재 패널을 사용하여 태양광을 필터하고, 열을 막아주는 버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열 필터의 작용과 눈부심을 막아준다.

건물의 보안을 위하여 창문이 없는 콘크리트가 보도를 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입구 부분을 두꺼운 유리로 설계하였다. 광장 주변에 작은 콘크리트 바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동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가장 매력적 공간은 11층의 스카이 가든으로 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 3개 층의 높이며 개방된 공간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입구에서 공항에서와 같은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2007 AIA 시상

AIA는 2007년 건축, 실내, 그리고 도시 디자인 부문에 대한 우수상 29개 작품을 발표하였다. 우수상 선정에는 외적 요소, 내부 공간의 질, 대지에 대한 고려, 환경적 요소, 사회적 관련성들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과거에는 환경적 민감성의 요소를 특수한 항목으로 다루었으나, 현재 미국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실내 공기의 질, 그리고 조명 디자인이 이들 프로젝트들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이 상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기술적 주제를 넘어 그들의 환경적 인식을 역사와 사회적 문맥, 그리고 건물 거주자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부여 등으로 확장시킨 것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의 바이오의학 과학 연구빌딩의 경우 폴색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의과 대학의 새로운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기능적이며, 환경적인 역할 모두를 행하는 경우이다. 곡선의 형태로, 이중 유리 커튼 월은 최대한의 주광의 침투와 보다 낮은 온도적 안락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의 아트리움은 기다란 평면에 의하여 분리된 건물의 사용자들 간의 상호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3XN의 음악당 건물 네델란드 건축상 수상



3XN에 의하여 설계된 2006 네델란드 건축상 건물

2006 네델란드 건축상이 발표되었다. 지난 2월 네델란드 건축사 '3XN'의 수석 건축사 킴 하포스 닐슨은 2006네델란드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2006년 최고 네델란드 건축물에 수여되는 것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다. 수 백개의 프로젝트가 선정 대상이었으며, 재료, 시스템 등 6개 분야에서 19개의 작품이 후보로 지명되었다. 건물 부문에서는 5개의 작품들이 지명되었다. 최종으로 덴마크 뮤직계보우 건물로 결정되었다. 이 뮤직계보우 건물은 3XN의 첫 번째 국제 프로젝트였으며, 고객과 사용자들이 마음과 와 닿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건축적 완성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덴마크의 상징적 건물이 되었다.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와 아부다비 당국자는 2012년 개관 예정인 새로운 뮤지움에 아부다비측이 루브르라는 이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 문화부장관 르노 돈디의 드 바브레는 이에 대한 대가로 30년간 10억 €의 재정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루브르 박물관 이름의 라이선스로 4억 €을 받기로 하였다. 아부다비는 프랑스에 새로운 예술연구 센터에 기부금을 내며, 샤토 드 퐁텐블로 극장의 복원을 돕기로 하였다. 반면, 루브르는 파리 루브르에 고 아부다비 지도자와 현 에미레이트 대통령을 기념하는 층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한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베를린의 뮤지움 담당자 클라우스-디에터 리만은 아부다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름을 주고, 또한 그 소장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국가 보물에 대한 상업화라고 비판하였다. 아부다비 사막한 가운데 인공적인 세계적 예술 수도를 만든다는 것은, 일부 부유한 여행객만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이 같은 시도는 국제적 문화의 교류에 어떠한 공헌도 하지 못할 것이며, 루브르는 또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정하여진 전략으로 일반 회사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문화적 내용과는 관계 없이 재정적 이득은 뮤지움을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 물품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루브르가 새로운 프랑스의 문화 정책으로 구겐하임의 전략을 따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박물관들 간에 예술품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부패시키는 것이며, 전문성과 작품에 의하여 교환하는 전시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였다.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아부다비 뮤지움에 루브르의 이름을 일정 기간 빌려주며, 또한 국가적 소장품을 빌려 주겠다는 프랑스의 계획은 그간 많은 반대를 불러 왔다.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을 저당 잡히는 꼴이라는 반대의 서명 운동에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였다.

프랭크 게리, 그의 첫 작품에 대한 증축

미네소타 대학은 프랭크 게리가 미국에서의 첫 작품인 예술 뮤지움을 확장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게리는 미시시피 강이 내려다보이는 미네아폴리스 캠퍼스 동쪽의 와이즈먼 아트 뮤지움에 \$1,000만의 증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안은 조만간 공개될 것이며, 올해 말 착공되어 2009년 완공이 될 것이다. 증축 부분은 기존 면적 47,000ft²의 25% 가량에 해당하는 11,000ft²의 규모로 결정되었다.

게리는 이 작품은 미국에서의 첫 작품이자 그에게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시작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93년에 완공되었으며, 회고하여 보면 미완성의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확장을 위하여 750만\$을 이미 모금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기금 모금이 추가 될 것이다. 세 개의 갤러리가 도자기류, 종이 위의 작품, 사진,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회화를 위하여 추가될 것이다. 강을 내려다보는 40석의 카페가 추가될 것이며, 이는 이 건물이 지니지 못한 아늑함을 추가할 것으로 1,430만\$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마드리드 테러 희생자 모뉴먼트



3월 11일 마드리드 열차 폭파테러 희생자를 위한 모뉴먼트

마드리드 열차 폭파 사건이 일어난지 3주년을 기념하여 30ft 높이의 유리 모뉴먼트가 192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개막식에 스페인 국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5분간의 묵념을 하였으며, 이 모뉴먼트의 내부를 둘러 보았다. 그 안에는 이 테러 이후 사람들에게 의하여 남겨진 수천개의 메시지들

을 담고 있다. 개막식은 스페인 국왕과 공주와 함께 마드리드의 아토차 역에서 열렸다. 이 모뉴먼트의 내부는 11m 높이의 원통형으로 수천개의 유리 블록으로 되어 있다. 이 블록에는 192명의 희생자의 이름과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비난하는 메시지들을 새겨 놓았다. 이 이벤트에서는 연설이 없었다.

발코니 창 - 블룸 프레임



발코니창 블룸 프레임이 열리는 모습

블룸프레임은 혁신적인 창문 프레임으로 발코니로 변형될 수 있는 제품이다. 동적 발코니인 블룸프레임은 사용자들이 유동적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룸프레임 창문의 개방은 외부로 나아가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다. 단순한 움직임으로, 빛, 공기, 그리고 공간이 확장된다. 블룸프레임은 새로운 개념의 3차원적 창문 프레임이다. 이는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로 확장할 수 있다. 건물 창문으로써의 몇 개의 블룸프레임의 설치는 멋진 파사드를 연출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기후의 형식은 파사드의 미를 결정하게 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건물은 변화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파사드가 닫혀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봄에는 마치 꽃과 같이 건물을 열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적 발코니 창문 프레임은 네델란드 암스텔담의 건축사 호프만 듀자딘에 의하여 설계되고 특허를 받았다. 네델란드 베릴호벤의 혁신 제벨테크닉의 연구개발 부서가 이와 같은 디자인 개념을 기능적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동적 발코니는 도심 밀집 지역에서 콤팩트한 아파트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평적 표면에서의 변화는 외부 테라스 공간을 확장한다.

전시 및 신간

생태학자를 위한 주택 전시회



생태학자를 위한 주택 공모전의 수상작 에스킨 하우스

시카고 건축 재단에 의하여 '생태학자를 위한 주택'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2006년 그린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전시한다. 환경적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의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으나, 이 공모전의 경우 미적 요소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전시는 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건축의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공모전은 서부 버지니아의 국립보전훈련센터의 위치에 친 환경적 삶을 위한 거주에 관한 혁신적인 환경과 미적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이 전시는 AIA의 환경 위원회와 디자인 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파워하우스, 뉴욕에서의 주거 전시회

파워하우스는 사람과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 정책에서 뉴욕 도시에서 거주 가능성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다. 뉴욕시의 새로운 주택 뉴욕 유산 프로젝트(New Housing New York Legacy Project(NHNY))에 의하여 기획된 디자인 공모전의 결과를 전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뉴욕에서의 거주를 위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전시회는 공모전의 결과와 함께 중저소득의 뉴욕 거주민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뉴욕시의 노력과 함께 도시에서의 미래 주택에 관한 전시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2004년 공모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의 두 단계의 콘테스트 시행 결과를 전시하고 있다. 뉴욕

시가 기부한 40,000ft² 면적에 4.3백만\$의 가치의 브론스 대지 위에 당선안을 기반으로 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에 관한 내용이 전시되고 있다.

존 소안의 건축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 세계 건축의 비전



뉴욕의 중저층 사람들을 위한 주거 전시회

존 소안 경 뮤지움은 세계 건축의 비전에 관한 전시를 한다. 존 소안 왕립 아카데미 강좌와 함께 4월 28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전시에는 1809년으로부터 1820년에 걸쳐 왕립 아카데미의 강의를 위하여 그려진 소안의 그림을 전시한다. 이 유채화들은 그의 연구실의 학생들에 의하여 그려졌으며, 선사시대의 건축물로부터 최신의 리젠시 런던 건물에 이르기까지 소안의 건축적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전시회이다.

1806년 왕립 아카데미의 교수로 임명된 이후, 소안은 매년 새로운 강의 시리즈를 준비하였다. 1,000개의 수채화 그림을 통하여 소안의 이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들 그림들은 소안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학생들에 의하여 그려졌으며, 강의에서 세계 건축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들 그림들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표적으로 건축 분야의 책으로부터 그린 작품이 있다. 두 번째로는 런던의 많은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에 의하여 그린 작품들이다. 세 번째로는 소안의 디자인과 그의 수집품에서 선대 건축사들에 의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다. 소안이 그 당시 주요 건

축사들의 작품들을 그려 놓았다. 재미 있는 사항으로 그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내쉬의 작품을 하나도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질투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한편 그의 내쉬에 대한 저평가의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도시화의 위기 이벤트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사회는 도시 계획의 방법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통적 도심으로부터 인구가 이동하는 것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하여, 프랑스 연구 기관인 지속가능한도시개발사(PIDUD)는 비엔날레 이벤트를 프랑스와 독일의 협동으로 '도시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다양한 시대'로 2007년 1월 시행하였다. PIDUD는 다제간의 프로그램으로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제적 비교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으로 가기 위한 조직이다. PIDUD는 법적,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지원하며, 도시에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다. 공공의 결정 사항들이 도시 관계자들과 논의가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 이벤트에서 물, 인구, 녹색지역, 주택, 그리고 도시의 다른 주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을 예측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12가지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관점이 현재까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계획가의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의 복잡성을 다룰 시간적 여유가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CABE의 좋은 공공 공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 공간의 디자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지역사회가 고품격 디자

인에 대한 요구를 통하여 공공 공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 드는 일련의 케이스 스터디를 포함하고 있 어, 여러 케이스로부터 좋고 나쁜 경험을 살 리도록 하고 있다.

스페이스 웨이퍼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 다. 이 모델은 공공 공간의 질을 평가하는 도 구로 공공 공간의 운영자나 사용자 모두의 관점에서 공간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공 공 개발의 경제성과 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공공 공간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발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장기적 생각과 커다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이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공공 공간의 개발에 있어 과거보다 약간 좋은 공간의 요구가 아닌, 가장 좋은 공 간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질 수 있는 도 구로 사용되기 위함이다.

시간도서: 21세기의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공간은 현재 많은 창조적 분야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구와 제품 디자인이 전통적인 산업과 실내 디자인 분야 에서 주도 되었다면, 현재는 그래픽 디자인 의 시각적 문화와 첨단기술 제품에 의한 영 향을 받고 있다. 가구와 실내 분야에 대한 새 로운 영향은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 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 은 실내 디자인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이해 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디자이너, 예술가 그리고 건축가의 최신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 다. 환경으로써, 예술 작품으로써, 성장하는 디지털 유기체로써, 변이의 물체, 그리고 부 품으로써 가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내부 공간의 새로운 복합적 본성 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으며, 주택이 이제는 예술의 분야로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공간 내부에서 가구들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다제 간의 작업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가 설계한 탁자나, 그래픽 디자 이너에 의한 부드러운 가구, 그리고 산업 디

자이너에 의한 개념적 예술작품들을 볼 수 있다.

게이트웨이 국립공원 공모전

반알렌재단과, 국립공원 보호협회, 그리고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은 게이트웨이 국립공 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 다. 게이트웨이는 1972년 10월 27일 처음으 로 도시 인근의 국가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옐로우 스톤이 처음 국가 지정 공원으로 지정된지 100년만의 일이다. 35년 후 게이트웨이는 그 창시자의 꿈을 실 현하기 위하여 그 주변 환경의 커뮤니티와 원 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이는 역사적 보 존이라는 목표와 환경적 보호와 활성화된 레 크리에이션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이번 현상은 26,607 acre 면적의 뉴욕으 로부터 뉴저지에 이르는 항만으로부터 해변 에 이르는 사이트이다. 공모전의 주제로 게이 트웨이는 지속적으로 도시화 되어가는 현상 에 대응하여, 국가 공원의 역할을 재개념화하 는 국제적 모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과학, 디자인과 정치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며, 건 조환경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지킴이의 역할을 재 정의하며 문화적 보호를 현재적 도시 개발 패턴과 필요에 맞도록 조정 하여야 한다. 게이트웨이의 비전을 재 정의한 다는 것은 오늘날 국가 공원의 중요성에 관하 여 이야기 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확장 일로 에 있는 도시와 복잡한 이코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맥그로 힐사,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스위츠 카타로그 모델 제공

맥그로 힐사는 건축 자재들에 대한 스위 츠 3D 모델을 구글 스케치업 형식으로 출간 을 하여 건축사들이 초기 설계 과정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맥그로힐 사는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건축사와 엔지니어를 위

한 건축 자재들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제공한 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빠르고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전문적 3D 제품 정보를 주도하고 있다.

스위츠3D 제품 목록을 3D 모델로 제공함 으로써 건축사는 개념 설계 과정에서 특정 제품의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과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구글 3D 웨어하우스의 스위츠 3D 제품군들에는 아사 아플로이 문 보안회사, 센트리아 건축 시스템, 듀퐁 빌딩 이노베이 너, 월볼 등 다양한 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 스위츠3D 컬렉션은 <http://sketchup.google.com/3dwarehouse/> 에서 볼 수 있다.

스위츠3D 컬렉션에서 제품을 찾기 위하 여는 현재의 스위츠의 인덱스를 이용하거나, 키워드 혹은 회사 명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의 3D 웨어하우스에서 건축사와 엔지 니어는 스위츠 웹사이트의 생산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제품 정보를 얻고, CAD 데이터, 시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글사 '3D 캠퍼스 만들기' 공모전

구글사는 '3D로 캠퍼스 만들기' 공모전 을 후원한다. 북미에서 250개 이상의 팀들 이 이미 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 공모전을 통 하여 구글 어스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 회를 갖게 되며, 선정된 학생들은 구글 콤플 렉스를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각 팀은 그들의 대학을 모델링 하여야 하며, 구글 어스를 위한 구글 스케치 업을 사용하 도록 되어 있다. SKP(SketchUp) and KML(Google Earth data) 파일을 결과물 로 제출하여야 한다. 5~7개의 수상팀들은 무료로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할 기회를 갖는다.

이 공모전에서 모든 건물들은 구글 스케 치업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글은 최고의 실 무 문서와 비디오 튜토리얼과 빌딩의 예를 제공한다. 공모전 마감은 2007년 6월 1일이 다. 제출된 작품들은 공공의 소유로 남으며,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저장되며, 구글 어스 에서 볼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와 오픈 디자인 얼라이언스의 합의 도출 노력

오토데스크사와 오픈 디자인 얼라이언스는 워싱턴에서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이번 협상은 오토데스크사의 소송 제기 에 의한 것이다. 오토데스크사는 자사의 등록 상표에 대한 오픈 디자인 얼라이언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지속적인 협상은 해당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간의 최종 합의 문서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윈도우 운영체계를 위한 피라네시 5 출시

윈도우용 피라네시 5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피라네시는 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편리한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받아 왔다. 새로운 버전의 피라네시에 다양한 특성과 개선이 이루어져 있으며, 연계 프로그램은 베틀트도 같이 출시될 것이다. 이와 함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0개의 이미지가 주어진다.

인텔리 캐드 6.3 출시

인텔리 캐드 테크놀로지 연합(ITC)은 최신 버전의 인텔리캐드 6.3의 CAD 엔진을 발표하였다. 이 엔진은 DWG 데이터 포맷을 읽고 쓸 수 있으며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모든 CAD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텔리캐드 6.3은 산업표준이라 할 수 있는 OpenDWG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자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텔리 캐드 6.3은 DWG 2007 파일 포맷을 새로운 OD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텔리 캐드 6.3은 DWG 2007 파일을 읽고, 쓰고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10개의 새로운 엔티티와 80개의 새로운 시스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인텔리캐드 6.3의 개발에서 DWG 2007과의 호환성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나,

그 밖에 주요한 성능의 개선점들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색상조절 에디터 기능이 추가되어 색상을 구성하고 만들고, 수정하기 손쉽게 되어 있다.
- PDF로의 출력을 위한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새로운 코드 페이지 매니저 명령어를 사용하여 도면의 변환이나 편리한 방식으로의 도면 열기를 할 수 있다
- 래스터 이미지 활용 분야에서의 다양한 증진

맥킨토시를 위한 DWF 뷰어

오스틴 실버사는 맥킨토시에서 DWF 문서를 볼 수 있는 뷰어인 맥드위프를 발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과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이는 DWF 파일을 100% 확실하게 볼 수 있기 위하여는 프로젝트 활과 연결을 필요로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2D 및 3D에서 DWF 파일을 열 수 있다. 3D 파일의 경우 파일을 열 수는 있어도 보는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하여는 Mac OS X 10.3.8 or 이후 버전을 필요로 한다. 이는 파워 맥과 인텔 맥 모두에서 작동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는 무료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사의 DWF 뷰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의 연결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하여 오토데스크사의 서버에 디자인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는 맥킨토시 사용자에게 DWF 파일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오토데스크 디자인 리뷰 2008과 글로벌 스펙 연결

오토데스크사와 글로벌스펙사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 내용으로는 오토데스크사의 디자인 리뷰 2008에서 글로벌스펙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적 디자인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시방과 조달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자인 과정의 원활함과 디자인 과정의 재 정의를 하고자 하고 있다. 오토데스

크 디자인 리뷰 2008은 프로젝트 팀을 위한 DWF 기반 리뷰 및 마크업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글로벌스펙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은 제조와 품질관리 엔지니어, 생산 기획자, 공급자와 고객 모두가 오토데스크 디자인 리뷰를 사용하여 CAD 도면이나 모델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글로벌스펙의 스펙 서치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7 건축 시각화 공모전 개최

올해 제 3회 건축분야의 시각화 공모전이 열린다. 이 공모전은 상상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 분야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의 당선작과 결승에 오른 작품들에 대한 푸집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공모전의 목적은 건축적 일러스트레이션을 증진하며, 커뮤니티의 참가를 통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건축적 작품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능력을 구사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에 관하여 시각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가장 최고의 시각적 예술가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을 사로잡고 건축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올해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모전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25개의 작품이 선정되며, 그들에게 5개의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택된 작품에 관하여 스토리를 이야기 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이 공모전은 중간 평가에 의한 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간 평가 일정이 잡혀져 있으며, 참가자들은 그들의 진행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자들은 중간 과정에서 공모 작품의 중간 과정을 크리틱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조언을 통하여 최종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 제 8376호/2007.4.11)

건설교통부는 '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

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조합총회 의결·동의를 받고 따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중복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타 사항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都市開發法	도시개발법
<p>第3條(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p> <p>①·②(생략)</p> <p>③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p> <p>1.·2.(생략)</p> <p>3. 제1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政 府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p> <p>4.·5.(생략)</p> <p>④(생략)</p> <p>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都市開發區域의 규모, 요청의 節次, 提出書類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4條(開發計劃의 수립 및 변경)</p> <p>①~③(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第7條(住民 등의 意見聽取)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都市開發區域을 지정(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p>	<p>第3條(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다음各호의 어느 하나-----</p> <p>1.·2.(현행과 같음)</p> <p>3. 제11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政 府투자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2의 規定에 따른 政 府출연기관의 장-----</p> <p>4.·5.(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p> <p>第4條(開發計劃의 수립 및 변경)</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에는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p>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2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⑥ 제3항의 規定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7條(住民 등의 意見聽取) ① -----</p>

현 행	개 정 안
<p>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후단 신설></p> <p>②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8條(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p> <p>指定權者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11條(施行者 등) ① 都市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施行者”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者 중에서 指定權者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都市開發區域의 전부를 換地方式으로 施行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土地所有者 또는 組合을 施行者로 지정한다.</p> <p>1.·2.(생략)</p> <p><신설></p> <p>3.(생략)</p> <p>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規定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p> <p><신설></p>	<p>-----</p> <p>-----</p> <p>-----</p> <p>-----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規定에 따른 공람 또는 공청회-----</p> <p>第8條(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p> <p>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規定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規定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規定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第11條(施行者 등) ① -----</p> <p>-- 다음各호의 자-----</p> <p>-----</p> <p>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4호의 2의 조합-----</p> <p>1.·2.(현행과 같음)</p> <p>2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p> <p>3.(현행과 같음)</p> <p>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規定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0조의 規定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p> <p>4의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規定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생략) (<u>신 설</u>)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6. (생략) (<u>신 설</u>)	5. (현행과 같음) 5의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외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생략)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規約를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생략)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 또는 토지소유자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規約를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	

현 행	개 정 안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換地方式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行規程을 작성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출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都市開發區域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사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 -----
⑥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⑨ (생략) (<u>신 설</u>)	⑥ 토지소유자 또는 제1항제5호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 ----- -----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⑦~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등) ① 施行者는 港灣·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② 施行者는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基礎調査, 土地買受業務, 損失補償業務, 住民移住對策事業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有關地方自治團體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第12條(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 등) ①----- ----- ----- 國家·지방자치단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 ②----- ----- 有關 지방자치단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생략)</p> <p>④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는 指定權者의 승인을 얻어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信託契約을 체결하여 都市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p> <p>第19條(관련 認·許可 등의 擬制)①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작성 또는 認可를 함에 있어서 指定權者가 당해 實施計劃에 대한 다음 各號의 許可· 승인· 심사· 認可· 申告· 免許· 登錄· 協議· 지정· 解除 또는 처분 등 (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p> <p>2. ~ 7. (생략)</p> <p>8.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的 許可 또는 協議</p> <p>9. ~ 15. (생략)</p> <p>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p> <p>17. ~ 30. (생략)</p> <p><신설></p> <p>②·③ (생략)</p> <p><신설></p>	<p>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신탁업법」----- -----.</p> <p>第19條(관련 認·許可 등의 擬制)</p> <p>①----- ----- (다음 각 호) ----- -----</p> <p>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 수도설치의 인가</p> <p>2. ~ 7. (현행과 같음)</p> <p>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p> <p>9. ~ 15. (현행과 같음)</p> <p>16. 「주택법」 ----- -----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에 한한다) ----- -----</p> <p>17. ~ 30. (현행과 같음)</p> <p>3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신설></p>	<p>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9조의2(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지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p> <p>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p> <p>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p> <p>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p> <p>③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공자 및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에 따라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 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⑦ 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p> <p>⑧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제27조의4·제28조의7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⑩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第21條(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 ① 施行者は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土地등을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施行者は 사업대상 土地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土地를 買入하고 土地所有者 總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p>	<p>第21條(土地 등의 收用 또는 사용) ①-----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제5호 내지 제6호의2 및 제7호(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④(생략)</p> <p>第24條(先受金) ① 施行者は 都市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建築物 또는 工作物등(이하 "造成土地등"이라 한다)을 供給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②(생략)</p> <p>第33條(替費地 등) ① 施行者は 都市開發事業에 必要한 經費에 充당하거나 規約·定款·施行規定 또는 實施計劃이 정하는 目的을 위하여 一定한 土地를 換地로 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替費地 또는 保留地로 定할 수 있다.</p> <p>②(생략)</p> <p>第61條(都市開發債券의 발행) ①(생략)</p> <p>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開發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地方財政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④(생략)</p> <p>第73條(法律 등의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 指定權者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他人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建築物등이나 障礙物등의 改築 또는 移轉 기타 必要한 처분을 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命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p> <p>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許可· 지정·認可 또는 승인 등을 받은 者</p> <p>3. 都市開發事業을 위하여 수립한 規約, 定款 또는 施行規程 등을 위반함으로써 現저히 公益을 해하거나 이해 관계인등의 權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p>	<p>②~④(현행과 같음)</p> <p>第24條(先受金) ①----- 조성토지 등-----</p> <p>②(현행과 같음)</p> <p>第33條(替費地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第61條(都市開發債券의 발행) ①(생략)</p> <p>②-----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p> <p>③·④(현행과 같음)</p> <p>第73條(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지정권자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p> <p>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2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지정·조합설립인가·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결정·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p> <p>4.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p> <p>5. 제13조제2항 단서, 제34조, 제36조</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p>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2조, 제65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p> <p>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p> <p>8.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p> <p>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p> <p>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p> <p>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12.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p> <p>13.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p> <p>14.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p>	<p>第80條(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他人 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의 取消, 工事의 中止, 建築物등이나 障礙物등의 改築 또는 移轉 등의 처분이나 措置命書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第8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組合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80條(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p> <p>3.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p> <p>第8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p>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 ③(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발코니 확장시 에너지절약 요령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현재 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발코니 공간을 거실, 방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코니 확장이 난방면적이 증가, 열적 완충공간의 생략 등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증가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발코니 확장시 에너지절약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건축 관련법규 및 지침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 제2조 제1항 제15호 신설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교부 지침)

- 발코니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하위 기준

-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②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 위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②항에 대한 해설 사항

“상·하층 세대와 인접세대 등 발코니가 접하는 주위 상황에 맞추어 창호 및 구조제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단열의무 시공기준(현행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표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참조

거실의 외벽부위 시공기준

지역별(중부/남부/제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성능을 준수

거실의 바닥부위 시공기준

- 아래세대도 발코니 확장시 : 공동주택 층간바닥의 단열 준수
- 아래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시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부위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 준수(※ 단, 아래세대에 발코니 사시가 있을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적용)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부위 시공기

- 위층세대도 발코니 확장시 : 단열 의무사항 해당 없음
- 위층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시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로써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단열 준수
(※ 단, 위층세대에 발코니 사시가 있을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적용)

창호부위 시공기준

- 발코니 확장시 창호는 지역별(중부/남부/제주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성능을 준수
-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복층유리 이상을 설치해야 함
※ 단창 사용시 에너지손실량이 많고 결로 발생이 심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

- 원인
 - 난방면적(발코니 확장공간)의 증가로 인한 난방부하의 증대
 - 거실의 실내창호 제거로 인하여 외기와의 직접 접촉 및 열적 완충공간이 없어져 난방에너지 손실량이 증가

〈표 1〉 발코니 확장 전·후 에너지소비증가를 예시 (참고용)

구분	창호 설치사양	25평형		32평형		45평형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난방에너지 소비량 (GJ/년)	에너지소비 증가율 (%)
발코니 확장전	실내창호 (복층유리)	24.37	기준	26.08	기준	33.38	기준
	발코니창호 (복층유리)						
발코니 확장후	발코니창호 (복층유리)	36.22	48.62%	41.96	60.89%	51.56	54.46%
	발코니창호 (삼중창)	23.08	-5.29%	29.19	11.92%	34.76	4.13%

※ 자료 출처 :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제34권 제12호 2005년 12월호
게시자료

결로현상 발생이 우려된다

- 원인 : 열적 완충공간이 없어져 거실이 외기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실내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어 발생

난방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하려면

단열성능이 높은 창호의 설치

- 현행 단열기준으로는 복층유리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나, 〈표 1〉에서와 같이 발코니 창호로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가지는

- 창호를 설치·시공하여야 에너지소비의 최소화가 가능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복층유리(low-E, 아르곤 주입)는 삼중 창호의 성능과 유사하므로 사용 권장

<표 2> 창호의 단열성능(열관류율표)

[단위 : W/m² · K (괄호안은 : kcal/m² · h · °C)]

창호의 종류	창호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a)}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창	복층유리 ^{b)}	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2.58)	3.30 (2.84)	3.00 (2.58)
	복층유리 (low-E)	3.70 (3.18)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8)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층+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	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 ※ 자료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제2004-459호)
- ※ 열관류율은 단위면적, 시간, 온도 당 열통과량으로 적은 수치일수록 단열 성능이 좋음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고기밀성 창호의 설치

- 완충 공간 소멸로 인한 외기의 직접 실내유입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기밀성 단열창호와 같은 기밀성이 좋은 창호를 완벽하게 설치·시공하는 것이 권장됨
- 고기밀성 단열창호란(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 공단사업(효율관리제도) 참조 (http://kempia.kemco.or.kr/efficiency_system/high_certificate/power_effect.asp)
 -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창 및 창틀로서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 저항이 0.34m²h²C/kcal(0.293m² K/W) 이상이며,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3등급(3m³/hm²) 이하인 것
 - 유리창호 자체에 특수 열차단 재질을 내장하고 틈새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고기밀 단열창호를 사용하면, 기존 창호에 비하여 44.8%의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고 소음감소에도 크게 기여 가능

-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으로 상용화된 기술로 기존 창호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우수하며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

※ 고기밀성 단열창호 제품리스트

(<http://kempia.kemco.or.kr/eStar/view/HEViewPCCodeList.aspx?pcode=308>)

<표 3>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m²K, 괄호안은 kcal/m²h°C) - 단열 의무사항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a)}	남부지역 ^{b)}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0.76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55)이하	0.81이하 (0.70)이하	1.10이하 (0.95)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35)이하	0.47이하 (0.4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50)이하	0.64이하 (0.5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25)이하	0.35이하 (0.30)이하	0.41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35)이하	0.52이하 (0.45)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축벽		0.35이하 (0.30)이하	0.47이하 (0.40)이하	0.58이하 (0.50)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0.81이하 (0.70)이하
	기타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1.16이하 (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이하 (3.30)이하	4.19이하 (3.60)이하	5.23이하 (4.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이하 (4.70)이하	6.05이하 (5.20)이하	7.56이하 (6.50)이하

※ 자료출처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교부고시)

※ 열관류율은 단위면적, 시간, 온도 당 열통과량으로 적은 수치일수록 단열성능이 좋음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7년 2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 율(%)						
	1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45	5,145	137	274	22	69			5,304	5,488	1,517	1,517	273	546	66	198	34	136	31	213			1,921	2,610	7	7	7,225	8,098	100.0%	100.0%
서울	1,107	1,107	37	74	10	31			1,154	1,212	858	858	174	348	41	123	18	72	18	127			1,109	1,528	6	6	2,263	2,740	33.2%	35.4%
부산	484	484	18	36	4	13			506	533	85	85	14	28	6	18	3	12	4	24			112	167			618	700	8.9%	9.1%
대구	428	428	21	42	7	22			456	492	58	58	20	40	6	18	1	4	2	10			87	130			543	622	7.3%	7.5%
인천	236	236	2	4	0	0			238	240	49	49	6	12	0	0	0	0	0	0			55	61			293	301	3.9%	3.5%
광주	213	213	2	4	0	0			215	217	31	31	8	16	1	3	2	8	3	17			45	75			260	292	3.5%	3.6%
대전	202	202	14	28	0	0			216	230	26	26	9	18	3	9	1	4	1	14			40	71			256	301	3.6%	3.7%
울산	165	165	6	12	1	3			172	180	15	15	4	8	1	3	0	0	0	0			20	26			192	206	2.6%	2.5%
경기	692	692	6	12	0	0			698	704	218	218	21	42	2	6	2	8	1	5			244	279			942	983	12.7%	12.1%
강원	165	165	3	6	0	0			168	171	21	22	3	6	0	0	0	0	1	5			25	32			193	203	2.5%	2.4%
충북	175	175	7	14	0	0			182	189	26	26	2	4	1	3	2	8	1	11			32	52			214	241	2.9%	2.9%
충남	171	171	2	4	0	0			173	175	37	37	2	4	1	3	4	16	0	0			44	60			217	235	2.7%	2.6%
전북	197	197	3	6	0	0			200	203	22	22	2	4	2	6	1	4	0	0			27	36			227	239	2.8%	2.6%
전남	139	139	0	0	0	0			139	139	10	10	1	2	0	0	0	0	0	0			11	12			150	151	1.9%	1.7%
경북	317	317	7	14	0	0			324	331	28	28	3	6	1	3	0	0	0	0			32	37	1	1	356	368	4.6%	4.2%
경남	354	354	9	18	0	0			363	372	24	24	4	8	1	3	0	0	0	0			29	35			392	407	5.2%	4.9%
제주	100	100	0	0	0	0			100	100	9	9	0	0	0	0	0	0	0	0			9	9			109	109	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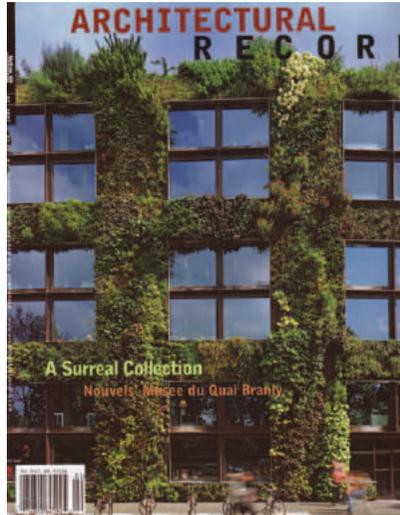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 축 사 회	회 원				준 회 원
	건 축 사	2 급	계	비 율	
합 계	8,098	10	8,108	100.0%	23
서 울	2,740	3	2,743	35.4%	10
부 산	700	1	701	9.1%	9
대 구	622	0	622	7.5%	0
인 천	301	0	301	3.5%	0
광 주	292	0	292	3.6%	0
대 전	301	1	302	3.7%	0
울 산	206	0	206	2.5%	0
경 기	983	2	985	12.1%	2
강 원	203	0	203	2.4%	0
충 북	241	0	241	2.9%	0
충 남	235	3	238	2.6%	0
전 북	239	0	239	2.6%	0
전 남	151	0	150	1.7%	0
경 북	368	0	368	4.2%	1
경 남	407	0	407	4.9%	1
제 주	109	0	109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전 임 미 처 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88	2,610	81	8,179	
비 율	67.1%	31.91%	0.99%	100%	
사 무 소 수	5,304	1,921	-	7,225	
비 율	73.41%	26.59%	-	100%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2월호에서는 장 누벨의 Quai Branly 박물관과 데이빗 취퍼필드의 Modern Literature 박물관, 자하 하디드의 근작이 소개되고 있다. 무언가를 담고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물관과 쇼핑센터는 비슷한 면이 있다. 빌딩 유형 연구에서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20세기 동안 많은 정체성을 축적해온 쇼핑센터를 쇼핑을 하는 구매자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소개하고 있다.

■ 시간서적 리뷰

이번호는 일본의 현대건축의 최근 경향을 다루는 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아라타 이소자키 본인이 쓴 서적이 번역되어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 건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Japan-ness in Architecture , by Arata Isozaki. Sabu Kohso 역. Cambridge. MIT Press, 2006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 SANAA, by Yuko Hasegawa New York : Phaidon, 2006
- Kengo Kuma : Selected Works, by Botond Bogner,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FOBA : Buildings, by Katsu Mmabayashi, Thomas Daniell, Michael Webb.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5

■ 작품리뷰

20세기의 첫 십년에 마르셀 뒤샹이 일상 사물을 예술의 영역에 올려놓았을 때, 소박하고 소중한 예술의 세계는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박물관은 순수한 미학의 집성이 아니었다. 풍자로 덧칠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불경스런 사람들을 사회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오늘날 예술과 공예, 산업의 경계는 더욱더 혼미하다. 디자인이 유일하게 그들 사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1932년 뉴욕 MoMa에 건축과 디자인 분과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프라다 매장의 상품 디스플레이와 박물관의 전시공간 사이의 연대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Museum Quai Branly , Paris(by Jean Nouvel)

세느강의 곡선을 따라 장 누벨은 대담하고 다채로운 요소들의 놀라운 앙상블을 올려 세웠다. 길거리에 면한 박물관의 북측 파사드는 150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비유럽 사회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에 있는 수평적은 일련의 구조체 들은 오스망 시절의 아파트 건물 군에서 솟아올라 박물관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 700 피트의 긴 전시 빌딩은 측면에 여러 가지의 토양의 색채를 연상하게 하는 합성수지 캔틸레버 박스는 소규모의 전시공간으로 전시의 다양한 층위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부적절할 정도로 다양한 파사드를 가지고 있다. 고정된 직교 루버, 조작 가능한 루버, 전술한 돌출된 박스, 연체동물을 닮은 차양의 작동방식은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방식이다. 북측면의 정원은 질 클레망이 디자인 것으로 떡갈나무와 벚나무, 목련 등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남측의 정원은 키 큰 풀과 작은 연못으로 되어있다. 넓고 빛이 제한된 전시공간은 건축사가 “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빙 둘러 구성되고 있다. 이 구불구불한 순환의 중추는 조각적이고 가족으로 뿔뿔히 파티션으로 구분되는데, 이 파티션은 의자와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장치이다. 암적색과 인디고, 황토색, 쪽빛의 색깔은 대지의 색깔을 은유하는 동시에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시 시설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다. 비록 기존의



01



03



02

01_ Jean Nouvel - Quai Branly Museum
02_ David Chipperfield - Modern Literature Museum
03_ Zaha Hadid - Wineshop and Tasting Room

박물관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인포메이션의 제시와 학습의 과정은 보이지 않더라도, 선입견을 잠시 물린다면 장 누벨의 선사미술 박물관은 다채롭지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Modern Literature Museum, marbach, Germany (by David Chipperfield)

이 건축물에서 건축사 데이빗 칩퍼필드는 모더니즘과 고전주의를 명료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Modern Literature Museum은 사이트 주변에 있는 네카 강을 굽어보는 고원위에-이전에 있던 네오 바로크 양식의 국립 쉐러 박물관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남서 측 테라스에서 보면 박물관은 한층 높여처럼 보이지만 동측면으로 오게 되면 테라스가 실제로는 하부 건물의 옥상부였음을 알게 된다. 이 건물이 이런 고전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에는 대지에 1903년 작 쉐러 박물관을 비롯하여 1973년에 건축된 독일 문학 아카이브와 같이 시간차를 가지고 건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Modern Literature Museum에서 PC 콘크리트는 상층부의 기둥에서 매끈한 물성에서 개념적인 준위의 의미를 가지면서 테라스를 향해 열려있는 로지아를 연출해 내고 있다. 모래로 간 PC 콘크리트 기둥과 포디움에서 사용되는 수평 슬래브들은 부드러운 백색조로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다. 하층으로부터 접근한 방문자는 저층의 갤러리가 2개 층에 걸친 콘크리트 아트리움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쉽게 지각할 수 있다. 콘크리트에 의해 적당히 걸러진 외부광선은 하부층 포이어를 비추게 된다. 하부층의 전시관은 고서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50룩스 이하의 빛으로 콘트롤되고 있다. 상설 전시실에서 빛에 대한 사항은 전시대와 조명에서 다시 한번 고려되고 있다. 전시대는 반사도가 낮은 유리와 철을 사용하고 있으며 LED 조명으로 서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무덤같은 장소는 아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갤러리의 천장 높이를 자연광이 들어오는 장소 바로 옆에서 조절하여 바닥에도 자연광이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멀리언과 기둥의 반복적인

리듬은 마치 긴 터널의 램프의 반복처럼 실재감과 모한 거리를 가지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작 Figge Museum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사는 지역적 전통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 건물의 경우 역사와 전통, 개성과 디자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우 적절하게 고유의 영역을 지켜내고 있다.

- Wineshop and Tasting Room, Lopez de Heredia Winery, Spain (by Zaha Hadid)

최근 정력적인 행보로 많은 건축사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있는 자하 하디드가 이번에는 캐노피로 덮여 있는 보석같은 파빌리온을 만들어 냈다. 마치 와인병이 흘러내린 듯한 형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와인샵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터-합성수지 쉘로 되어 있으며 상부의 캐노피는 유리와 철로 되어 있다. 캐노피는 웅벽과 주차공간을 등지고 마을같은 구조를 가진 와인 양조장을 향해 열려있다. 와인 시음을 위한 공간에서 방문객은 기울어진 정문을 통해 들어와 강으로된

골조를 가진 벽으로 된 상자위에 있는 긴 선반 위 혹은 그것에 인접해 있는 하얀 베르너 팬톤의 의자에 앉게 된다. 시음공간 하부에는 기능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며 외부 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빌리온 안쪽에는 대단히 이질적이면서 고전적인 건축이 별도로 내장되어 시음공간의 끝을 화려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의 실체는 1910년에 브뤼셀에서의 축제를 위해 마호가니와 오크로 제작된 와인 디스플레이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르누보의 흐드러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 건물 유형 연구

우리는 항상 우리가 쇼핑을 하는 장소에 있다. 우리가 인정하던 그렇지 않은 우리가 쇼핑을 하는 장소는 우리의 수입과 나이, 거주장소, 라이프스타일, 개인적 취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에 리치몬드 연예소동이나 새벽의 저주와 같이 로맨틱 코미디와 공포영화를 넘나들며 쇼핑센터는 우리의 정서적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1916년에 시작해 이제는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Market Square나 캔자스 시티에 Country Club 쇼핑 지역(1922년 개장)은 J.C 니콜스에 이르러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쇼핑센터”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실상 20세기의 발전의 경로와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기에 쇼핑센터는 더할나위 없이 편리한 대상이다. 교외로 나가서 사이즈를 키우고, 아울렛이 들어서고, 다시 도심부에 쇼핑센터 설립으로 공동화를 막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선도하고 예견하고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맨체스터에 자리하는 Triangle Shopping Center에서 영국과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Benoy는 테러에 의해 파괴된 20세기 초의 곡물 교환을 위한 빌딩을 근대전 쇼핑센터로 탈바꿈시키면서 파급력을 주변으로 전파하고 있다. Mel Chantrey가 만든 조각들이 북쪽으로 난 새로운 출구로 유도를 하고, 세 개의 다리위에 떠있는 스카이 바는 이 센터의 아이콘으로 인식된다. 건축사는 기존에 있던 볼트와 돔을 제거하고 스테인레스 강과 유리 와 같은 새로운 재질을 입혀 역

사적 장소를 활기찬 쇼핑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스카이 바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야간에 쇼핑센터 안에서 재조립되었다. 커피숍이 안에 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 출강)

新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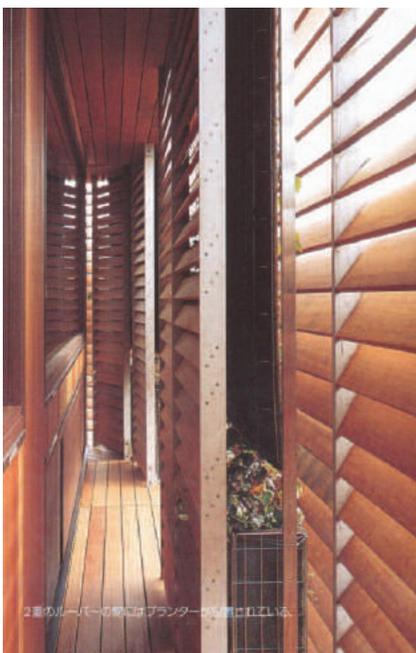


이번 호(3월호)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소주택과 상점, 클리닉 등 소규모 건축과 인테리어에 집중된 작품소개가 이루어졌다. 니시자와 류에의 House A는 실내를 마치 외부의 정원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작품으로 독특한 개방감과 공간감으로 표지를 장식했다.

■ House A

• 설계 : 니시자와 류에 건축설계사무소
정원과 같은 집 - HOUSE A는 오래된 목조주택이 밀집하는 주택지에 세워진 독신자를 위한 주택이다. 건축주가 요구한 것은 파티를 열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어딘가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게스트가 숙박할 수 있는 침실과 식당 겸 주방, 욕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지는 남북방향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고, 동서의 인접 대지쪽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목조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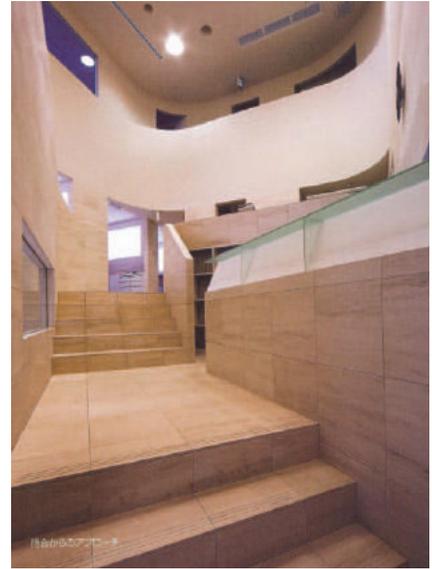


어느 정도 건물들이 밀집된 곳이었다. 건축사는 주거환경으로서는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건축사 니시자와는 층고가 높은 몇 개의 방을 일렬로 늘어놓은 후 약간씩 비껴 배열해 전체적으로 밝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전체구성은 도로측부터 게스트하우스, 현관 포이어, 선룸+세탁실, 다이닝키친, 드레싱룸(2층 부분에 침실)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모든 실들이 좌우로 조금씩 비껴 가면서 부지형상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있다. 이 방들은 모두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어 실내에 들어서면 방안에 가구나 화분들이 놓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야외 정원에 놓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단층 구조이면서도 철골조를 사용한 것은 극도로 세장하고 가벼운 구조체를 통해 이와 같은 개방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알루미늄패널로 마감된 소박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감은 이 작은 주택을 신건축 작품소개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 노노야마 교정 치과 의원

• 설계 : 산부이찌 건축사사무소

이 건물은 자연에너지의 활용, 도시적 환경에의 적응, 그리고 새로운 치과병원으로서의 존재감 표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사이에서 균형잡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의 동쪽과 남쪽이 간선도로의 교차로 모퉁이에 면하고 있어 연중 태양광의 영향을 받으며, 도로의 분진과 배기가스 소음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지의 위치는 건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해답은 건물의 표피 디자인에서 찾아졌다.



인에서 찾아졌다. 건물 표면에서 내부 공간에 이르기까지에는 총 4개의 쉼을 마련하였다. 가장 최 외곽의 표피는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루버로 만들어져 태양광과 시선, 우수 등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 안쪽에는 마련된 작은 폭의 공간에는 토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여기에 식재를 심어 열환경조절기능을 갖도록 하였고, 그 안쪽에는 다시 목재루버를 설치하여 폭풍우시의 빗물이 들이치거나 나뭇잎이 날리는 것을 막고, 식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내측의 목재루버와 건물의 벽과 창이 있는 사이에는 전형적인 더블스킨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통풍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목재를 사용한 더블스킨의 표피구조는 건물에 개성적인 인상을 부여할 뿐 아니라 자연에너지의 활용과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㉞

(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